

5G heading for tomorrow

SK Telecom Annual Report 2017

About This Report

본 보고서는 SK텔레콤의 통합 연차보고서(Integrated Annual Report)로서 SK텔레콤의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연례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SK텔레콤의 재무적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 비재무적 성과와 그 저변의 가치 제고 노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가치창출 스토리(Value Creation Story)를 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이사회는 2018년 6월 본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작성 근거 및 참조 국제 가이드라인

본 보고서는 <IR> Framework가 제시하는 원칙과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IR> Framework는 재무·비재무 성과 통합 보고를 위하여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가 제정한 표준 프레임워크입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 Standards'의 포괄적(Comprehensive) 부합(In accordance with)요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리드(LEAD) 기업으로서 UNGC 10대 원칙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UNGC의 이행보고서(COP, Communication on Progress) 작성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보고의 범위와 경계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라는 표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연결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은 SK텔레콤 개별기업을 지칭합니다. 재무 데이터는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환경·사회 등의 비재무 데이터는 개별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서술과 정보에 대해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SK텔레콤의 해외지사, 자회사, 투자회사의 데이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 SK텔레콤의 재무적, 운영적 통제력과 사업 영향력,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표기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포함하였습니다. 보고의 지리적 경계는 매출의 99%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주 사업장이 위치한 대한민국이며, 시간적 경계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일부 정성적 활동은 2018년 5월까지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보고된 과거 데이터에 주의가 필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과거 데이터를 재산정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보고 주기는 1년으로 이전 보고서는 2017년 7월에 발간된 <SK Telecom Annual Report 2016>입니다.

제3자 검증 및 예측 정보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에 담긴 재무 정보는 독립 감사법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비재무 정보는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포함된 온실가스 데이터에 대해 별도의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SK텔레콤과 자회사들의 재정 상황, 운영·영업 성과, 회사 경영진의 계획·목표와 관련된 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검증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상황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측진술을 통해 기재되거나 암시된 미래 실적과 회사의 실제 실적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 이니셔티브 및 파트너십

SK텔레콤은 사회 윤리와 국제 환경 개선을 위해 유엔기구들과 기업들이 협조하여 발의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2007년 가입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블루프린트(Blueprint)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선도기업 협의체인 GC 리드(GC LEAD) 기업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경영 시스템 표준인 ISO 26000 준수를 비롯하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통합보고(IR, Integrated Reporting)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SK텔레콤의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2008년부터 10년 연속 아시아 통신기업 최초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월드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5G heading for tomorrow

이제, 모두가 기다리던



5G technology

5G 시대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SK텔레콤은

2019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며

5G 시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초고속, 초대용량, 초저지연의



for a better life

특성을

갖춘 5G는 오프라인의 ICT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인프라입니다.

SK텔레콤은



5G technology

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증강현실

(AR), 가상현실(VR) 등의 첨단 ICT를 융합해 개인과 가정, 산업, 사회에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변화를



for expanded industries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5G와 ICT가 만드는 변화

속에서 일상의 행복은 커져가고 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며 사회는



5G technology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5G의 진정한 리더, SK텔레콤은 글로벌 New ICT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여 모두가 꿈꾸던 미래를 가장 먼저 열어가겠습니다. SK텔레콤이 만들어

가는



for social value

5G 시대의 새로운 모습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5G for

SK텔레콤의 5G는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미래 생활 인프라입니다.
 커넥티드카로 편하게 이동하고 스마트홈에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차세대 미디어로 감동을 만나는 동안
 상상만 하던 새로운 미래가 눈 앞에서 펼쳐집니다.
 5G 네트워크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모두의 삶은
 놀랄 만큼 편리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a better life



Distance 15,3 KM

SKT 64% 오후 2:06

DISTANCE 15,3 KM

TAKE TIME 25MIN 3HR

WASHINGTON AVE

2min. 800y. President St.
 1min. 800y. Lake Road
 200y. Bridge Street

18 32 50

NUGU

Distance
15,3 KM



7m
 합정역

62m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강화문으로 가자"

"가까운 주유소 찾아줘"

"김이리에게 전화해줘"

"도쿄강"

"주유소 찾아줘"

"뉴스 볼래"

- 1 SK타워 6.4km · 서울 중구 남종로 60
- 2 SK하이닉스 본사 86km · 경기 의정부시 영동대로 2091
- 3 SK남산빌딩 5.4km · 서울 중구 남종로 24
- 4 SK텔레콤 인재개발원 53km · 경기 의정부시 서문리로 481-2

초연결 사회의 허브, 커넥티드카로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미래 초연결 사회의 허브로 주목받는 커넥티드카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지능형 자동차입니다. SK텔레콤은 5G 네트워크와 V2X(Vehicle to Everything), 3D HD 맵(초정밀 지도), 양자암호통신 등 핵심 인프라와 기술을 기반으로 2016년 11월 5G 커넥티드카를 시연한 데 이어 2018년 2월 복수의 5G 자율주행차 운행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운전자와 자동차, 도시를 연결하는 꿈의 자동차, 커넥티드카의 실현이 5G 네트워크로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Realizing Artificial Intelligent platform-centered smart homes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중심으로 완벽한 스마트홈을 구현합니다

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인공지능(AI) 플랫폼 누구(NUGU)가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며 개인에 최적화된 스마트홈을 만들어갑니다.

음성만으로 검색, 음악 듣기, 뉴스 브리핑, 날씨 안내, 배달 주문, 쇼핑은 물론 가전·전기 제품 제어까지 다양한 스마트홈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은 T map x 누구(NUGU), B tv x 누구(NUGU) 등을 새롭게 선보이며 서비스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플랫폼에

5G 네트워크가 더해지면 개인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할 완벽한 스마트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periencing vivid impressions with immersive media

실감형 미디어로 놀랍도록 생생한 감동을 만납니다

SK텔레콤의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옥수수(oskusu)가 5G를 만나 차세대 실감형 미디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새롭게 선보인 '옥수수 소셜 VR'은 가상현실(VR) 기기를 쓰고 가상 공간에서 다른 이용자와 함께 동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놀랍도록 실감나는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기술을 접목한 고화질 콘텐츠, 홀로그램을 적용한 인공지능(AI) 스피커 등 5G에 기반한 다양한 차세대 미디어 기술 개발로 세상에 없던 감동을 선사합니다.





Dure Farm Center

Monitoring Group 04
Location: Sector 447
Stage of growth: Tillering (Stage 5)

3.3k

January 21

Rain

12°C : 76% RH
⇒ 95 km/h

Water, Light, CO2, Temperature, Humidity

Drone No. 2379
Survey Mode
Temperature 27.5°C
Humidity 38.7%RH

Product Code 33175
Next pesticide application: Jun 8
Shipping schedule: Oct. 15

전통적인 농축산업을 가장 미래적인 산업으로 변화시켜갑니다
5G와 함께 전통적인 산업이 가장 미래적인 산업으로 변모해갑니다. SK텔레콤의 스마트팜은 IoT를 비롯한 첨단 ICT를 접목해 농축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지능형 농장'으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축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농축산에 차세대 IC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을 4차 산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5G for

SK텔레콤의 5G는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산업 혁신 인프라입니다. 농축산, 제조, 유통 등의 전통 산업에 첨단 ICT를 융합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어 새로운 성장 기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5G 네트워크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에게 가장 든든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expanded industries



Enhancing productivity in the livestock industry with IoT-based domestic animal management

IoT 가축 관리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SK텔레콤은 유라이크코리아, 남양유업과 협력하여 IoT 가축 관리 서비스인 '라이브케어(Live Care)'를 유기농 축산 목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의 위에 IoT 전용망 '로라(LoRa)' 통신 모듈을 탑재한 바이오 캡슐을 투여하고, 이를 통해 측정된 체온변화를 바탕으로 질병, 임신, 분만 등의 징후를 목장주에게 알려줌으로써 혁신적인 농장 관리가 가능합니다. 향후 5G 네트워크와 결합된 라이브케어 서비스를 통해 농가 생산량 증대와 유제품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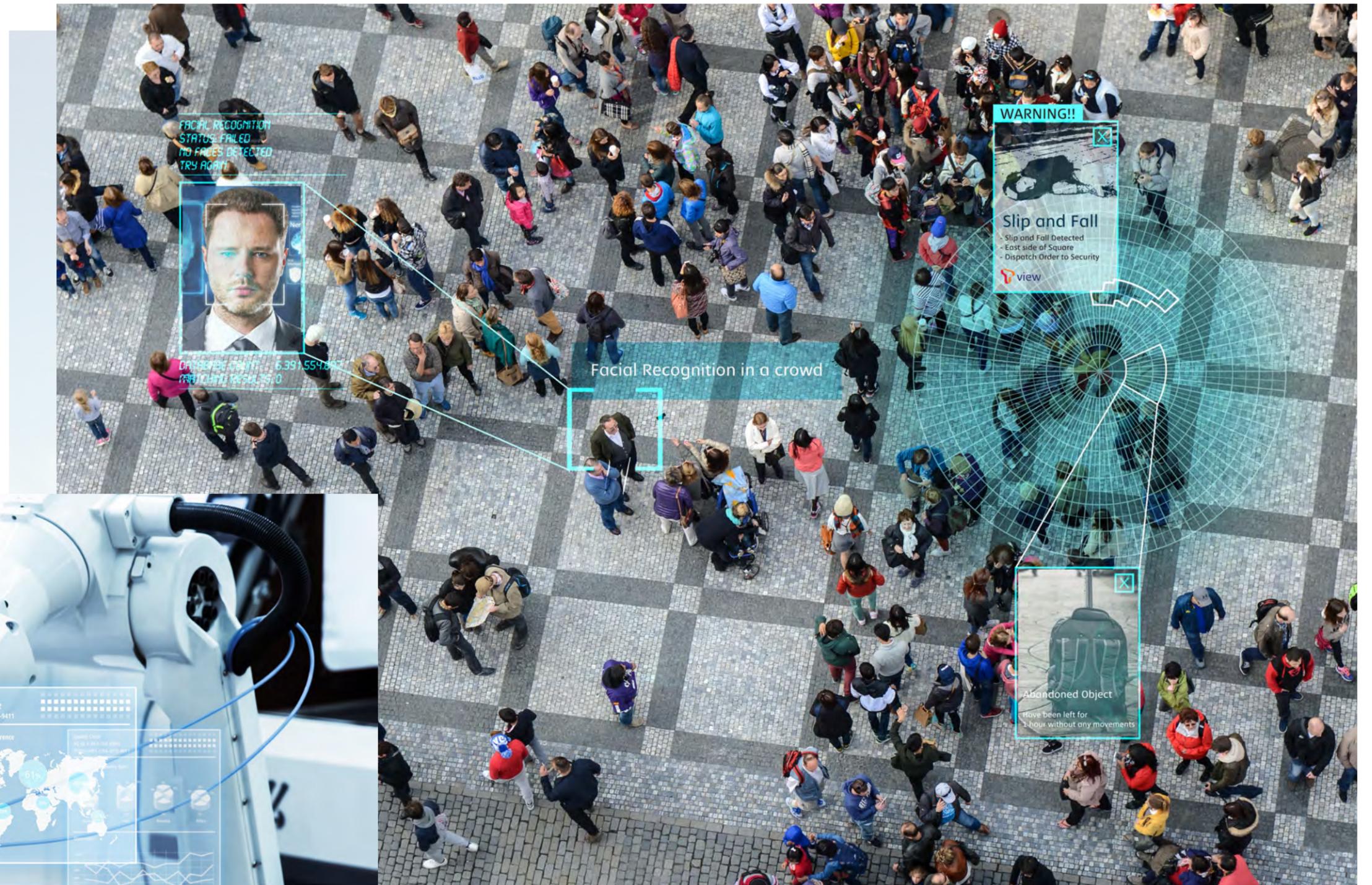
Leading innovation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rough smart factories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여 제조산업의 혁신을 주도합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등의 최신 ICT를 적용하여 설계·개발부터 제조, 유통·물류까지 공장의 모든 생산과정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개발, 공급합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제조업과 협력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스마트팩토리 구축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의 도입과 함께 제조 생산성을 제고하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완벽한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여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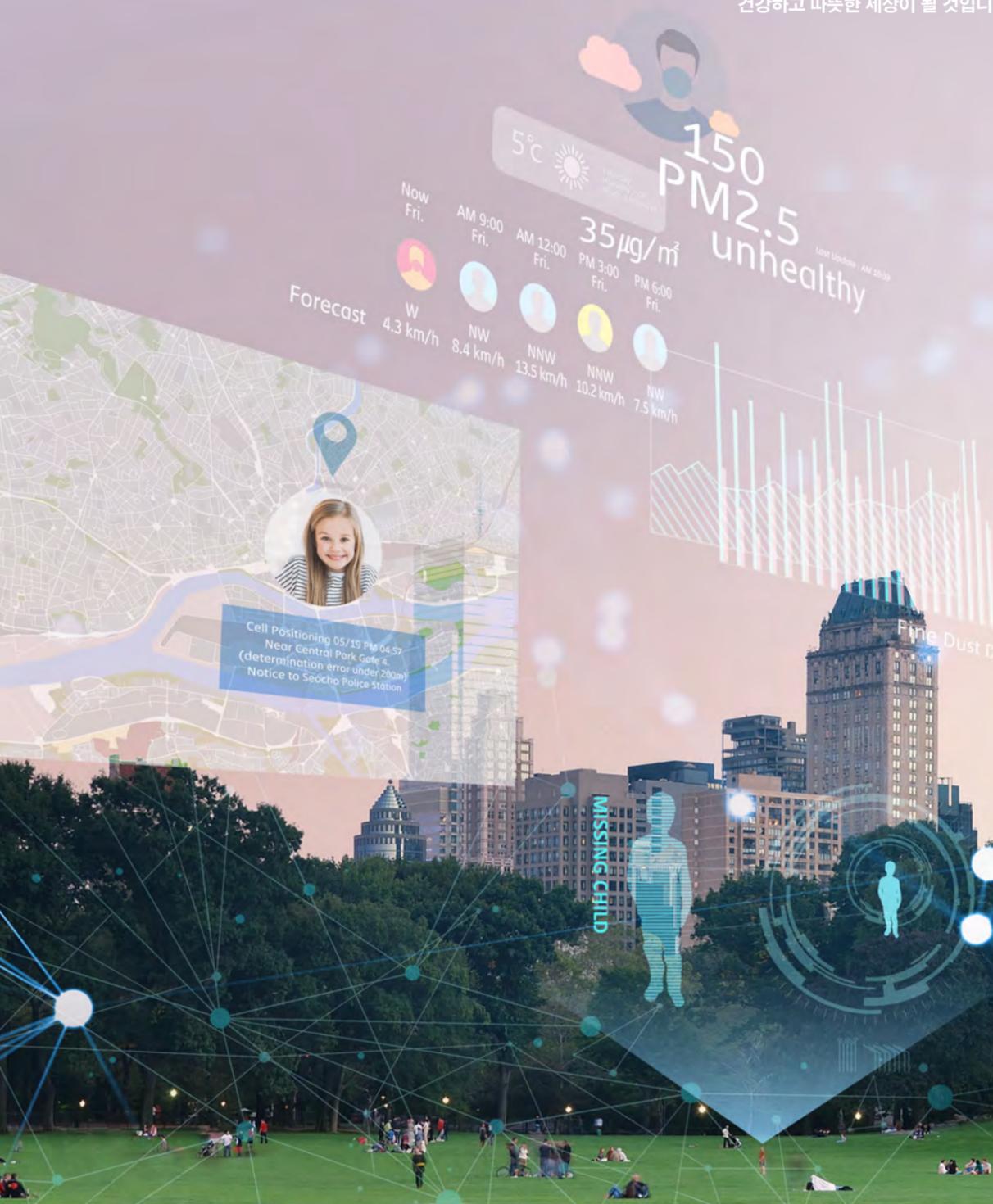
Facial Recognition in a crowd

통합 보안 시스템으로 스마트보안 시대를 열어갑니다

SK텔레콤이 ADT캡스의 인수를 계기로 스마트보안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기존의 물리보안 서비스에 영상보안기술,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등의 ICT 기술을 더한, 통합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자산의 안전을 넘어 토털 케어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차세대 보안 서비스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5G for

SK텔레콤의 5G는 모두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 인프라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스마트시티가 늘어나고
 공공의 안전이 더욱 든든해지고 다가올 멋진 미래를
 미리 체험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5G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사회는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전해지는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social value

스마트시티에서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함께 누립니다

가정과 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5G 네트워크와 첨단 ICT로 연결된 스마트시티가 곧 모두의 일상이 됩니다. SK텔레콤은 정부기관,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주요 지역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응급호출 서비스', '통합화재관리 솔루션'을 비롯해 시민 안전과 복지, 교통과 에너지 관리, 지능형 화재 관리 등 도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Using drones to save lives in disaster areas

재난 현장의 소중한 생명, 통합 공공안전 솔루션으로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5G는 재난, 조난 등 긴급 상황에서 공공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미 현장에서 활용 중인 SK텔레콤의 관제드론과 영상재난구조시스템(DMS)에 5G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적용되면 정교한 드론 조종과 초고화질 영상의 실시간 전송으로 인력이 닿기 힘든 곳에서도 빠른 현장 파악과 후속 대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소방·재난 전용 드론을 비롯한 종합적인 공공안전 솔루션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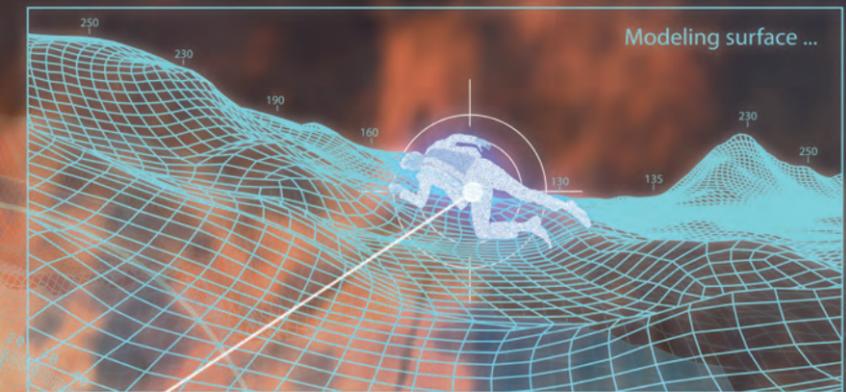


Control Center Information

Order to move

Team 001	268
Team 002	923
Team 003	184
Team 004	645
Team 005	917
Team 006	836

Spot Information



MERGING DATA ...



Moving toward a better world for the future of our children

꿈꾸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합니다

섬마을 어린이도, 산골마을 어린이도 5G와 ICT가 만드는 미래를 상상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이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이동형 ICT 체험관 '티움(T.um) 모바일'은 어린이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은 물론 스페인, 페루 등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스마트로봇 코딩교육과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홀로그램 등 다채로운 ICT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을 새로운 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5G와 ICT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고 티움 모바일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SK Telecom is
the first to bring 5G
connectivity to the world

모든 것이 연결되는 5G 시대,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모두를 안내합니다. SK텔레콤은 5G 네트워크와 첨단 ICT를 기반으로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모두가 꿈꾸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글로벌 New ICT 기업 SK텔레콤이 선도하는 5G 시대,
그 놀라운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ABOU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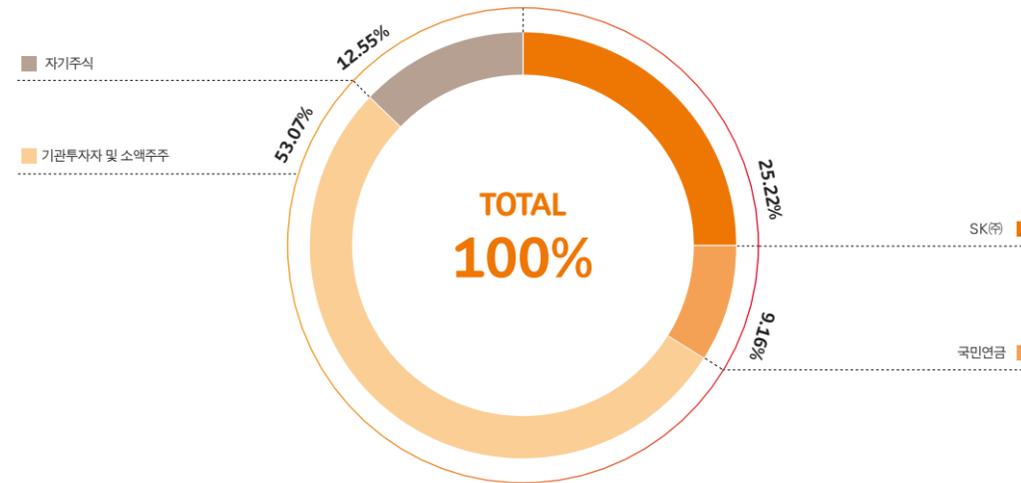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미디어, IoT/Data, 서비스플랫폼, 커머스 등 핵심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New ICT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2017년 말 기준 가입자 수 30,195천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그리고 '최초'의 기술과 서비스로 대한민국 ICT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 (2017.12.31 기준)

설립일	1984.03.29
가입자 수	30,195천 명(*)
직원 수	4,516명
자회사 수	39개
증권거래소 등록 현황	한국증권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 일통폰(MVNO) 가입자 수 포함 기준

주주 현황 (2017.12.31 기준)



INSIDE THIS YEAR'S REPORT



COMPANY OVERVIEW

LETTER TO STAKEHOLDERS	29
BOARD OF DIRECTORS	33
OUR BUSINESS MODEL	35
YEAR 2017 ACHIEVEMENTS	37
LONG-TERM MANAGEMENT ISSUES	45
PROGRESS ON MATERIAL TOPICS	51



SOCIAL VALUE

BUSINESS CASE 1. New ICT Company	55
BUSINESS CASE 2. ICT 기반 공유 인프라 혁신	59
BUSINESS CASE 3.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 기반의 성과 측정	63



ACCOUNTABILITY

거버넌스 리포트	71
리스크 관리 리포트	79
투명윤리경영 리포트	85
인권 리포트	89
공급망 리포트	93



FINANCIAL & NON-FINANCIAL STATEMENTS

재무 성과표	99
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107
비재무 성과표	115
비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117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31
제3자 검증의견서	132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135



OTHER INFORMATION

CEO 인권정책 성명	137
비즈니스 파트너 ESG 행동규범	139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41
유엔글로벌콤팩트(UNG)	143
GRI CONTENT INDEX	144
SASB INDEX	148
재무 성과표(별도)	149
글로벌 네트워크	155
투자자 정보	156

01

COMPANY OVERVIEW

1 Letter to Stakeholders 29	2 Board of Directors 33
3 Our Business Model 35	4 Year 2017 Achievements 37
5 Long-term Management Issues 45	6 Progress on Material Topics 51

LETTER TO STAKEHOLDERS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2017년은 SK텔레콤이 대표 NEW ICT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2017년 SK텔레콤은 대한민국 1위 통신 사업자를 넘어서,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New ICT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5G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미디어, IoT, 서비스플랫폼 중심 New ICT 전략을 새롭게 하는 한편,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 규격 기반의 5G 데이터 통신 시연에 성공하여 네트워크 리더십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에서의 고객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미디어, IoT, 인공지능(AI) 등 성장 영역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당사는 2017년 연결기준 매출 17조 5,200억 원, 영업이익 1조 5,366억 원의 재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1년 연속(2018년 기준)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아시아 통신기업 최초로 10년 연속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지수 편입, 동반성장지수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 6년 연속(2018년 기준) 달성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대외 성과도 이어갔습니다. 이는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SK텔레콤은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 아쉽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경청하고 고민하여, 더 많은 고객의 사랑을 받는 대표 New ICT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 Voice의 정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약금 제도 개선, 로밍 요금 및 멤버십 개편 등 '고객가치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했던 마케팅 비용 중심의 경쟁을 지양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성을 기반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사랑받는 사업자로의 체질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 가입자 증가를 이루며 이동전화 매출을 성장세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지속적으로 시장 안정화 및 마케팅 비용의 효율화를 이루어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성과가 New ICT 성장 사업에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모바일 융합을 주도할 5G 네트워크의 성공적 구축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ICT 생태계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SK텔레콤은 5G를 '오프라인의 무선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로 정의하고,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네트워크 운용기술과 차세대 기술기반의 네트워크 솔루션, 양자암호통신 등 차별적 기술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협력을 통해 표준화 과정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5G 시대를 선도할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5G는 전세계 430억 개 사물이 통신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로 통신망 운용의 핵심 경쟁력은 '안전(Safety)'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현존하는 최고의 통신 보안 기술인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을 주도해 왔습니다. 2018년 2월 세계 최고의 양자암호통신 원천 특허를 보유한 스위스 IDQ사를 인수하여 글로벌 보안 시장의 선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에서 당사는 '최대 용량의 주파수'를 주파수 대역 확장이 용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유리한 '최적 대역'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자율주행차, 차세대 기술기반 고화질 미디어 콘텐츠, 360도 라이브 영상전화 등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5G 네트워크에서 구현될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주력하여, 이동통신 사업자로서뿐만 아니라 성장 사업의 대표 사업자로서 New ICT 시대를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디어 영역에서 유·무선 IPTV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콘텐츠를 중심으로 매출 성장을 이루며, 유·무선 1위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역량이 미디어 사업의 경쟁력과 직결됨에 따라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고,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옥수수(oksusu)'를 중심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음성인식·증강현실(AR)·스마트홈 등 기술 융합형 서비스 연계를 통해 플랫폼을 확장하여 국내 1위 종합 미디어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IoT 영역에서는 2016년 IoT 전용망 LoRa에 이어 2018년 4월 LTE Cat.M1 전국망 완성을 통해 외부 협력사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IoT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 유통, 물류, 제조 등의 영역에서 데이터 분석기반 IoT 솔루션 사업의 경쟁력을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주도하는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글로벌 ICT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는 보안 사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확보하고자, 2018년 5월 국내 2위 물리 보안 사업자인 ADT캡스의 지분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거쳐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비스플랫폼 영역은 2016년 국내 최초 음성인식기반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NUGU)' 출시에 이어, 2017년 내비게이션 서비스 'T map 누구(T map x NUGU)', 셋톱박스 'B tv 누구(B tv x NUGU)' 등 플랫폼 라인업을 다양화하며 음성인식 서비스의 실이용자를 확대하였습니다. Car-Home-Mobile을 연계하는 개인 생활패턴 전반의 데이터 수집·분석 기반을 고도화하고, 생활가치를 혁신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인공지능(AI) 플랫폼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커머스 영역은 2018년 6월 SK플래닛에서 커머스 플랫폼 11번가를 분사하고, 11번가에 대해 H&Q코리아로부터 총 2.75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5천억 원의 신규 자금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향후 11번가는 데이터 분석 기반 효율적 마케팅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지속하고, 전략 카테고리 중심의 커머스 역량을 강화하여 성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NEW ICT 기업이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은 ICT 공유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회사 경영성과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해 경영활동의 사회·환경 영향을 평가 및 관리해 나감으로써, 재무적 가치와 사회·환경 효용을 동시에 증대하는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을 지향합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활동과 핵심 경영전략을 이행하는 경영의사결정의 전 과정에서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여 단기적인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 창출을 이루어 갈 계획입니다.

ICT 영역에서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시장 경쟁의 변화, 규제 변동, 사회적 요구 증가 등 SK텔레콤이 처한 현실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은 2018년이 건강한 긴장감을 기반으로 주주, 구성원,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New ICT 리더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항상 저희 SK텔레콤을 지켜봐 주시는 고객,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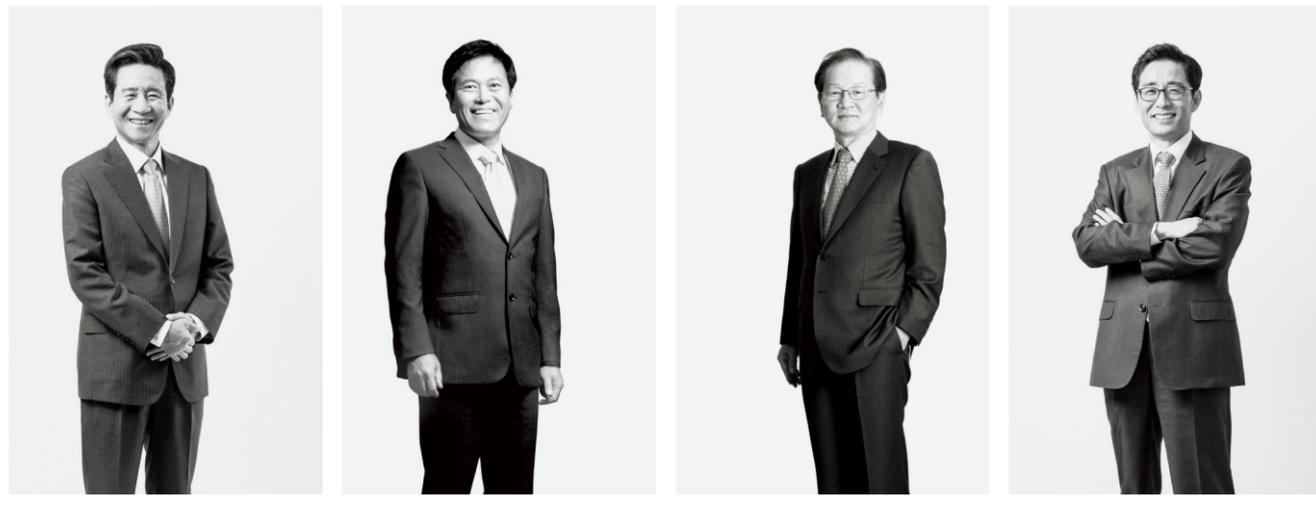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박 정 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BOARD OF DIRECTORS



1

2

3

4

1 이재훈 (현)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2018~현재)
(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2014~2017)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2008~2009)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2 박정호 (현)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2017~현재)
(전) SK(주) C&C 대표이사 사장 (2015~2016)
(전) SK C&C Corporate Development장 부사장 (2013~201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오대식 (현) 세무법인 제일티앤엠 대표 (2016~현재)
(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008~2016)
(전)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2007~2008)
감사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4 안재현 (현) KAIST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2015~현재)
(전) KAIST 경영대학 대외부학장 (2013~2015)
(전)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장 (2011~201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기업시민위원회

SK텔레콤은 투명성과 책임경영의 가치 아래 이사회 중심의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이룸으로써,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이익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의 이사회는 5명의 사외이사와 2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총 8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모두 SK텔레콤의 '독립성 및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5

6

7

8

5 안정호 (현)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부교수 (2013~현재)
(전) 구글 방문연구원 (2016)
(전) 휴렛팩커드연구소 연구원 (2007~2009)
보상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기업시민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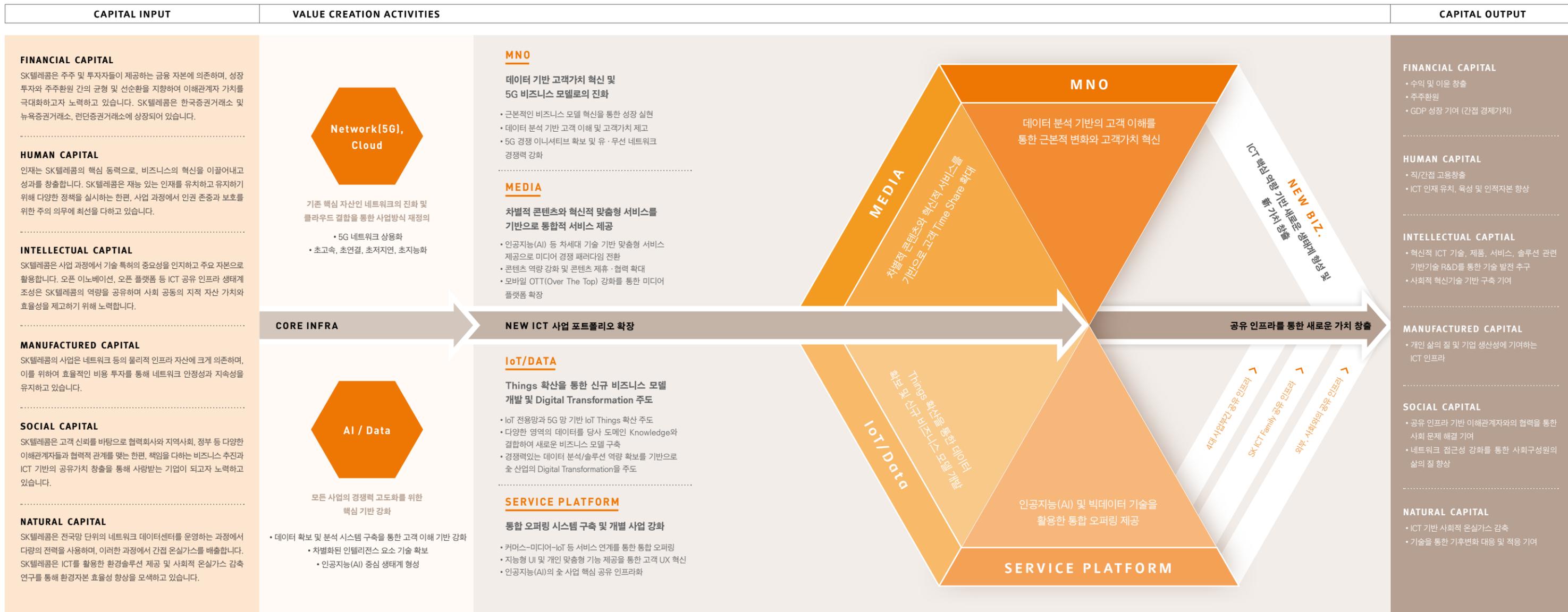
6 윤영민 (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장 겸 미디어학부장 (2017~현재)
(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2006~현재)
(전) 한국PR학회 부회장 (2015~2016)
감사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기업시민위원회

7 조대식 (현) SK SUPLEX추구협의회 의장 (2017~현재)
(전) SK(주) 대표이사 사장 (2013~2016)
(전) SK(주) 재무팀장 겸 자율·책임경영지원단장 (2012)

8 유영상 (현) SK텔레콤 Corporate센터장 (2017~현재)
(전) SK(주) C&C 사업개발부문장 (2015~2016)
(전) SK텔레콤 사업개발전략본부장 (2014)
투자심의위원회

OUR BUSINESS MODEL

오프라인 세상의 ICT화를 주도하는 NEW ICT 생태계 리더



지난 30년 간 SK텔레콤의 네트워크는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진화해 왔습니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와 앞선 기술로 대한민국 이동통신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SK텔레콤은 5G, 미디어, IoT/Data, 서비스플랫폼 등 New ICT 영역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새로운 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오프라인 세상이 ICT화 되는 5G 시대를 맞아 New ICT 리더로서 혁신과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핵심 인프라를 강화하고, New ICT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함과 동시에 공유 인프라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5G 시대를 여는 NEW ICT COMPANY

이동통신사업에서의 혁신과 성장을 기반으로 5G 시대를 선도하는 NEW ICT 성장 포트폴리오를 통해 미래 가치 창출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성과

New ICT 기업으로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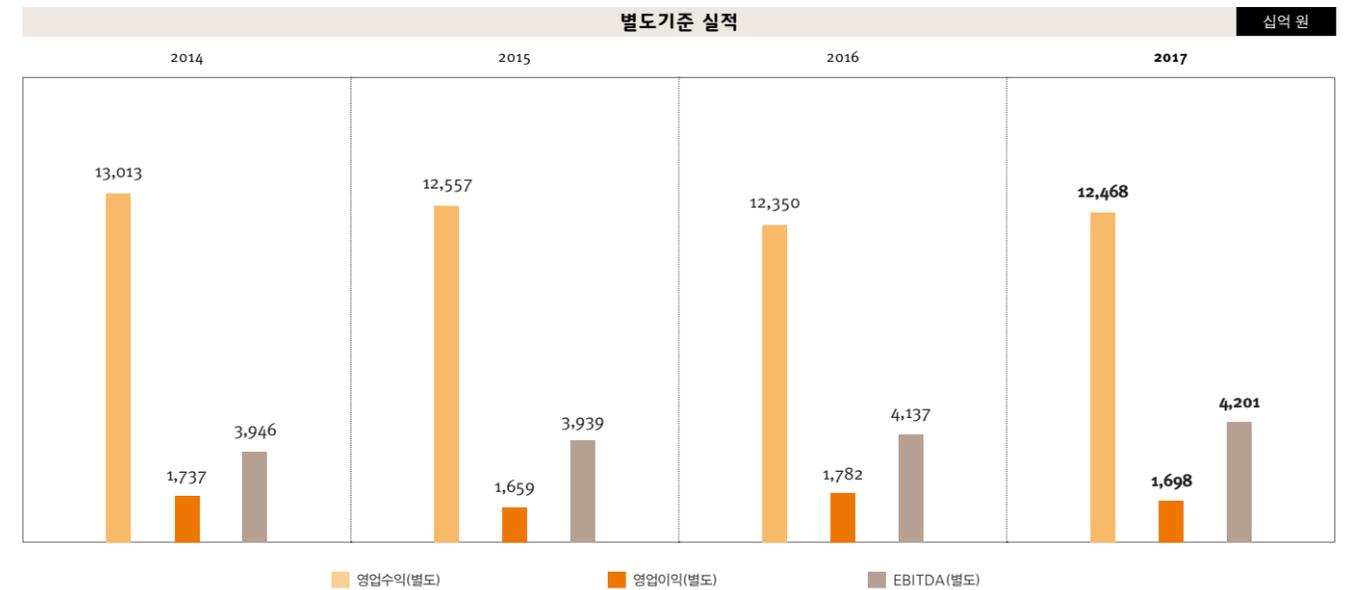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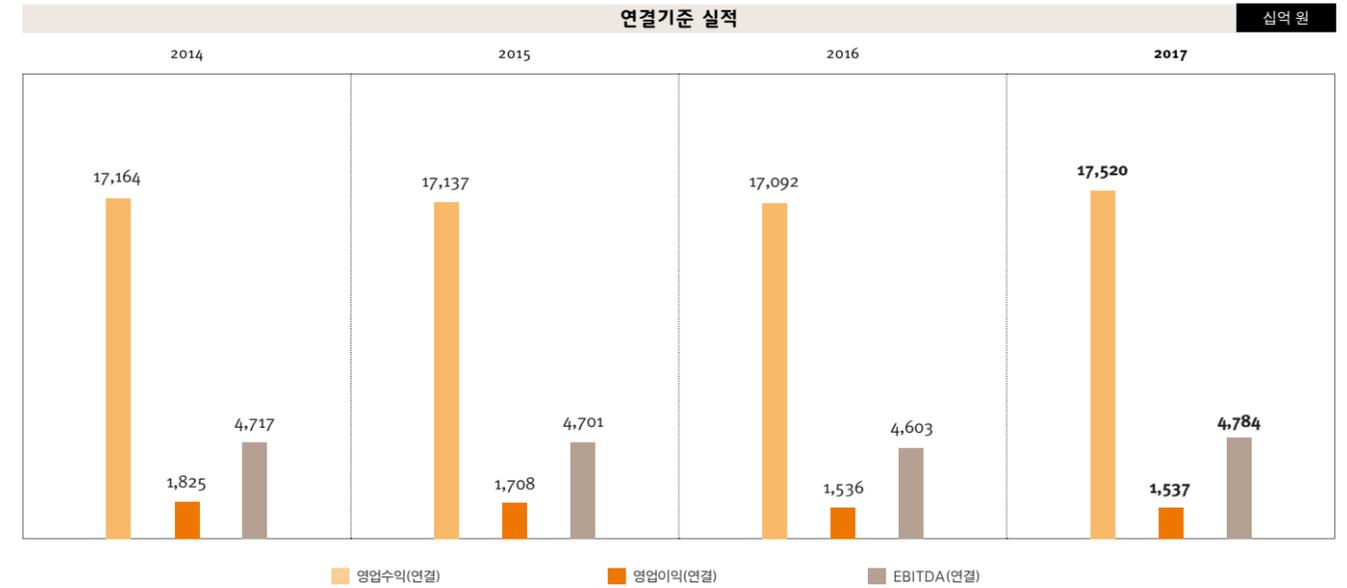
2017년 SK텔레콤은 이동통신(MNO) 사업의 1등 리더십을 공고히하고, 성장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미디어와 IoT/Data, 서비스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New ICT 영역의 성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동통신 부문은 상품·서비스 중심의 경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한 고객가치 향상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여, 시장 내 소모적인 점유율 경쟁을 지양하고 신규 핸드셋(Handset) 수요 발굴 및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선택약정 할인을 상향 등 요금 규제에 인한 수익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고객가치 제고에 집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LTE 가입자 확대 및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말 기준 SK텔레콤 전체 가입자는 3,000만 명을 돌파한 30,195천 명(MVNO 가입자 포함)을 기록하였습니다.

더불어 미디어·IoT/Data·서비스플랫폼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며, 글로벌 New ICT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기가인터넷 및 IPTV 가입자 확대, 유료 콘텐츠 이용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6%의 매출 성장 및 56.4%의 영업이익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별도 실적 중 신규사업분야 매출도 IoT 솔루션 중심 수익 확대로 10.8% 상승했습니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 스피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영역·콘텐츠·이용자를 연속적으로 확대하는 인공지능(AI) 선순환 전략을 이행하여, '누구(NUGU)'의 월간 실 사용자 수(MAU, Monthly Active User)는 2017년 말 기준 211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신성장 사업 영역에서의 가시적인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New ICT 성장 가속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견조한 사업 펀더멘탈 유지 및 신성장 가속화

2017년 SK텔레콤은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간 매출 17조 5,200억 원, 영업이익 1조 5,366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 규모는 국내 통신시장의 성장 한계와 요금인하 규제 등 수익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핸드셋 가입자 확대 노력 및 데이터 사용량 증가 효과로 전년 대비 유사 수준의 이동통신 매출을 실현하였고, 미디어, IoT 사업 영역의 약진으로 전년 대비 2.5% 성장하여 지난 2014년 이후 3년만에 매출 턴어라운드(Turn-around)에 성공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미디어 사업의 성장과 11번가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SK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0.1%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전반적 재무 실적은 요금 인하정책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매출 반등을 실현하고 미디어·IoT/Data·서비스플랫폼 영역의 신규사업 매출 호조에 힘입어, 사업 펀더멘탈의 견조함을 유지함과 함께 새로운 성장력을 가속화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실적의 퀄리티가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계획 및 전망

2018년 SK텔레콤은 5G 경쟁력 확보를 필두로 시장 경쟁의 판을 바꾸고, New ICT 영역에서의 성과 창출을 본격화 해 나갈 것입니다. SK텔레콤은 2018년 연결기준 전년과 동일한 17조 5,000억 원의 영업수익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STRATEGIES FOR 2018

- 1 고객가치 혁신, 신규 사업 성장 가속화를 통해 17조 5,000억 원의 매출 목표 달성 추진
- 2 5G, 인공지능(AI) 등 ICT 핵심기술 및 역량 강화 선도
- 3 미디어 플랫폼 강화 및 홈·자동차 중심 IoT 생태계 주도

이동통신 - 고객가치 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 실현

통신 사업은 고객가치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핵심 비즈니스의 견고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고객 개인에 대한 과학적 이해 기반의 유통망 구축 및 진정성 있는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 리텐션 중심의 경쟁 기초 하에 핸드셋 중심의 가입자 기반을 강화하고, 퀄리티 중심의 비용 효율적 가입자 유치 경쟁 체제를 주도함으로써 지난해의 매출 턴어라운드 성과에 기반하여 질적 성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New ICT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무선 Infra 경쟁력을 강화하고, 5G 경쟁 이니셔티브 확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 - 유·무선 1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도약

미디어 영역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차세대 미디어 사업 주도, 인공지능(AI) 기반의 B tv 진화, 홈 IoT 성장을 추구하여 유·무선 1등 미디어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IPTV는 가입자 증대 및 매출 상승을 넘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사용자 개인 최적화 맞춤 콘텐츠를 제공함과 함께, 콘텐츠 경쟁력 강화, 통합 모바일 플랫폼 옥수수(oksusu) 연계 확대, 인공지능(AI)·음성인식 등 기술 기반의 홈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차별화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OTT(Over The Top) 제휴 확대를 통해 New 미디어 사업의 고객 접점을 확장하고 미디어 사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한편, 기가 인터넷, UHD 방송 등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 비중 확대를 통한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IoT/Data - IoT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주도

IoT 영역은 경쟁력있는 데이터 분석 및 솔루션 역량 확보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IoT 사업 적용 범위의 확장과 데이터 솔루션 사업, 보안 관련 홈서비스 사업의 확장으로 성장을 지속한 것에 이어, 2018년에는 에너지 및 스마트카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주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5G 시대의 도래와 함께 펼쳐질 IoT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당사의 핵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보다 고도화된 기술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개방과 공유의 연결성(Connectivity)에 기반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IoT 생태계를 필요로 하는 사업 영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플랫폼 - 공유 인프라 확대를 통한 인공지능(AI) 리딩 플레이어로의 지위 확보

서비스플랫폼 영역은 인공지능(AI)을 모든 사업의 핵심적 공유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하고 커머스 등 개별 사업을 강화하여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 오퍼링(Offering)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NUGU)를 선보인 것에 이어, 지난해 누구 미니(NUGU mini)를 출시하여 디바이스의 라인업을 확대하였으며, T map 및 스마트 워치 JOON에 누구(NUGU) 서비스를 연동하고, B tv 인공지능(AI) 일체형 셋톱박스를 출시하여, 자동차 생활(Car Life) 및 키즈 영역, 홈 영역까지 고객 경험의 폭을 다양화하고 데이터 축적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음성인식 품질

향상을 토대로 월간 실사용자(MAU, Monthly Active User)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2018년 말까지 누구(NUGU) 월간 실사용자 500만 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Car-Mobile-Home 등 생활 영역으로의 서비스 확장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확대해 나가는 인공지능(AI) 선순환 전략을 시행하여 국내 인공지능(AI) 플랫폼 1위 사업자로의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SK플래닛의 커머스 사업은 전통적인 유통 사업자의 공격적 이커머스 마케팅으로 경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11 번가를 중심으로 매출 성장 및 손익 개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쟁력 있는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 SK ICT Family에 축적된 데이터와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 맞춤형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 경험을 차별화함으로써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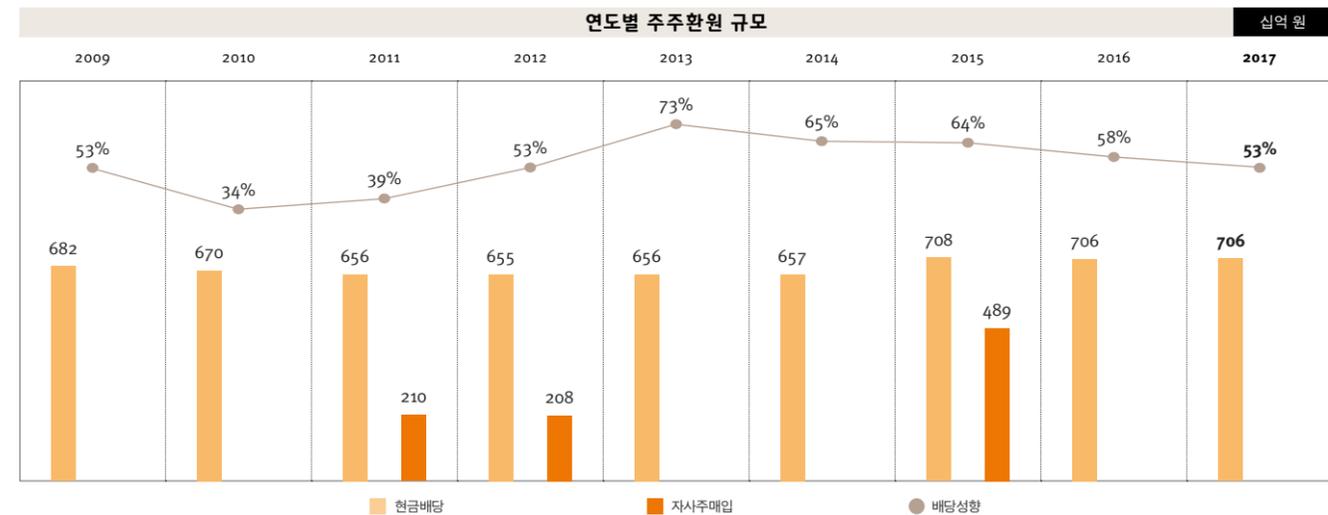
5G 서비스 리더십

SK텔레콤은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고객이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사 5G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꾸려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 규격 기반의 5G 데이터 통신 시연 성공에 이어, 2018년 2월 화성 K-City에서 두 대의 자율주행차가 5G로 대화하며 협력 운행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다시 한번 5G 리더십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AI-IT 가상화(Virtualization) 기술을 통해 하나의 범용 하드웨어 인프라에서 다양한 5G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 효율화를 이끌어갈 5G End-to-End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신뢰성 높은 망 운용 기술과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 양자암호 통신 등 차별적 기술력을 적극 활용함과 함께, 글로벌 리딩 플레이어들과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표준화 과정을 주도해감에 따라 5G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토대로,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시대에 맞는 New ICT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글로벌 New ICT 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 간의 밸런스 유지 및 선순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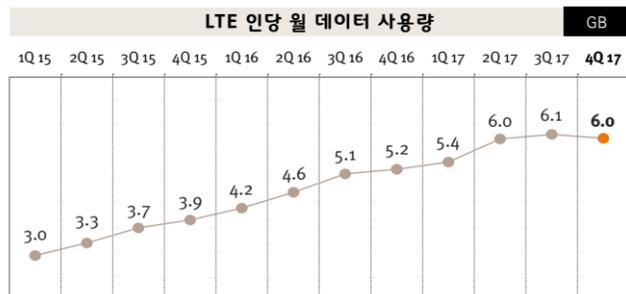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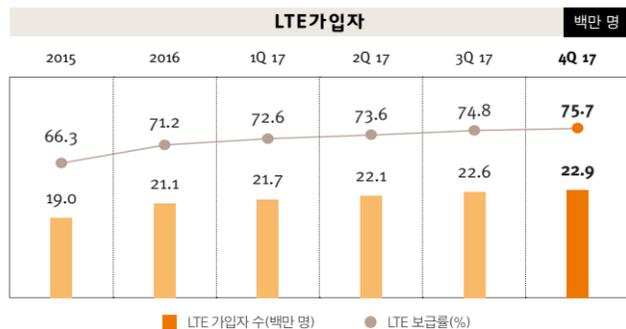
2017년 SK텔레콤은 기업가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주, 투자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2015년부터 총 배당금을 중간 배당금 1,000원을 포함하여 주당 10,000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장기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OPERATIONAL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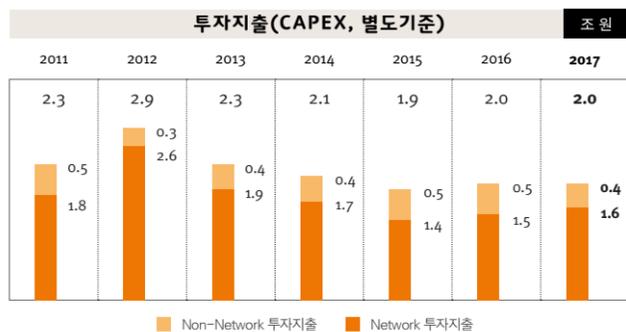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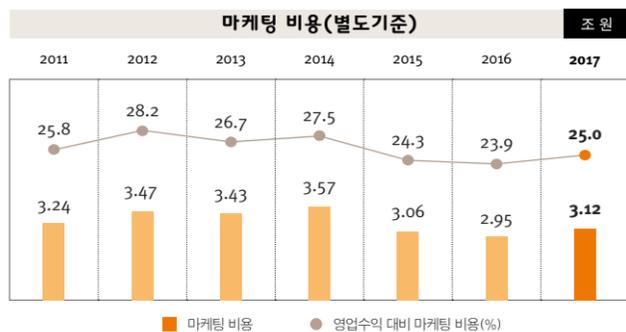
LTE 가입자 및 인당 데이터 사용량

가입자 및 LTE 인당 월 데이터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고객의 니즈와 실제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만큼, 당사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의 세분화된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통해 고객이 체감하는 가치를 높이고 매출을 증대시켜 나갈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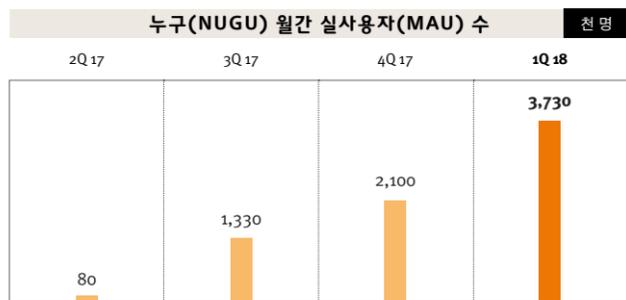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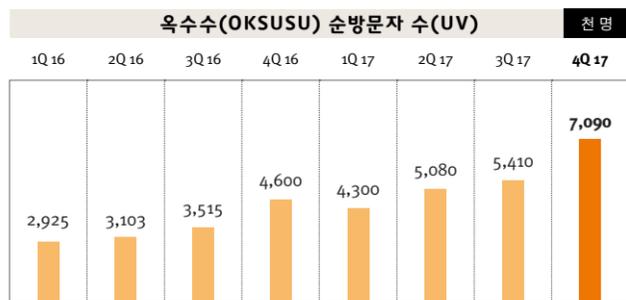
마케팅 비용 및 투자지출

마케팅 비용은 핸드셋 가입자 리텐션 중심의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으나, 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매출 대비 25% 수준으로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지출 또한 2조 원대로 안정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ICT 융복합 서비스 사용자 현황

모바일 IPTV 서비스 옥수수(oksusu)의 순방문자 수는 적극적 마케팅 및 콘텐츠 편성 강화로 2017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54.1% 증가한 709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 누구(NUGU) 또한 지속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여 2018년 1분기 약 373만 명의 월간 실사용자(MAU, Monthly Active Users)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말 500만 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SK브로드밴드 내부 집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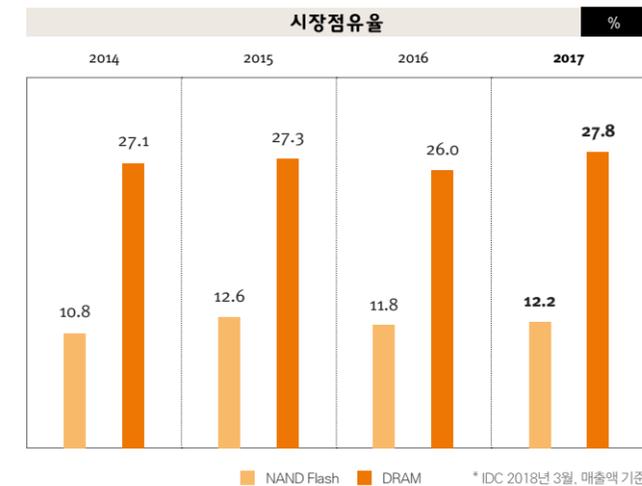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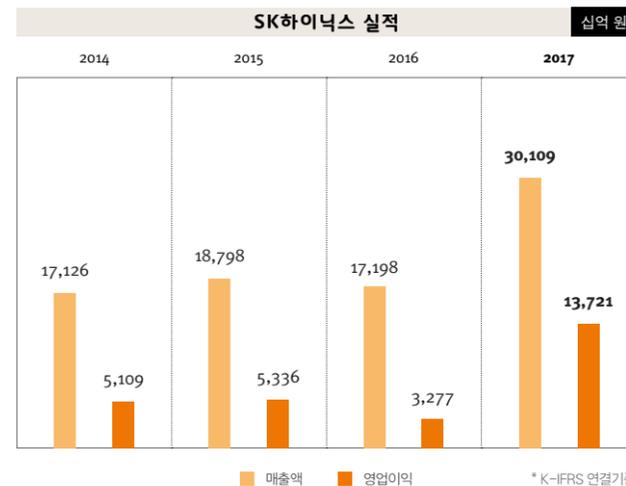
하드웨어-네트워크-콘텐츠 인프라 결집으로
통합 ICT 경쟁력 향상



SK하이닉스는 1984년 국내 최초로 16Kb S램을 시험 생산한 이래, 세계 최초-최소-최고속-최저 전압의 혁신적인 반도체 제품을 시장에 선보여 왔으며, 통신 및 ICT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반도체의 영역과 수요가 점차 확장되는 가운데 모바일과 서버, 스토리지 솔루션의 분야에서 선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변곡점에 들어선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 중심 회사의 선도 입지를 견고히 한 결과, 2017년 사상 최초로 매출액 30조 1,094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매출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영업이익 또한 매출액의 약 46%인 13조 7,21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IT 산업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기술 응용 산업의 다양성 확장과 함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한 기술 및 원가경쟁력 확보를 넘어, 고부가가치의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서도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우수한 메모리 시장 환경 속에서도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선행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메모리 컨트롤러와 펌웨어가 결합된 응용복합제품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근본적인 변화, 딥 체인지(Deep Change)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K-IFRS 연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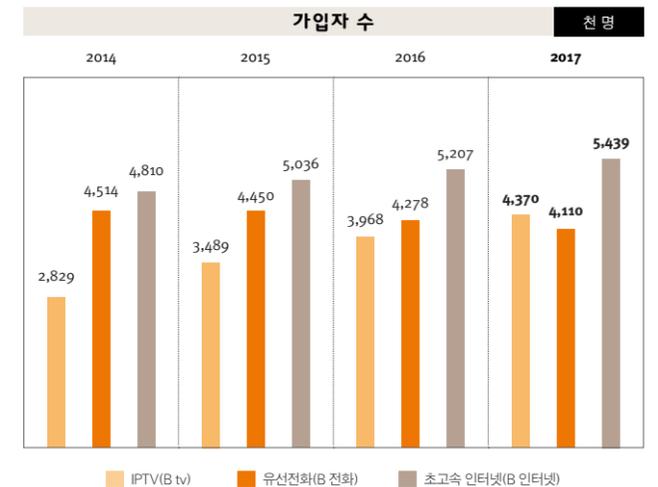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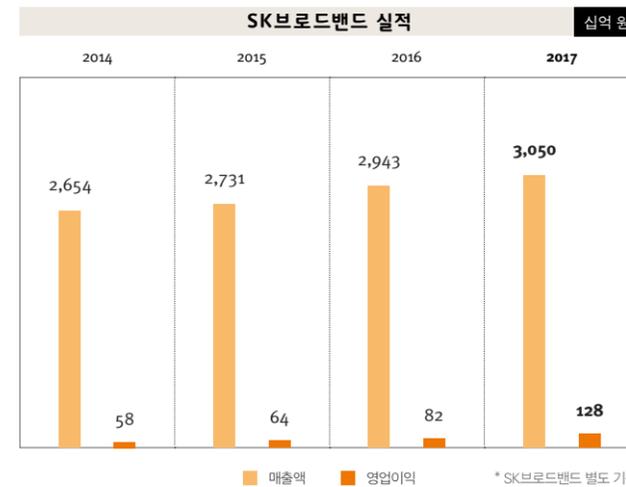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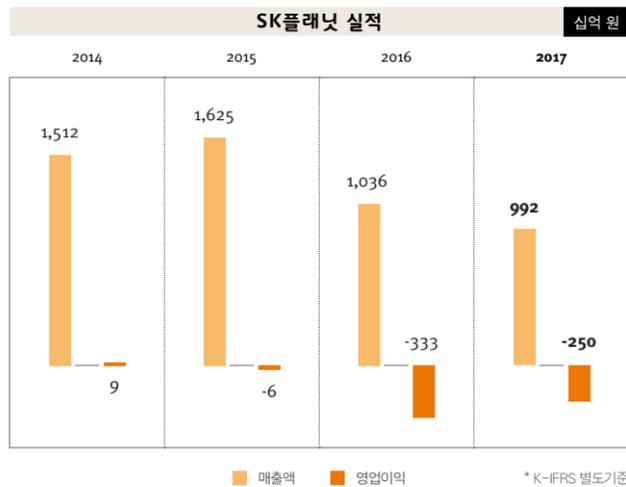
* IDC 2018년 3월, 매출액 기준



SK플레닛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을 연결하고, 모바일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가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로 고객의 삶을 보다 더 즐겁고 편리하게 만드는 통합 & 개인화 커머스(Integrated & Personalized Commerce) 전문기업입니다. 온·오프라인과 모바일을 통합한 커머스 플랫폼으로 새로운 쇼핑 패러다임을 이끌고, OK캐시백, Syrup월렛 등 데이터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 가장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1번가 모바일 거래액의 지속적인 확대 및 마케팅 효율화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의 손실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2017년 매출은 9,916억 원으로 분할 사업 제외 시 전년 대비 약 8.5%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1번가 매출이 약 18.7%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11번가와 OK캐시백 중심의 온라인·모바일 영역에서 리더십을 강화하여 2017년 이커머스 모바일 방문자수(UV) 1위를 달성한 한편, 광고대행 사업인 M&C부문 매각을 통해 커머스 플랫폼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SK ICT Family의 데이터 및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차별적 경쟁력을 지닌 '커머스 & 마케팅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세계 최초 ADSL 서비스, 국내 최초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으로, IPTV 및 모바일 OTT(Over The Top) 등 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국내 정보통신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매출 규모는 IPTV 상위 요금제 가입자 확대와 유료 콘텐츠 소비 증가, 플랫폼 Biz의 성장으로 3조 50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IPTV의 매출이 1조 210억 원으로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매출 상승 및 비용 효율화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1,278억 원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56.4% 증가하였습니다. 가입자는 초고속 인터넷 544만 가입자를 중심으로 411만 명의 유선전화 가입자와 437만 명의 IPTV 가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인공지능(AI) 및 홈 IoT 연계를 통한 미디어 플랫폼 확장,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고객가치의 체감도를 높이고, 질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B tv, 옥수수(oksusu) 등 유·무선 IPTV를 중심으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내외 콘텐츠 제작/유통 파트너와의 제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차세대 미디어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개방과 협력을 통한 성장을 통해 'No.1 유·무선 미디어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 주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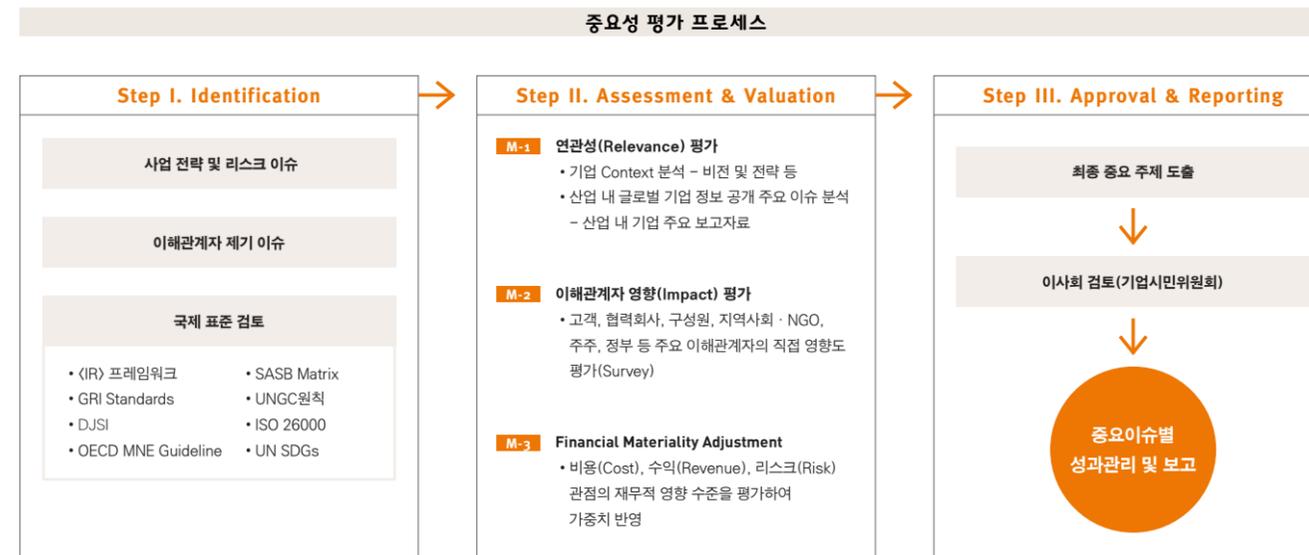
SK텔레콤은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중요 주제를 검토하여 각 주제별 대응과 성과를 매년 공개합니다.

SK텔레콤은 중요 주제를 나타내는 '중요성(Materiality)'을 사업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연관성(Relevance)과 SK텔레콤이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가치 창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Impact)으로 정의합니다. SK텔레콤은 중요 주제를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중요성 평가 및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RI Standards 가이드라인 및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의 <IR>프레임워크에서 권고하는 보고 주제 결정과 내용 구성에 관한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관련된 주제들은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에 따라 주제 풀(Pool)로 관리됩니다. 이는 경제, 환경,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함께 국제기구 및 비영리단체(NGO)에서 제기되는 주제, 글로벌 정치·경제·환경·사회 주제, 글로벌 규제, 중장기 사회 변동 추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외부 효과(Externality) 등을 포함합니다.

SK텔레콤은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의 권고에 따라 특히, 1) SK텔레콤의 가치 창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 2) 전략, 거버넌스, 성과와 연관된 주제, 3) 핵심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 4) 이사회에 경영 의사결정 기반이 되는 주제, 5) 충분히 관리되지 못했을 경우 미래 기회 상실 및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주제의 다섯 가지 측면을 중요성 평가 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중요 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3단계로 구성된 중요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를 수행하였습니다. 첫번째(M-1)는 문서기반 중요성 평가 과정으로, 산업 수준(동종산업 분석) 및 기업 수준(SK텔레콤 전략)에서 연관성(Relevance) 평가를 실시합니다. 두번째(M-2)는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과정으로, 각 주제별로 제기된 이해관계자의 직접 의견을 반영합니다. SK텔레콤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주제별 영향도(Impact)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주제별 영향 수준을 우선 순위로 나타냈습니다. 마지막(M-3)은 재무적 관점의 정성 평가로 비용(Cost), 수익(Revenue), 리스크(Risk)관점에서 주제의 영향도를 평가하여 최종적인 주제 우선 순위에 반영합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7년 총 11개의 중요 보고 주제(Core 2개, Moderate 4개, Relevant 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 SK텔레콤 주제 풀은 7개 영역 26개 주제로 구성됨

Step1 Identification

주제 풀(Pool) 도출

글로벌 정치·경제·환경·사회 이슈, 글로벌 규제, 중장기 사회변동 추이, 국제기구 및 비영리단체(NGO)에서 제기되는 이슈, 사업으로 발생하는 내·외부 효과를 고려하여 주제 풀을 도출합니다.

사업 전략 및 리스크 이슈	이해관계자 제기 이슈	국제 이니셔티브 검토
<p>SK텔레콤의 산업 특성, 가치사슬(Value Chain), 사업 전략을 고려하여 경제, 환경, 사회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ICT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 등 중장기 이슈들이 본 과정을 통해 도출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주제: New ICT 전략, 사회적 가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 품질, 소셜 이노베이션, 기후변화 등 	<p>주요 이해관계자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제기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주제 풀에 포함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채널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pp.77-78 이해관계자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참조하여 주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주제: 5G 리더십, New ICT 전략, 고객가치 제고, 서비스 접근성, 규제 이슈 대응, 동반성장 등 	<p>SK텔레콤이 대외 지지를 천명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Advanced Level 프로그램, 글로벌 사회책임 표준인 ISO 26000,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에 나타난 글로벌 이슈들을 참조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통합보고위원회 통합보고 <IR> 프레임워크 •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 GRI Standards • UNGC COP (Communication On Progress) Advanced Level • 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 ISO 26000 • OECD MNE (Multinational Enterprises) Guidelines

Step2 Assessment & Valuation

M-1. 사업 연관성(Relevance) 평가

각 이슈의 비즈니스 및 지속가능성 측면의 연관성(Relevance)을 파악하기 위해 문서화 된 자료 분석에 근거하였으며, 각 평가 결과에 따라 주제별 연관성 수준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업 CONTEXT 분석	산업 CONTEXT 분석
SK텔레콤은 고객 중심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New ICT leading Company로 도약하기 위한 신규 전략을 2018년 새로이 수립한 바 있습니다. · 조사 내용: New ICT 전략, 이사회 기업시민위원회 보고, 과거 Annual Report 보고 주제, 미디어 분석(*), 투자자 미팅 결과록 분석(**) (*) 미디어 분석(2017.01.01~2018.03.01): 13개 일간지 및 47개 언론사 660건 (**) 투자자 · 애널리스트 주요 이슈 분석(2017.01.04~2017.12.27): 투자자 미팅 자료 357건	각 주제가 글로벌 통신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제인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유 · 무선통신 글로벌 기업들이 어떠한 주제를 높은 우선순위로 보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 통신기업 Annual Report 및 Sustainability Report의 보고 핵심 주제 ·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World 지수 편입 기업 핵심 주제 분석

M-2. 이해관계자 영향(Impact) 평가

각 이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느끼는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주제별 영향(Impact)의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온라인 조사는 SK텔레콤의 6대 이해관계자와 미디어를 포함하여 총 732명의 개인 및 기관 등의 직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온라인 조사는 주요 이슈 선정 및 중요도 파악을 위한 문항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평가, 각 주제별 현 수준 평가로 구성되었습니다. · 조사 기간: 2018.03.08~2018.03.27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응답: 정부, 임직원,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증권사 애널리스트, 지역사회 및 NGO, 미디어, 총 7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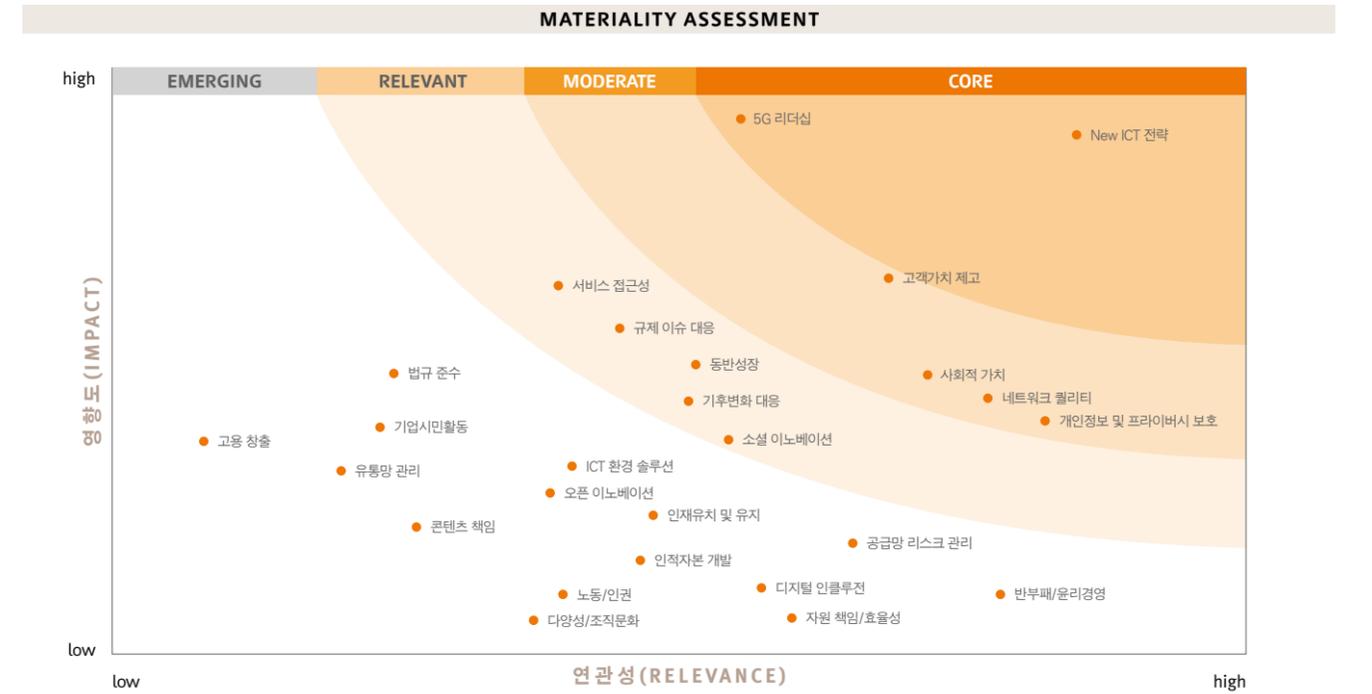
(*) 전체 응답 중 해당 주제를 중요하다고 선택한 비율, 총 26개 주제 풀 중 상위 15개 주제의 결과값임

M-3. Financial Materiality Adjus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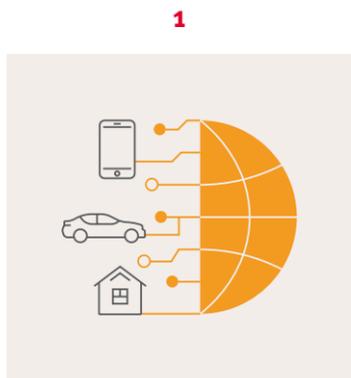
개별 이슈가 SK텔레콤의 단 · 중 · 장기에 걸친 재무적 가치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1) 비용(Cost), 2) 수익(Revenue), 3) 리스크(Risk)의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여 가중치를 반영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각 이슈가 직접적 비용 이외에도 현재 및 미래의 벌금 및 과징금, 규제 컴플라이언스 등의 잠재적 비용과의 연계 가능성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회사의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수익 측면에서는 개별 이슈의 직접적인 수익 창출 연관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 창출 등 수익 창출의 기회 및 잠재적인 경쟁우위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개별 주제가 단기 · 중기 · 장기 관점에서 재무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Step3 Approval & Repor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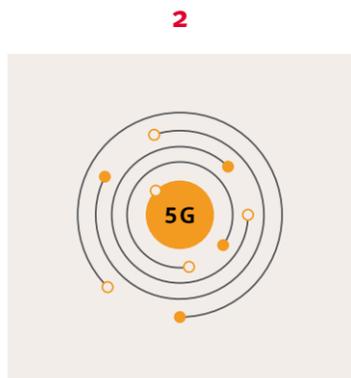
SK텔레콤이 선정한 중요 주제(Core, Moderate, Relevant)는 아래와 같습니다. SK텔레콤은 중요성 평가 결과 New ICT 전략, 5G 리더십 등을 비롯하여 총 11개의 중요 이슈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이슈에 관해 본 보고서 전반에 걸쳐 주요 성과와 목표, 사업 사례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중요 주제에 대해 사업적-사회적 관점의 배경(Context)에 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MATERIAL TOPICS						
Level	Material Topics	GRI Standards Disclosure	Financial Materiality			Page
			Cost	Revenue	Risk	
Core	New ICT 전략(Stratagy)	Non-GRI	○	○	○	pp.49, 51, 55-58
	5G 리더십[5G Leadership]	Non-GRI	○	○	○	pp.49, 51
Moderate	고객가치 제고[Customer Value Creation]	Non-GRI	○	○	○	pp.49, 52, 123-124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Protection]	Customer Privacy		○	○	pp.50, 52, 91, 124
	네트워크 품질[Network Infra/Capacity]	Non-GRI	○	○		pp.50-52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of Telecommunication]	Indirect Economic Impacts	○	○	○	pp.49-50, 63-68
Relevant	서비스 접근성[Access to Service]	Non-GRI	○	○	○	p.121
	규제 이슈 대응[Regulation Reaction]	Non-GRI	○	○	○	pp.81-82
	동반성장[Win-win Growth]	Non-GRI		○	○	pp.93-96
	기후변화 대응[Climate Change]	Energy/Emissions	○	○	○	pp.83-84
	소셜 이노베이션[Social Innovation]	Non-GRI				pp.61-62



New ICT 전략



5G 리더십



고객가치 제고

중요 주제(MATERIAL TOPICS)별 CONTEXT

1 - New ICT 전략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ICT는 사회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능정보기술로서 우리 삶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초연결, 초지능화를 특징으로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는 약 10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경과 영역을 초월한 혁신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넘어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가 합니다. SK텔레콤은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 인프라 기반의 이동통신(MNO), 미디어, IoT/Data, 서비스플랫폼의 4대 사업부 성장 중심의 New ICT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대 사업부 간 핵심 기술 및 인프라 공유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나아가 SK ICT Family(*) 내 협업 체계 강화 및 외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선 개방과 협력을 통해 공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New ICT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 사례(Business Case) 및 성과, 전망 등은 pp.55-58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SK ICT Family: SK텔레콤 및 자회사를 포함한 SK그룹 내 ICT 계열사

2 - 5G 리더십

5G는 오프라인 영역을 무선화 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의 혁신을 통해 기존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지능화된 IoT 및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SK텔레콤은 5G 네트워크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플레이어들과 함께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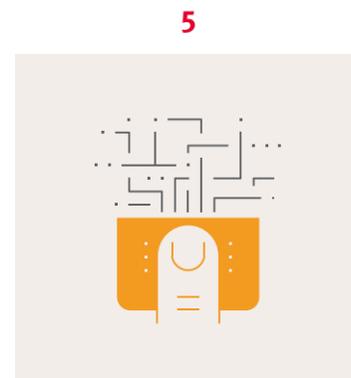
슬라이싱 등 5G 핵심기술의 표준화 과정을 주도한 것에 이어,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 규격 기반의 5G 데이터 통신 시연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확보를 기반으로 5G를 신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모멘텀으로 구현하여, 자율주행 및 보안, 물류 등의 영역에서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통해 고객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등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 5G 네트워크 투자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인 5G 기술을 이끌어 'Perfect 5G'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 사례(Business Case) 및 성과, 전망 등은 pp.59-60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3 - 고객가치 제고

고객은 기업 성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만족을 통해 신뢰를 얻고 고객과 더불어 발전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모든 상품·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고객의 서비스 이용 경험을 반영하는 고객경험관리(CEM)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별 맞춤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제휴를 통해 차별화된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약정위약금, 로밍요금제, 멤버십 등의 영역에서 고객의 불편 사항을 없애는 등 고객의 실질적 체감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SK텔레콤은 국가고객만족도(NCSI) 21년 연속 이동통신 부문 1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8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고객가치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 사례(Business Case) 및 성과, 전망 등은 p.123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 품질



사회적 가치

4 -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휴대전화,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 가이드라인과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위치 기반 정보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 인구 통계학적 정보 등 통신회사가 저장하고 있는 주요 정보들은 제3자를 통해 활용되거나 직접적인 매출과 연관되어 관련 이슈의 중요성과 영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프라이버시를 포함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개인 정보의 활용은 최근 인권 문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전사 인권 정책을 기반으로 인권 실사(Due Diligence) 프로세스를 통해 전 서비스 영역에서 ICT 기술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 사례(Business Case) 및 성과, 전망 등은 pp.89-92, 123-124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5 - 네트워크 품질

데이터 사용 증가로 인해 트래픽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량 콘텐츠가 많이 소비될 5G 시대에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용 및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가장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선정되어 경쟁사 대비 독보적인 우위를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파수 확보를 기반으로 적용한 기술을 통해 전국적으로 차별화된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6일 일시적인 음성·문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끼쳤으며, 네트워크 장애 불편에 대한 고객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에게 더 나은 네트워크

퀄리티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점검하여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 사례(Business Case) 및 성과, 전망 등은 pp.59-60, 122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6 - 사회적 가치

SK텔레콤은 SK그룹 SKMS(SK Management System)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서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미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회 가치 향상의 이행 방안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측정하고 관리하는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을 추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환경 손익 분석을 시행하여 전 가치사슬에 걸친 환경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사회 손익 분석으로 제품·서비스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 성과를 산정하여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으로서의 통합적 성과를 측정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사회와의 공동 성장을 위한 기업의 확장된 역할을 파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소통하며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을 고도화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과를 점검·보완·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 사례(Business Case) 및 성과, 전망 등은 pp.63-68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PROGRESS ON MATERIAL TOPICS

NEW ICT 전략

<p>NEW ICT MEDIA</p>	<p>PROGRESS</p> <p>음성 UX(User Experience)기반 서비스, 데이터 기반 개인화 편성 등 신규 기술 적용을 통한 IPTV 상품력 강화 및 OTT(Over The Top) 성장, 차별적 콘텐츠 확보를 통해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합니다.</p>	<p>B tv + oksusu 가입자수(누적)</p> <table border="1"> <tr><th>Year</th><th>Subscribers</th></tr> <tr><td>2015</td><td>756만 명</td></tr> <tr><td>2016</td><td>1,052만 명</td></tr> <tr><td>2017</td><td>1,295만 명</td></tr> </table>	Year	Subscribers	2015	756만 명	2016	1,052만 명	2017	1,295만 명	<p>LONG-TERM TARG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선 가입자 2,700만 명 달성 (by 2021) 유선 및 미디어 분야 매출 4.5조 원 (by 2021) 		
Year	Subscribers												
2015	756만 명												
2016	1,052만 명												
2017	1,295만 명												
<p>NEW ICT IoT/DATA</p>	<p>PROGRESS</p> <p>가정, 도시 차량 및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솔루션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p>	<p>IoT 매출</p> <table border="1"> <tr><th>Year</th><th>Sales</th></tr> <tr><td>2015</td><td>7,333억 원</td></tr> <tr><td>2016</td><td>7,556억 원</td></tr> <tr><td>2017</td><td>7,817억 원</td></tr> </table>	Year	Sales	2015	7,333억 원	2016	7,556억 원	2017	7,817억 원	<p>LONG-TERM TARG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oT/Data 사업 영역의 다양한 수익원 발굴을 통한 조 단위 매출 사업으로 성장 (by 2022) 		
Year	Sales												
2015	7,333억 원												
2016	7,556억 원												
2017	7,817억 원												
<p>NEW ICT SERVICE PLATFORM</p>	<p>PROGRESS</p> <p>다양한 고객 접점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을 통해 Car - Home - Mobile로 연결되는 인공지능(AI) 사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 신규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p>	<p>누구(NUGU) 월 실사용자 수(MAU)</p> <table border="1"> <tr><th>Period</th><th>MAU</th></tr> <tr><td>2017 2Q</td><td>80천 명</td></tr> <tr><td>2017 3Q</td><td>1,330천 명</td></tr> <tr><td>2017 4Q</td><td>2,100천 명</td></tr> <tr><td>2018 1Q</td><td>3,730천 명</td></tr> </table>	Period	MAU	2017 2Q	80천 명	2017 3Q	1,330천 명	2017 4Q	2,100천 명	2018 1Q	3,730천 명	<p>LONG-TERM TARG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실사용자 수(MAU, Monthly Active Users) 1,000만 달성 (by 2019)
Period	MAU												
2017 2Q	80천 명												
2017 3Q	1,330천 명												
2017 4Q	2,100천 명												
2018 1Q	3,730천 명												

5G & 네트워크 퀄리티

<p>5G LEADERSHIP</p>	<p>PROGRESS</p> <p>5G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자와 제휴·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 효율화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p>	<p>5G TECHNOLOG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rfect 5G' 시험망 구축, 360도 가상현실(VR)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성공 (2017년 9월) 국제 표준 기반 5G 시연 성공 (2017년 12월) 세계 최초 자율주행차 협력 운행 성공 (2018년 2월) 	<p>LONG-TERM TARG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G 서비스 세계 최초 상용화 (by 2019)
-----------------------------	--	--	---

N NEW ON TRACK NEED FOR IMPROVEMENT

<p>NETWORK QUALITY</p>	<p>PROGRESS</p> <p>SK텔레콤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가장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차별화된 네트워크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p>	<p>대형 통신장애 발생 건수</p> <table border="1"> <tr><th>Year</th><th>Outages</th></tr> <tr><td>2015</td><td>1건</td></tr> <tr><td>2016</td><td>0건</td></tr> <tr><td>2017</td><td>0건</td></tr> </table>	Year	Outages	2015	1건	2016	0건	2017	0건	<p>LONG-TERM TARG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 투자 집행 및 운영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형 통신장애 발생 0건 유지 (by 2020)
Year	Outages										
2015	1건										
2016	0건										
2017	0건										
<p>CUSTOMER VALUE CREATION</p>	<p>PROGRESS</p> <p>고객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며 혁신적인 고객 가치를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p>	<p>국가고객만족도(NCSI)</p> <table border="1"> <tr><th>Year</th><th>Rank</th></tr> <tr><td>2015</td><td>1위</td></tr> <tr><td>2016</td><td>1위</td></tr> <tr><td>2017</td><td>1위</td></tr> </table>	Year	Rank	2015	1위	2016	1위	2017	1위	<p>LONG-TERM TARG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통신서비스 부문 국가고객만족도(NCSI) 최장기간 1위 달성(2021년 기준 NCSI 24년 연속 1위)
Year	Rank										
2015	1위										
2016	1위										
2017	1위										
<p>PRIVACY PROTECTION</p>	<p>PROGRESS</p> <p>SK텔레콤은 거래하는 모든 유통사의 정기적 진단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를 강화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	<p>유통망 고객정보 보호 실패 점검(*)</p> <table border="1"> <tr><th>Year</th><th>Score</th></tr> <tr><td>2015</td><td>100%</td></tr> <tr><td>2016</td><td>100%</td></tr> <tr><td>2017</td><td>100%</td></tr> </table> <p>(*) 연도별 점검 기준은 p.91 참고</p>	Year	Score	2015	100%	2016	100%	2017	100%	<p>LONG-TERM TARG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망 정보보호 진단 고도화를 통한 고객 정보 유출 제로화 (by 2022) 유통망 고객정보 보호 실패 점검 100% 유지 (by 2022)
Year	Score										
2015	100%										
2016	100%										
2017	100%										
<p>SOCIAL VALUE OF BUSINESS</p>	<p>PROGRESS</p> <p>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의 대표 기업으로서 사회 가치를 창출 및 측정하고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p>	<p>T map을 통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p> <table border="1"> <tr><th>Year</th><th>Reduction (tCO₂e)</th></tr> <tr><td>2015</td><td>308천</td></tr> <tr><td>2016</td><td>424천</td></tr> <tr><td>2017</td><td>617천</td></tr> </table>	Year	Reduction (tCO ₂ e)	2015	308천	2016	424천	2017	617천	<p>LONG-TERM TARG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 (by 2028) T map을 통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650천 tCO₂e 달성 (by 2020)
Year	Reduction (tCO ₂ e)										
2015	308천										
2016	424천										
2017	617천										

02

SOCIAL VALUE



1 / New ICT Company

ICT 공유·협력 생태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NEW ICT COMPANY

오프라인 세상이 ICT화 되는 5G 시대를 맞아
공유·협력 생태계를 이끄는
‘글로벌 New ICT Company’로 도약하겠습니다.

ISSUE

무엇이 이슈인가?

초저지연 및 초연결성이라는 5G의 특성은 자율주행 및 스마트시티 구현, 공장자동화 개선 등 본격적인 IoT 시대의 개화를 앞당기고, 모든 산업이 ICT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른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전방위적 ICT 생태계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APPROACH

SK텔레콤의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SK텔레콤은 New ICT 리더로서 공유와 협력을 통한 ICT 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나가고자 함. SK텔레콤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데이터 인프라 등 차별적 핵심 역량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이동통신(MNO), 미디어, IoT/Data, 서비스플랫폼 등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공유 인프라 추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2021년 글로벌 New ICT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것임

VALUE CREATION

어떻게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인가?

- 5G : 세계 최초 안전성·안정성을 갖춘 5G 서비스 상용화 (by 2019)
- Media : 유선 및 미디어 분야 매출 4.5조원 (by 2021)
- IoT/Data : IoT/Data 사업 영역의 다양한 수익원 발굴을 통한 조 단위 매출 사업으로 성장 (by 2022)
- 서비스플랫폼 :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NUGU) 월 실사용자 수 (MAU, Monthly Active Users) 1,000만 달성 (by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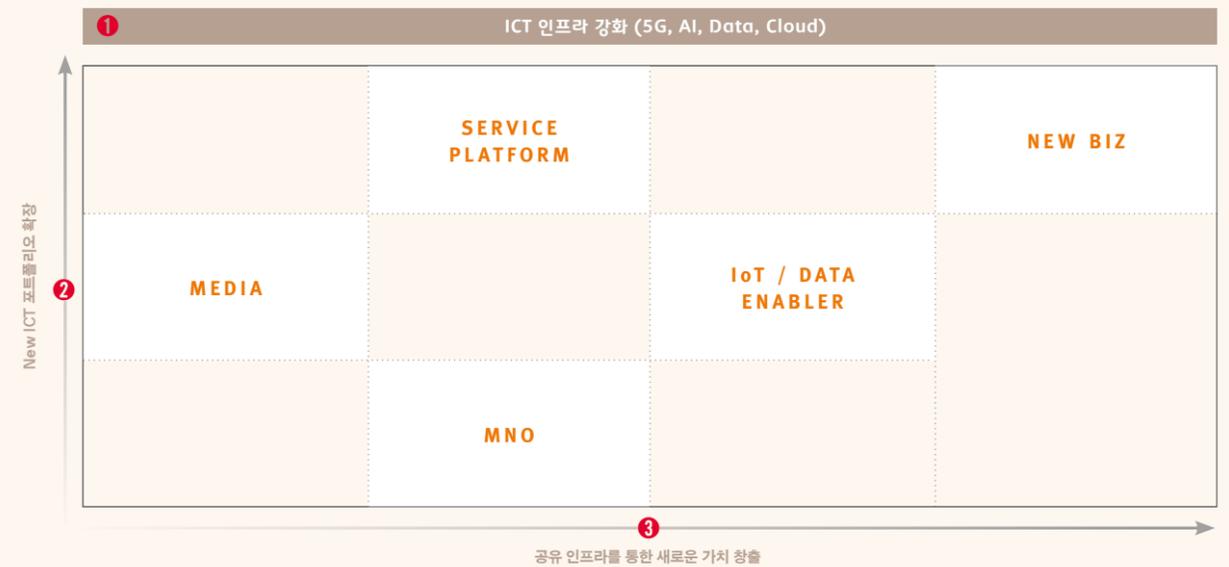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기반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Device)의 확산은 전례 없는 혁신적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5G는 물질세계와 IT세계를 연결하는 인프라로서, 사람의 직관 및 경험을 통해 데이터를 해석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 모든 데이터의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데이터 학습과 행위가 자동화되는 초지능화 사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5G의 특성은 오프라인 세상의 ICT화를 이끌 것이며, SK텔레콤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ICT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뿐만 아니라 전 산업의 사업 모델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SK텔레콤은 5G와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를 포함한 ICT 핵심 기반을 확보하고, 차세대 플랫폼을 선도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는 지능형 인프라로 확장·재정의되며, 인공지능(AI)과 결합한 데이터는 기존의 사물인터넷

(IoT), 미디어, 서비스플랫폼과는 다른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세대교체를 이룰 것입니다. SK텔레콤의 새로운 비전은 이러한 ICT 핵심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New ICT 리더로 자리잡아 혁신과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New ICT란 5G와 인공지능(AI) 등의 혁신 기술이 전 산업 영역에 융합되어, 산업 전반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공유·개방·협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New ICT 리더로의 도약은 ICT 생태계 발전을 선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환경·사회 측면의 통합적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 등 차별적 핵심 역량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미디어, IoT/Data, 서비스플랫폼 등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여 2021년 글로벌 New ICT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SK텔레콤의 NEW ICT 중장기 전략 방향



1	2	3
<p>ICT 인프라 강화</p> <p>“New ICT의 핵심 경쟁 역량으로서의 5G 네트워크 및 인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ICT의 핵심 기반인 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차별적 인프라 경쟁력 구축 • 인프라 경쟁력 선점을 통한 ICT 사업 선도 기반 확보 • 공유 협력 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p>New ICT 포트폴리오 확장</p> <p>“미래 ICT를 선점하는 이동통신(MNO), 미디어 IoT/Data, 서비스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MNO): 데이터 분석 기반의 고객 이해를 통한 근본적 변화와 고객가치 혁신 • 미디어: 차세대 기술 및 차별적 콘텐츠 기반 미디어 서비스 제공 • IoT/Data: 데이터 역량 기반 비즈니스 모델 확보 및 Enabler 사업 추진 • 서비스플랫폼: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통합 오픈링 제공 	<p>공유 인프라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p> <p>“다양한 Player들과의 개방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 인프라 추진을 통한 전 산업 영역의 경쟁력 제고 • SK ICT Family 차원의 공유 인프라 기반 New Biz 발굴 촉진 • 동종 산업 간 상생 Frame 구축 및 이종 산업 간 역량 결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사회 문제 해결

전략 방향 1. ICT 인프라 강화

ICT 인프라 강화는 5G 네트워크 기술 강화 및 인공지능(AI), 데이터 인프라 혁신으로 압축됩니다. SK텔레콤은 인프라 강화를 통해 New ICT 핵심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확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5G 네트워크 상용화 선도를 통해 이동통신(MNO), 미디어 사업을 넘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데이터 트래픽을 제공하고, 사용자 시나리오에 대응 가능한 인프라를 최우선으로 구축하는 한편, 폭증하는 데이터의 효율적 저장-관리-분석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인공지능(AI) 엔진 기술 경쟁력 및 포괄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인공지능(AI) 적용 영역을 확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는 것 또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5G는 모든 사업을 견인할 핵심적인 기반 요소로, 안정성(Stability)과 안전성(Safety)을 갖춘 상용화를 통해 차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G 시대를 맞이하여 주파수 확보, 기술 표준화 등 네트워크 사업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자와의 제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사 차원의 5G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5G 시대에 맞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내부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전략 방향 2. NEW ICT 포트폴리오 확장

SK텔레콤이 추구하는 New ICT 사업의 핵심 방향은 이동통신(MNO), 미디어, IoT/Data, 서비스플랫폼에 이르는 전 사업 영역에서 5G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상호 연계 및 융합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이동통신(MNO) 사업은 고객기반 데이터, 유통망 등을 통해 ICT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핵심 자산을 제공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고객 개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통합 마케팅 컴퍼니로 진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미디어 사업은 차별적 콘텐츠와 혁신적 기술 기반 서비스를 통해 고객 시간 점유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음성인식 서비스, 증강현실(AR) 등 차세대 기술 기반의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OTT(Over The Top) 제휴를 강화하여 서비스 접점을 확장할 것입니다.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편성을 제공하여 고객 체감 가치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IoT/Data 사업은 스마트홈·자동차·에너지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데이터 솔루션 역량을 확보하여,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의 내재화를 기반으로, 초기 단계의 솔루션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기술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개방과 공유기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플랫폼 사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 오퍼링을 통해 사업 간 시너지를 창출함과 함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별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미디어, 플랫폼, 커머스 사업의 핵심인 콘텐츠 역량을 내재화하는 한편, 기존의 전자상거래 및 O2O(Online to Offline)의 고객 접점 데이터 수집 역량과 차세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전략 방향 3. 공유 인프라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SK텔레콤이 쌓아온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데이터, 유통망 등의 인프라는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시장 기회를 실현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ICT 인프라와 경영지원 인프라를 관계회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공유 인프라로 진화 및 발전시켜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나아가 더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고자 합니다.

먼저, SK텔레콤의 이동통신(MNO), 미디어, IoT/Data, 서비스플랫폼 간 공유 인프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정 사업에 편중된 사업 전략의 실행이 아닌, 모든 사업 영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기반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MNO), IPTV, 이커머스 등 고객 접점이 높은 사업 영역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와 지식(Knowledge)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5G 시대를 맞이하는 SK텔레콤의 주요 경쟁력 중 하나인 망 안정성(Stability)과 안전성(Safety)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IoT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등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의 순환적 가치 창출 구조를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SK ICT Family(*)를 통해 관계회사 및 투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SK ICT Family는 SK텔레콤 및 자회사를 포함한 SK그룹 내 ICT 계열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회사 간 핵심 인프라 역량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협력을 통해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계하고 구매 인프라를 통합하여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발전적 형태의 동반성장을 모색할 것입니다.

나아가, 타 기업 및 사회와의 공유 인프라를 추진하여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년간 점유율 확대를 위해 지속되어왔던 이동통신사 간 소모적 경쟁을 탈피하고 상생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이중 산업 간 역량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수익 구조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측정 및 가치화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SK텔레콤이 정의하는 공유 인프라는 단순한 공유를 넘어, 분절된 사고 간의 상관관계를 통찰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SK텔레콤은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New ICT 리더로서, 기존의 가치 창출 패러다임을 넘어 통합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협력 생태계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 SK ICT Family: SK텔레콤 및 자회사를 포함한 SK그룹 내 ICT 계열사

CASE / 5G 시대의 통신 보안 기술, 양자암호통신

SK텔레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5G를 구축하기 위해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양자암호통신이란 불확정성 및 복제 불가 등 양자 현상의 특징을 이용해 통신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할 암호키를 송신자와 수신자에 안전하게 분배하여 광섬유 케이블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는 강력한 보안 기술로, 우리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G는 전세계 430억 개 사물이 무선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통신망 운용의 핵심 경쟁력은 '안전(Safety)'이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을 구현하기 위해, 다량의 데이터가 초고속으로 송수신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 송수신 보안성이 통신망 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2011년 양자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꾸준한 기술 개발 노력을 통해 201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5x5mm)의 양자난수생성기 칩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보다 완벽한 보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2월 양자암호기술 최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양자암호통신 기업 IDQ 인수를 결정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양자암호통신 기술 강화를 통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자키분배 및 양자난수생성 기술이 적용된 칩과 모듈을 IoT 기기, 서버, 모바일 등에 공급하여 New ICT 영역에서 '안전성(Safety)'이라는 차별화된 경쟁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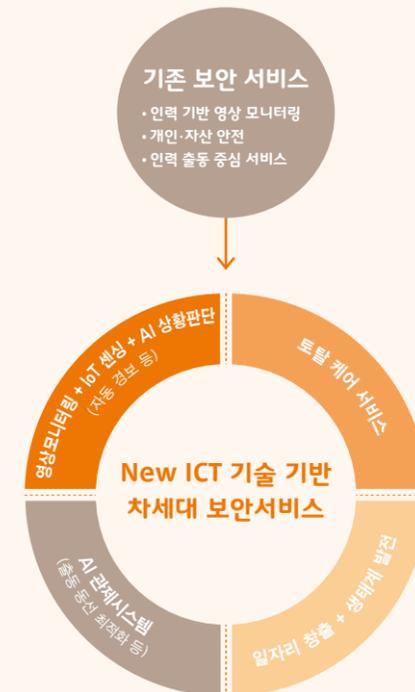


CASE / New ICT 기술 기반 차세대 보안사업 진출

보안 산업은 New ICT 기술을 핵심 경쟁요소로 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 서비스 보급률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가정과 상업 영역을 중심으로 보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안산업은 1인 가구와 고령 인구의 증가, 스타트업 창업 및 무인상점 활성화 등의 트렌드에 맞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진출하는 등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전망되는 분야입니다.

SK텔레콤은 2018년 5월, 국내 57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약 3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2위 물리보안 사업자 'ADT캡스'의 지분 55%와 경영권을 인수하여,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다양한 시너지가 기대되는 보안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SK ICT Family사가 보유한 기술과 고객, 그리고 ADT캡스의 보안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통해 보안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은 ADT캡스 인수를 통해 보안이라는 영역에 양자암호기술을 비롯한 New ICT 기술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동통신·미디어·커머스 사업과의 통합 오퍼링(Offering)으로 시너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사전적 예방으로 보안의 개념을 바꾸고, 단순한 'Security'를 넘어 고객의 사업과 생활의 파트너로서 'Safety & Care'의 영역까지 서비스를 발전시켜 미래 보안 시장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ICT 공유 인프라로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SK텔레콤은 ICT 기반 공유 인프라 혁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ICT 인프라와 기술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ISSUE

무엇이 이슈인가?

ICT 기반 공유 인프라 혁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통신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혁신을 통해 인적,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노력을 나타냄. 이에 따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공유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기술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함

APPROACH

SK텔레콤의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Perfect 5G, 인공지능(AI) 등 New ICT 인프라를 강화하여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갈 수 있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임. 다양한 플레이어들과의 개방과 협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IoT·미디어 등의 영역에서 고객가치를 제고해 나갈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지원 및 공공안전 솔루션을 통한 소셜 이노베이션을 이루는 등 공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해 나갈 것임

VALUE CREATION

어떻게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인가?

- Perfect 5G 구축과 함께 4G LTE의 효율적 활용 포트폴리오를 통한 5G로의 성공적 전환(by 2019)
-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누적 80개 스타트업 지원(by 2020)

1.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한 혁신 기반 확보

Perfect 5G, 네트워크 진화를 넘어 새로운 가치 기반으로 진화

SK텔레콤은 'Perfect 5G'를 지향합니다. 4세대 LTE에서 5세대로의 단순한 네트워크 진화가 아닌, 초연결, 초저지연, 초고속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상화, 지능화 등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5G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5G는 2018년 1월 기준 4세대 LTE 최고 속도 1Gbps대비 약 20배 빠른 20Gbps를 구현할 수 있으며, LTE와의 유기적 연동을 통해 4G와 5G를 오가는 고속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퍼펙트 5G로 다가올 혁신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과 같은 초고용량 실감형 데이터 서비스, 원격 로봇 조정과 같은 초실시간 처리 서비스, 자율주행차와 드론 및 사물인터넷과 같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구현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5G로 대화하는 자율주행 통신환경 구축

SK텔레콤은 5G 네트워크 기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통해 운전자 조작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네트워크 운용 역량을 기반으로 안전성 높은 V2X(Vehicle to Everything)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HD맵 전문 기업인 Here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초정밀 지도 퀄리티를 높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7년 12월 SK텔레콤과 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하여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실험도시인 K-City 주요 실험 구간에 5G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두 대의 자율주행차가 5G 차량통신 기술, 3D HD맵, 딥러닝 기반 주행 기술을 활용한 협력 운행에 성공했습니다.

5G는 차량-차량간 통신, 차량-IoT 관제센터간 통신 등 차량통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SK텔레콤은 K-City가 5G 자율주행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다양한 기업과 연구 기관에 개방하여 산학협력의 공동 연구 메카로 조성하고 가장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Perfect 5G



5G 자율주행



LTE Cat.M1

TANGO, 인공지능(AI) 기반 최상의 네트워크 품질 제공

SK텔레콤은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AI)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인 'TANGO(T Advanced Next Generation Operations Supporting System)'를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ANGO는 지역 및 시간 대별 트래픽 정보 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품질을 자동으로 최적화하고, 네트워크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상태를 분석하고 고객 체감 품질을 수치화해 관리하는 등 지능화된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장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망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2016년 12월 유선망 적용에 이어 2017년 10월 무선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TANGO의 기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T-MANO, 네트워크 구조 혁신의 가상화 환경 구축

SK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가상화 통합관리 플랫폼 'T-MANO(T-Management and Orchestration)'를 활용하여 장비 제조사에 관계 없이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T-MANO는 트래픽 발생량에 따라 지역별로 용량을 할당하는 등 자원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한번에 가능하게 하여 신규 서비스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재해 혹은 대형 이벤트 등의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고효율 IoT 전국망, LTE Cat.M1

SK텔레콤은 5G시대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로라(LoRa)망에 이은 또 하나의 IoT 전국망인 LTE Cat.M1을 상용화하며 고효율 IoT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LTE Cat.M1은 저용량 동영상과 HD급 사진·음성 전송을 가능하게하여, 저전력·저용량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로라(LoRa)망과 함께 완벽한 IoT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대용량 IoT 망 기술인 LTE-M보다 전력 효율이 수십 배 수준으로 높으며 통신 모듈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제조사 IoT 기기 제작 비용과 고객들의 가격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저비용 고효율의 장점은 제조사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어 IoT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2. ICT 인프라 기반 사회적 가치 서비스 제공

‘누구(NUGU) X 고객편의 서비스’의 만남

2016년 9월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누구(NUGU)에 이어 2017년 8월, 아담한 크기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누구 미니(NUGU mini)를 출시하였습니다. 누구 미니(NUGU mini)는 SK텔레콤 자체 고객 설문 결과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인공지능(AI)스피커의 요소로 나타난 ‘이동성’과 ‘경제성’을 반영한 제품입니다. 기존 누구(NUGU)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크기는 절반 이하로, 본체 무게는 약 1/5 수준으로 줄이고 내장 배터리를 탑재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에게 더욱 풍부한 인공지능(AI) 활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 누구(NUGU)를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신사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국민 내비게이션 앱 T map은 2018년 1월 업데이트를 통해 누구(NUGU)를 탑재하여 운전 중 휴대폰 화면 조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고, 운전자의 편의를 향상하였습니다. 이러한 T map 누구(T map x NUGU)는 고객의 큰 호응을 얻어 출시 18일 만에 다운로드 수 30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IPTV에 인공지능(AI)을 일체형으로 결합한 셋톱박스인 B tv 누구(B tv x NUGU)를 출시하여 스마트홈 영역의 확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편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객 및 사회-환경가치 증진을 위한 IoT 서비스

SK텔레콤은 IoT를 통한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B2B 및 B2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출시한 IoT 가축관리 서비스 라이브케어(Live Care)는 소에 바이오 캡슐을 투입해 소의 체온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소의 질병 징후와 수정 적기 예측, 분만 징후 파악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2017년 8월에는 공기 관리 IoT 서비스를 출시하여 학교 내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공기 상태를 파악하고 공기 정화 및 개선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에너지 생산 장비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제어를 제공하는 E2MS(에너지 설비 관리 IoT 서비스)를 출시하여 유지·보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장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가정, 학교 및 사업장 등 다양한 영역과 상황에 맞춤형 IoT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장하여 더 많은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라이브케어



IoT 오픈하우스



공공안전 솔루션

3. 공유 인프라 기반 비즈니스 모델 혁신

ICT와 콘텐츠 융합을 통한 공유 시너지 창출

SK텔레콤은 한류 콘텐츠 대표 사업자인 SM엔터테인먼트와 사업 인프라를 공유하여 인공지능(AI)과 콘텐츠를 결합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갈 것입니다. 양사는 2017년 7월 차세대 콘텐츠 사업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SK텔레콤의 음향기기 제조 자회사인 아이리버는 미디어·음악 관련 기기에 풍부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SM엔터테인먼트는 스타 지적재산권 및 콘텐츠 제작 역량과 팬들의 강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 ICT 및 콘텐츠 융합이 가속화 되며, 파생되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인기가수 목소리로 대화하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개발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등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며, 한류 콘텐츠로 파생된 관광지에 ICT 기술 및 기기를 결합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의 인프라를 공유하며 New ICT생태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하여 모색할 것입니다.

4. 연결을 통한 가치 창출, 소셜 이노베이션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사회 혁신 달성

SK텔레콤은 스타트업과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기 위해 SK서울캠퍼스를 구축하였습니다. SK서울캠퍼스를 통해 SK텔레콤은 가능성 있는 벤처를 발굴하고 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2017년 3월에는 SK서울캠퍼스의 회의실 공간을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 벤처기업들에게까지 개방하여 스타트업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교류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SK텔레콤 전문가의 컨설팅 제공, 각종 인프라 지원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고 ICT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소셜 이노베이션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은 벤처·스타트업에 종합적인 IoT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IoT 오픈하우스를 개소했습니다. IoT 오픈하우스는 개발자 및 스타트업의 상품 개발부터 서비스 상용화까지 종합 솔루션을 지원하고 개발자를 육성하는 Eco-player 역할을 수행하며,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 방식 변화를 목적으로 500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협의체인 TIP(Telco Infra Project)에서는 스타트업 발굴 및 협력을 통한 통신 인프라 생태계 혁신 프로그램인 TEAC(Telco Infra Project Ecosystem Accelerator)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SK텔레콤은 'TEAC 서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7년 9월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하여 시험망과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지원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과 함께 차세대 네트워크 진화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재난 현장 속 ICT

SK텔레콤은 안전과 연결되는 재난, 구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통신이 작동되는 망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공공안전 솔루션을 통해 소방관들에게 바디캠·관제드론·T라이브 캐스터 영상관제 등을 제공하여 재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통신의 음영지역인 바다에서 수중 통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호서대학교와 함께 기지국 기반 수중 통신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인천 남항에서 관련 연구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은 공공안전에 ICT 공유 인프라를 적용해 나감으로써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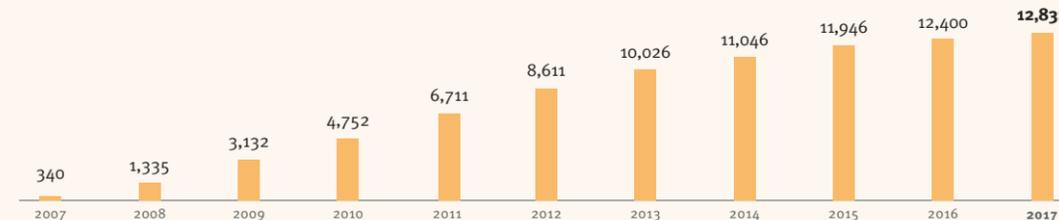
CASE

장노년층 정보격차 해소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평균은 65.1%로, 그 중에서도 특히 장노년층은 가장 낮은 수준인 58.3%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정보 격차의 발생은 사회 계층 갈등 및 소득 격차의 심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로 UN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와 디지털 정보 격차를 개인이나 가족에 귀속되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K텔레콤은 2007년부터 대학생 봉사단을 운영하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폰 활용교육 '세대공감! 행복한 모바일 세상'을 실시해왔으며 최근에는 지역 노인기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 이용, WiFi 사용 등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어르신 스마트폰 배움터인 '마루'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60대 이상 고객 중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2016년 대비 9%증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장노년층 대상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은 정보 및 소통 접근성을 향상하게 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일조할뿐만 아니라 SK텔레콤 비즈니스 모델의 장기적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0대 이상 가입자 중 스마트폰 가입자 비율의 연 평균 증가율(11.2%)이 유지될 경우 2018년 말 60대 이상 고객의 스마트폰 비율은 9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2017년 말 기준 대비 최소 100만 명의 피쳐폰 가입자가 스마트폰 가입자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약 1,274억 원의 연 수익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실적(참가자 수, 누적 기준)



60대 이상 가입자 및 스마트폰 사용 비율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 기반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한 미래 가치 창출

SK텔레콤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을 추구하며, 이를 경영 의사결정 전 과정에 반영하여 사회와 함께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ISSUE

무엇이 이슈인가?

기업은 경제적 발전을 추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해야 함. SK그룹은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을 토대로 성과 측정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음.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성과를 점검-개선-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음

APPROACH

SK텔레콤의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SK텔레콤은 기업의 성공 요인이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 창출에 있음을 기업 철학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성과 분석을 통해 가치 창출을 확대해 나가고자 함. 지난해 최초로 사회-환경 손익분석(SE P&L)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것에 이어 2018년 5월, 2차년도로 보다 고도화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통합 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함.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진함으로써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자 함

VALUE CREATION

어떻게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인가?

-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기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공식화된 방법론 고도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기업으로 도약(by 2028)
- T map을 통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650,000tCO₂e달성(by 2020)

SK텔레콤의 사회적 가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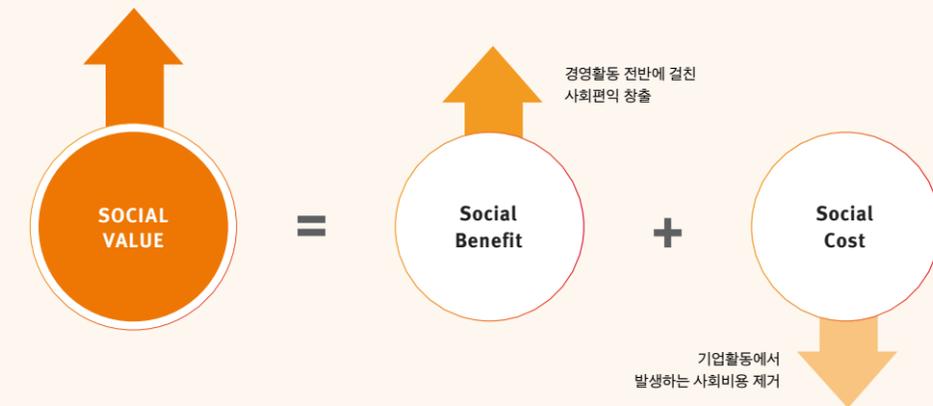
SK텔레콤은 매출, 영업이익 등의 경제적 성과 창출과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측면의 사회 성과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을 경영 의사결정 체계 전반에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만을 측정·관리하는 싱글 바텀라인(Single Bottom Line)에 사회적 가치를 두번째 바텀라인(Bottom Line)으로 설정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사회와 더불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 체계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SK그룹은 경영철학인 SKMS에 '기업은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 추진의 기점으로 삼아 관계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해 최초로 사회-환경 손익분석

(SE P&L)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그룹의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 측정 방법론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사회 성과를 분석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에는 직접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존재합니다. SK텔레콤은 SK그룹의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 측정 방법론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경영 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활동으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영향을 산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가치 측정 방법 또한 일관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전사 차원의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 측정 방법론을 고도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SK텔레콤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 - 사회 성과의 개념



SK그룹·SK텔레콤의 사회 성과 측정 및 보고범위



SK그룹의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은 경제적 가치인 '재무성과'와 사회적 가치인 '비즈니스 사회성과(본원적 사회성과)', '사회공헌 사회성과(부가적 사회성과)', '경제적 사회성과'를 가치 측정 지표로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중 비즈니스 사회성과를 기업이 창출하는 본원적 성과로 설정하여 제품·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업의 핵심 역할로 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본 보고에 경제적 성과로 재무성과(당기순이익)를, 사회적 성과로 비즈니스 사회성과의 사회-환경 손익분석을 진행하여, 통합적 성과를 산출하였습니다.

2018년 5월 현재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은 지속적으로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환경 측면은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 성과 산정 방법론이 완성되지 않아, 2017년 발간된 '2016 SK텔레콤 Annual Report'를 통해 적용된 보고 방법론인 환경 손익 분석(Environmental Profit & Loss)에 따른 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1. 환경 손익 분석

SK텔레콤 환경 손익 분석은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의 환경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단계적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환경 손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치사슬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범위(Scope)설정 및 데이터 수집, 가치 산정, 환경 손익 분석의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범위(Scope) 설정 및 데이터 수집

환경 손익 분석을 위한 가치사슬 상의 범주로 빌딩, 네트워크, 임직원, 단말기(Handset), 서비스 및 솔루션으로 구분하여 원료채취, 생산, 운영·사용, 폐기 등 생애주기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관점에서 환경 데이터를 파악하였습니다. 빌딩 및 네트워크는 원료채취 및 생산, 운영·사용, 폐기 단계 중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운영 단계만을 산정에 포함하였습니다. 추후 생애주기 범위를 원료채취, 구매, 생산, 설치, 폐기 등 전 과정 영향 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환경 손익 분석 범위(Scope) 설정



■ 일부 제품 및 서비스 ● E 에너지 ● CB 온실가스 ● WT 물 ● WS 폐기물
■ 100% 적용

(*) Handset: 환경성적표지 또는 탄소성적표지, CTS인증 등 LCA 인증 제품 기준: 갤럭시 S8, 갤럭시탭 S3, 갤럭시 S7 엣지, 갤럭시 노트7, 갤럭시 S6, 갤럭시 S5,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2,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10.1, 아이폰 X, 아이폰 8, 아이폰 8 Plus, 아이폰 7, 아이폰 7 Plus, 아이폰 6s, 아이폰 6s plus, 아이폰 SE, 아이폰 6, 아이폰 6 plus, 아이폰 5s, 아이폰 4s, 아이폰 4, 아이폰 3Gs, 아이패드 5세대, 아이패드 프로 12.9", 아이패드 프로 9.7", 아이패드 미니4, 아이패드 3, 아이패드 미니2,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2,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4세대, 아이패드 3세대, 아이패드 2

(**) 내비게이션: T map 가입 고객이 최단거리 운행 대비 T map 최적 안내 경로를 통해 운행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 SK텔레콤의 T map 내비게이션을 통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측정 방법론은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부터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았으며, 해당 표준 방법론을 활용하여 T map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하였음

단말기의 경우, 가장 많은 가입자가 이용하는 단말기인 삼성, 애플의 태블릿 및 스마트폰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제조사에서 직접 진행한 전 과정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를 수집 후 이를 전체 가입자 범위로 환산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T map 내비게이션 서비스 사용자에게 최적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공하여 일반 내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최단 경로와 비교하여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는지를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연구를 통해 산정 및 추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가치 산정은 현재에서 T map 내비게이션 플랫폼, EMS 솔루션,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서비스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소 영향 평가에 한정하였습니다.

가치 산정

손익 분석 결과는 금전적 가치로 산출됩니다. SK텔레콤은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총 성과(전체 환경 영향의 총량)'와 '상대적 성과(전기 대비 당기의 환경 영향 감축량)' 중 측정 지표의 부정적인 영향(예, 환경파괴 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대적 성과가 아닌 '총 성과'를 적용하였습니다. 단, T map, EMS(에너지 관리 솔루션), RFID(전자태그) 솔루션 서비스의 경우 클라이언트 및 소비자의 환경 영향 편익을 사회적 성과로 인지하기 위하여 각각 최단거리 대비 감축, 일반 대비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RFID(전자태그)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절감량 등 '상대적 성과'를 적용하였습니다.

제품·서비스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성과

제품·서비스명	제품·서비스 설명	측정 환경성과
EMS	건물·가정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
RFID(전자태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개별 계량 솔루션	전자태그 기반 계량으로 버린 양 만큼 지불	음식물 쓰레기 배출로 인한 오염 감소
T 멤버십 모바일 카드	SKT 고객을 위한 멤버십 제공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오염 감소
T map	내비게이션으로 최적 경로 제공	사회적 탄소배출 저감

한편, 환경 가치 측정을 고도화 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영향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에 따른 시장 가격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잠재적 영향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적 환경 영향을 끼치지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Eco-Cost(*)로 대체하여 산출함으로써 환경 영향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Eco-Cost: EVR(Eco-costs /Value Ratio)모델에 기반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적 부담 측정 척도로, 제품·서비스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및 자원 고갈 등을 지구 환경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2. 사회 손익 분석

사회 부문의 손익 분석은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제시하는 사회 자본 프로토콜(Social Capital Protocol)을 참조하여 대상 범위, 측정 대상 영향을 제한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제품·서비스를 통한 비즈니스 사회 성과

제품·서비스명	제품·서비스 설명	측정 사회성과
행복 GPS	IoT 기반 위치추적 배회감지기	치매노인의 실종 방지
U 안심 알리미	U-안심전용 단말기 기반 어린이 위치정보 지원 서비스	범죄로부터 아동 보호
모바일 클리닉	이동진료 차량 지원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시간 및 비용 절약
손누리, 소리누리	청각·언어장애인(손누리) 및 시각장애인(소리누리) 요금제	취약계층 편의 증대
쿠키즈워치, 쿠키즈폰	긴급호출, 위치추적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용 디바이스	범죄로부터 아동 보호
LBS IoT 사업(전자발찌)	위치 추적 기반 성범죄자 위치 추적	여성대상 범죄 사회적 비용 감소
문자, 음성 스팸차단	스팸전화·스팸메세지 차단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통신사관학교	대리점 직원 선발·전문 판매 교육	소상공인 지원
T map 안전운전	T map 운전 습관 기록 기능	교통사고 저감
누구(NUGU)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 스피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환경 영향 가치 측정결과 (서비스 제외)

Impact Area	Impact	2016		2017		
		값	영향 가치	값	영향 가치	
빌딩	건물 운영	에너지사용	2,938 TJ	(-) 91,273,939,686	3,025 TJ	(-) 93,976,741,848
		온실가스 배출	143,681 tCO ₂ e	(-) 2,717,869,796	148,294 tCO ₂ e	(-) 2,805,129,304
		용수사용	712,910 m ³	(-) 628,572,747	720,000 m ³	(-) 634,824,000
		폐기물배출	1,691 ton	(-) 256,419,858	2,496 ton	(-) 378,488,448
네트워크	네트워크 운영	에너지사용	13,977 TJ	(-) 434,219,147,375	14,886 TJ	(-) 462,458,769,967
		온실가스 배출	678,942 tCO ₂ e	(-) 12,842,866,872	723,135 tCO ₂ e	(-) 13,678,821,660
임직원 서비스	이동 및 출장	에너지사용	78 TJ	(-) 2,423,201,939	72 TJ	(-) 2,236,801,789
		온실가스 배출	4,485 tCO ₂ e	(-) 84,838,260	3,972 tCO ₂ e	(-) 75,134,352
단말기	원료 채취 및 생산	온실가스 배출	667,178 tCO ₂ e	(-) 12,620,333,627	663,430 tCO ₂ e	(-) 12,549,441,513
	사용	온실가스 배출	284,223 tCO ₂ e	(-) 5,376,361,092	349,903 tCO ₂ e	(-) 6,618,766,258
	회수 및 재활용	온실가스 배출	2,469 tCO ₂ e	(-) 195,321,672	18,578 tCO ₂ e	(-) 351,426,001

범위(Scope) 설정 및 데이터 수집

사회 손익 분석은 지난해 중점적으로 산출했던 전통시장 ICT 솔루션 등의 프로그램에 의한 성과를 '사회공헌 사회성과'로 분류하고 본 보고의 가치 측정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보고는 제품·서비스에 의한 비즈니스 사회 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 노인의 실종 방지를 위한 '행복 GPS',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U 안심 알리미', 병원 방문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모바일 클리닉' 등 고객의 안전 및 편의 증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10개 제품·서비스를 포함하였습니다.

가치 산정

10개의 제품·서비스의 가치 측정은 각각 개별적 방법론을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가격 추정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플랫폼인 누구(NUGU)의 경우, 음성명령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회 성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직접 가치 추정법을 통해서 성과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와 누구(NUGU)의 가격 및 성능을 비교하여 누구(NUGU)의 실제 가격을 '보상성과'로 적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직접 가치 추정법을 적용한 케이스는 LBS(위치기반 서비스) IoT 사업(전자발찌) 등으로, 여성대상 범죄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를 측정하였습니다. 위치 기반 전자발찌를 착용함에 따라 줄어드는 재범죄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추적하고, 이에 따른 범죄 피해 비용의 감소 효과를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로 측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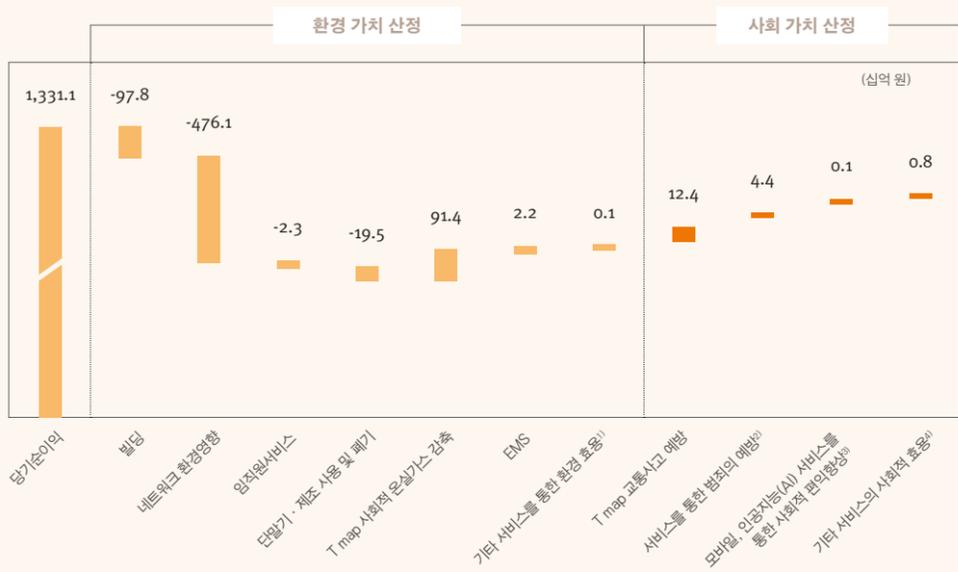
3. 사회-환경 손익 분석 종합결과

환경 손익 분석과 사회 손익 분석을 종합하여 산출한 사회-환경 손익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SK텔레콤은 2017년 기준 1조 3,31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빌딩, 네트워크, 임직원 이동 및 출장, 단말기 제조-사용-폐기 단계의 환경 영향을 국내 기준 환경 총괄원가를 적용하여 측정된 결과 약 5,957억 원의 환경적 손실실을 추정하였습니다. 서비스 고도화 및 네트워크 운영 장비 증가로 인해 환경적 총 손실실은 전년 대비 3.1% 감소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총 손실실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반면 T map 내비게이션을 통한 일반 최단거리 대비 최적 경로 제공, EMS 솔루션,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T 멤버십 모바일 카드 등을 통해 약 937억 원의 환경 비용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행복 GPS, U 안심 알리미 등의 제품 서비스를 통해 약 177억 원의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본 분석은 환경 손익 분석상 가치사슬 중 네트워크 장비의 생산 및 설치 등에 따른 환경 영향이 주요한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사회 손익 분석에 일부 제한된 서비스만을 적용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SK그룹 더블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 산정 방법론의 주요 사회적 성과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통한 본원적 사회성과' 중 거버넌스 항목 및 '사회공헌을 통한 부가적 사회성과' 등의 성과는 외부성(Externality) 이슈, 측정 정밀성 및 계산 방법론 고도화 등의 이슈에 의해 본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은 가치사슬 및 비즈니스 모델 전 과정의 사회 환경 손익 분석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 창출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7 사회-환경 손익 분석 결과(*)



(*) 사회-환경 손익 분석 결과로 표기된 수치는 SK 그룹의 더블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 방법론의 측정요소 중 비즈니스 사회성과의 거버넌스, 사회공헌 사회성과, 경제적 사회성과 측정은 제외함

- 1) 기타 서비스를 통한 환경효율: RFID(전자태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T 멤버십 모바일 카드 포함
- 2) 서비스를 통한 범죄의 예방: U 안심 알리미, 쿠키 위치/쿠키즈폰, LBS IoT 서비스(전자발찌), 문자음성 스피커단시스템 포함
- 3) 모바일,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편익향상: 모바일 클리닉, 누구(NUGU) 포함
- 4) 기타 서비스의 사회적·환경적·효율: 행복 GPS, 손누리/소리누리, 통신사관학교 포함

CASE

SK텔레콤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의 산출 측정

우리나라 인구대비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2010년 100%를 초과한 이래로 국내 이동통신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20%를 넘어섰으며, 이동통신은 우리 생활과 떼어 수 없는 필수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동통신 사업이 성장하면서, 이동통신 사업에 대해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를 측정하기 위한 OECD(2012)¹⁾, MIT(2013) 등의 국제기구 및 학술기관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대한민국 대표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당사의 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잉여를 측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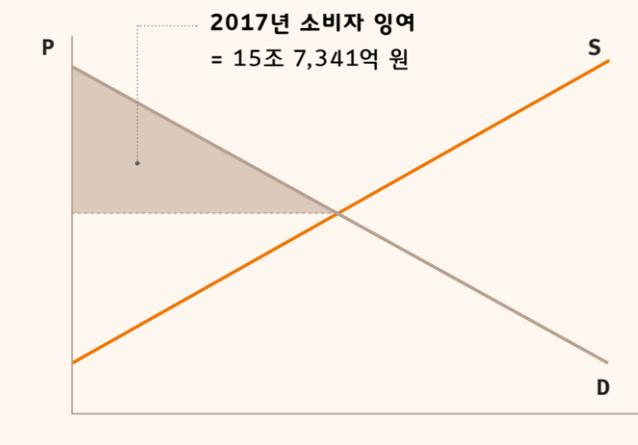
SK텔레콤의 소비자 잉여 측정은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소비자 후생 및 자중손실 분석(박추환·한성수, 2014)'의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이동통신 매출액과 수요가격탄력성(*)을 통해 소비자잉여를 산정하고 있으며, 시간 흐름에 따른 변수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당사의 연결 기준 무선통신 매출액에 국내 통신시장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반영한 후 수요가격탄력성을 적용하여 소비자 잉여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사업으로 발생한 소비자 잉여는 15조 7,341억 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서 실제 가격을 제하였을 때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소비자 잉여의 산출은 고객이 실제로 통신료로 지불한 금액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SK텔레콤이 고객 중심의 혁신을 통해 고객 체감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로 해석됩니다.

SK텔레콤은 대한민국 대표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고품질의 신뢰도 높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효용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가치 혁신을 이동통신 사업영역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고객 실질 체감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철저한 고객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 개인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로열티와 신뢰를 강화하고,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수요가격탄력성: 상품·서비스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요 변화의 비율로, 본 보고의 소비자 잉여 산출에는 이동통신 시장의 장기적 수요가격탄력성을 추정한 연구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소비자 후생 및 자중손실 분석(박추환·한성수, 2014)'를 참조함
 (**)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통계청 통신부문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함

SK텔레콤 이동통신 부문의 소비자 잉여 산출 결과



P : Price
 Q : Quantity
 S : Supply
 D : Demand

참고 자료

- 1) OECD, Publishing, an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Review of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Regulation in Mexico. OECD Publishing (2012)
- 2) Hausman, Jerry A., and Agustín J. Ros. "An econometric assessment of telecommunications prices and consumer surplus in Mexico using panel data." Journal of Regulatory Economics 43:3 (June 2013), pp. 284-304
- 3) 박추환, 한성수.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소비자 후생 및 자중손실 (Deadweight Cost) 분석." 경제연구 32 (2014): pp.115-141

03

ACCOUNT- ABILITY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한 장기 기업 가치 제고

SK텔레콤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효율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수준의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이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안정적 경영활동과 이익 창출을 통한 주주환원의 실현 및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한 성장전략의 구현 등 장기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투명성,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지향합니다.

SK텔레콤의 소유 구조 및 의결권 현황

2017년 12월 SK텔레콤의 주요 주주는 SK(주)로, 전체 지분의 25.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로 국민연금 9.16%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가 전체의 5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자기주식 12.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총 발행주식 수는 80,745,711주이며, 우선주 없이 100% 보통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1주당 1의결권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특정 주식에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10,136,551주는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으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은 70,609,160주(전체 발행 주식의 87.45%)입니다.

SK텔레콤은 주주의 권리행사를 보호하고 정당한 의결권 소액주주 및 외국인 주주 등 모든 주주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며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주주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당사는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따라 배제하지 않으며, 주주 권리보호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2018년 2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임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SK텔레콤은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해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주주 이해관계가 일치하도록 하여, 중장기 성과에 기반한 책임경영 활동을 지향합니다. 2018년 3월 기준 SK텔레콤 박정호 CEO는 자기 계산에 의한 투자를 통해 1,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제33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박정호 CEO에게 3년에 걸쳐 총 66,504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승인하였습니다. 2018년 3월 기준 CEO의 합계 주식보유 규모는 연봉의 18.02배입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정부는 SK텔레콤의 지분(Government Ownership)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립자 지분(Founder & Founding Family Ownership)은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콤 주식 100주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SK(주)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SK(주) 보유 지분은 23.4%이며, SK(주)의 SK텔레콤 보유 지분은 25.22%입니다.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수행

SK텔레콤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기업 경영에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위임 받아,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경영 의사결정을 승인하는 최고 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의 투자계획, 내부거래 등의 이해관계 상충, 투명한 보상 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등과 함께 회사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지배 주주현황		
구분	소유주식 수	소유 비율
SK(주)	20,363,452	25.22%
국민연금	7,392,350	9.16%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42,853,358	53.07%
자기주식	10,136,551	12.55%
합 계	80,745,711	100.0%

2017년 12월 31일 기준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구분	발행주식 수	비율	비고
우선주	-	0%	의결권 없음
보통주 - 의결권 있는 주식	70,609,160	87.45%	의결권 있음
보통주 - 자기주식	10,136,551	12.55%	의결권 없음
합 계	80,745,711	-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임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현황					
	이름	주식	매수선택권	합계(주수)	연봉대비(**)
	CEO	박정호	1,000	66,504	67,504 18.02배 보유
	사내이사	유영상	-	1,358	-
	계열회사 임원	최태원	100	-	100 -
	계열회사 임원	장동현	251	-	251 -

2018년 3월 31일 기준

(*) 등기임원의 지분 보유 현황만 표기

(**) 2017년 최종 주식거래 가능일 종가(267,000원)기준 주식 보유액을 기본급(1,000백만 원)으로 나누어 계산 함. 주식 보유액은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SK텔레콤의 이사회는 회사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12회의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3.06%로 최소참석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현장 제정

SK텔레콤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및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2018년 2월 회사의 지배구조 원칙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기업지배구조 헌장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반으로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균형있는 지배구조의 확립 및 운영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미래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가자 합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헌장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부합하며, 당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 및 효율성

SK텔레콤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 비중은 62.5%로 국내 대기업 평균(50.6%,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여 지배구조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2012년 이후 독립성을 충족하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 기준에 대해 국내 상법,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령에 준하여 이사회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무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계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 겸직을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이사 선출 정책

SK텔레콤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별, 인종·민족, 출신국가·국적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이사 추천 및 선출 과정에서 다양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사 선출 프로세스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SK텔레콤은 여성 사외이사를 신규 선출하여, 총 8명의 이사 중 1명의 여성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정관을 통해, 이사회 구성원은 경제·경영·회계·법률 및 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이를 토대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회사의 발전, 리스크 관리, 주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목표로 하는 이사회 전문성 대비 부족한 부분(Skill Gap)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선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경험이 있는 이사의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함으로써 전문 지식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하여, SK텔레콤 이사진의 전문 역량 균형과 다양성(Skill Balance & Divers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SK텔레콤 이사회 내 산업 전문가는 8명입니다.

이사의 선출 과정은 이러한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 후보를 최종 선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투명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사로 추천된 후보의 선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기준 이사회 멤버의 평균 임기는 2.5년입니다.

SK텔레콤 독립성 및 이해관계 상충 기준

독립성 결격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의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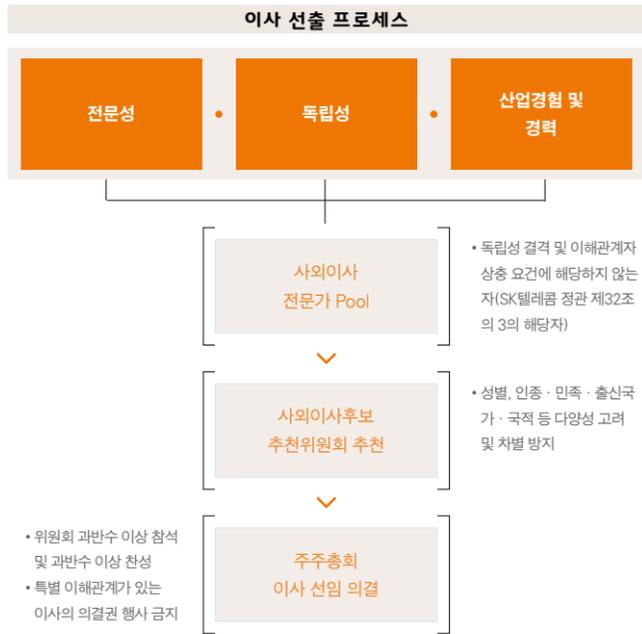
이해관계 상충	
1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및 관련자
2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
3	회사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2대주주인 회사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

이사회 산하 위원회

SK텔레콤은 이사회 책임과 역할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기업시민위원회로 구성된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멤버를 전원 독립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SK텔레콤은 상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권한과 책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독립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 결과의 심의,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 사항, 내부회계 관리자와 외부 감사인이 보고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실태 등을 감사합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책임(2018.03)

위원회명	구성	권한 및 책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운영 등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4명	· 이사 직무집행, 재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및 감사 · 상법에 따른 이사회에 대한 조사,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 일정 규모 이상 계열회사 수의계약 등 특정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등
보상심의위원회	사외이사 3명	· 대표이사의 보상체계 및 보상수준 심의 등
투자심의위원회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 차기 연도 투자계획 심의 및 당해 사업계획 일괄 변경 시 투자계획 심의, 위험 요소 검토 · 주요 투자의 변경(CAPEX의 10% 초과 시) / 분기 또는 반기별 투자 집행 실적 점검
기업시민위원회	사외이사 3명	· 책임경영 5대 분야(고객중심경영, 동반성장, 사회공헌, 투명윤리경영, 환경경영) 추진 방향 설정 및 심의 · 책임경영 추진활동 및 성과 관련 이사회 보고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및 주요 이슈 점검 · 회사의 중장기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종합적 검토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2017)

위원회명	개최일	의안 내역	사외이사 참석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7.2.23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100%		
	2017.4.27	위원장 선임(안)			
감사위원회	2017.2.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2016년 하반기 경영진단/감사 실적 및 2017년 계획, 내부감사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안), 2017년 고객사은품 지급 관련 계약(안), 행복나래(주) 소모성 자재/물품 구매(안)	100%		
	2017.2.22	2016 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2016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 의견 확정(안), 제33기 감사보고서(안)			
	2017.3.23	2017년 광선로 유지보수 용역(안), 전송장비 유지보수 용역(안), SK사회공헌 혁신을 위한 자문 추진(안)			
	2017.4.26	위원장 선임(안), 2017년 외부감사인 감사보수(안), 2017년 외부감사인 용역제공 일괄 승인(안), 2017년 회계감사 계획			
	2017.6.29	2017년 유무선 Network 구축공사(안)			
	2017.7.27	2017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반기 검토, 2017년 상반기 경영진단/감사 실적 및 하반기 계획			
	2017.11.22	2017년 (주)아이리버와의 NU200(NUGU mini) 구매(안)			
	2017.12.14	2018년 교환기 유지보수 용역(안), 전기통신설비 임차거래(안), 매출채권 추심 위임(안), SK플래닛(주) 용역 거래(안), SK테크엑스(주) 상품/용역 거래(안), SK와이빈스(주) 용역 거래(안), 2018년 윈스토어와의 업무제휴 계약(안), 2018년 행복나래(주) 소모성 자재/물품 구매(안)			
	보상심의위원회	2017.4.26		위원장 선임(안)	100%
	투자심의위원회	2017.4.26		위원장 선임(안)	100%
2017.12.14		2018년 투자계획(안)			
기업시민위원회	2017.4.26	위원장 선임(안)	100%		
	2017.7.27	2016 Annual Report(통합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			
	2017.11.22	2017년 CEM 추진 현황, 2017년 윤리경영 실천 추진현황 및 계획, 2017년 동반성장 추진계획 및 주요성과			

회차	개최일	주요 안건	사외이사 참석률
397	2017.1.4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와의 주식교환계약 승인(안)	100%
398	2017.2.2	제33기 재무제표(안), 제33기 영업보고서(안), 2017년 장기차입금 조달 위임(안), SK브로드밴드와의 부동산 전대차 거래(안), IT SM계약 2017년 거래규모 승인(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2016년 4/4분기 사후 보고사항	100%
399	2017.2.23	이사회 규정 개정(안),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100%
400	2017.3.24	대표이사 선임(안), 이사회 의장 선임(안), 위원회 위원 선임(안), 2017년 2/4분기 SK(주) 거래(안), 이사회 규정 개정(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회사채 관련 거래(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자금운용 거래(안)	100%
401	2017.4.27	2017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2017년 SUPEX 추구협의회 운영비용 지급(안), 2017년 1/4분기 이후 보고사항	100%
402	2017.6.30	2017년 3/4분기 SK(주) 거래(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회사채 관련 거래(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자금운용 거래(안), 행복나래(주) 지분 매수(안), Public Cloud 사업 양도(안), 2017년 한국고등교육재단 기부금 출연(안), 공동 R&D 추진 관련 관계사 간 비용정산(안)	75%
403	2017.7.17	(주)아이리버 유상증자 참여(안)	75%
404	2017.7.28	SK China 출자(안), SK하이닉스(주)에 대한 SSD 기술 이전(안), 감사위원회 규정 개선(안), 중간배당(안), 2017년 상반기 결산 보고, 2017년 2/4분기 사후 보고사항	100%
405	2017.9.28	2017년 4/4분기 SK(주) 거래(안), 인도 Bharti Airtel사 AI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을 위한 (주)SK와의 하도급 계약(안), 에스케이텔레콤(주)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안), 2017년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공사 변경(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회사채 관련 거래(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자금운용 거래(안)	75%
406	2017.10.26	2017년 공공실버주택 사업을 위한 기부금 출연(안), SK텔레콤-현대자동차-한화그룹 AI/자율주행 공동펀드 조성 계획, 2017년 3/4분기 사후 보고사항	100%
407	2017.11.9	에스케이텔레콤(주)와의 주식교환계약 승인(안)	100%
408	2017.12.15	2018년 경영계획(안), 2018년 1/4분기 SK(주) 거래(안), 2017년 SUPEX 추구협의회 운영비용 지급 변경(안), 2018년 SK인포섹(주) 거래(안), 2018년 유무선 Infra 구축공사(안), 2018년 SK브로드밴드와의 유선상품 재판매(안),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 승인(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회사채 관련 거래(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자금운용 거래(안), 2018년 업무용 항공기 공동관리 계약(안), 2017년 고려대 SK미래관 건립 지원을 위한 기부금 출연(안), 2018년 고객점점체널 운영 용역(안), 2018년 기지국 유지보수 용역(안), IDQ 인수를 통한 양자암호 사업 추진 계획, 준법점검 및 유효성 평가 결과, 2018년 PS&M 고객단말채권 매입(안), SK브랜드 사용계약 연장(안)	100%

성과 평가 및 보수 지급

SK텔레콤은 이사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임기 만료 후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연간 성과 평가는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회사의 사업 및 기술 관련 전문성, 기여도,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 수행 여부 등의 측면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성과 평가 결과는 임기 만료 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재선임 추천 시 근거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수행 직무의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수행 직무에 대한 성과 평가에는 3대 주요 고객만족도 조사, 지속가능성 평가 성과 등 외부 인지 지표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솔루션 매출, 사회기여 솔루션 사업 매출 등의 환경·사회적 지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보수 산정 시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경제적 부가가치(EVA)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성과에 대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략과제 달성도, 전문성 및 기타 회사 경영성과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기준 연봉의 20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CEO를 포함한 경영진 및 이사 보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5억 원 이상 지급된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 현황을 사업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주주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중장기적 성과에 따라 책임 있는 방식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장기적 성과를 고려한 책임경영 강화와 경영진-주주 간의 이해관계 일치를 통한 장기적·궁극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7년 3월 CEO에게 66,504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2018년 3월 3인의 임원에게 총 5,707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CEO 보상에 반영하는 성과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가득 기간(Vesting Period)을 최대 4년으로 설정하여 보다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직책	부여주식수(*)	부여일	행사기간
박정호	CEO	22,168주	2017.03	2019년 3월 ~ 2022년 3월
		22,168주	2017.03	2020년 3월 ~ 2023년 3월
		22,168주	2017.03	2021년 3월 ~ 2024년 3월
서성원	MNO사업부장	2,755주	2018.03	2020년 3월 ~ 2023년 3월
이상호	서비스플랫폼사업부장	1,594주	2018.03	
유영상	Corporate센터장	1,358주	2018.03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었으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재직하지 않거나, 세부 행사 기간 개시일 전 재직하지 않거나 미보임하는 경우 자동 소멸됨

CEO-직원 보수 비율		
총 CEO 보수(백만 원)	직원 보수 평균값(백만 원)	비율(*)
781	106	7.4

(*) 총 CEO 보수를 직원 보수 평균값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 총 CEO 보수는 2017년 3월 CEO를 신규 선임하여 2017년 3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실 보수를 기준으로 함

이사 보수 지급 현황			
	인원 수	지급총액(백만 원)	인당 평균보수액(백만 원)
등기이사(*)	3	1,847	616
사외이사(**)	1	83	8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3	180	60

(*) 등기이사는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함

(**)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이사/임원 개인별 보수 지급 현황(*)		
이름	지급총액(백만 원)	결과
		<p>[근로소득 - 상여] 1) 산정기준 2017년 초에 지급한 2016년 연간 성과에 대한 경영성과급으로 Target Incentive와 Profit Sharing으로 구성됨. 대표이사의 성과보수 지급은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략 과제달성도, 전문성 및 기타 회사 경영성과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연봉의 0% ~ 200% 범위 내에서 지급</p> <p>2) 산정근거 - 2016년 매출액 17조 918억 원, 영업이익 1조 5,357억 원(연결기준) 등 계량지표 측면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였으며, 2016년 NCSI 19년 연속 1위, KS-SQI 및 KCSI 등 국내 3대 고객만족도 평가 최장 기간 연속 1위 달성, 고객 관점의 특화 요금제 출시, 중저가 단말기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견고한 실적을 유지함으로써 업계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였음.</p> <p>- 아울러 개방형 플랫폼 전략을 기반으로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T map과 통화 플랫폼인 T전화 등을 통해 플랫폼 영역에서도 시장의 인정을 받았으며, 모바일 영상 서비스인 '옥수수(oksusu)'출시, 최초의 한국어 음성인식 인공지능 디바이스인 '누구(NUGU)' 출시를 통해 AI 대중화 시대를 선도하는 등 신규 사업영역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기업가치 창출 기반을 공고히 한 점을 고려하여 경영성과급 1,066백만 원을 지급하였음.</p>
장동현 (사내이사)	1,066 (**)	<p>[퇴직소득 및 기타소득은 해당사항 없음]</p>
		<p>[근로소득 - 급여] 772백만 원 산정기준 - 급여: 이사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2017년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직책(대표이사), 직위(사장), 리더십,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급을 총 1,000백만 원으로 책정하고, 1/12인 83.3백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총 급여액은 대표이사 선임일인 2017. 3. 24일부터 2017. 12. 31일까지 지급된 급여임</p> <p>[근로소득 - 기타] 9백만 원 학자금 및 의료비 지급</p> <p>[퇴직소득 및 기타소득은 해당사항 없음]</p>
박정호 (CEO)	781	

(*) 2017년 지급 보수 5억 원 이상 이사/임원 기준, 퇴직한 이사/임원을 포함하여 기재

(**) 최고 보수 수령자(장동현 사내이사)의 보수는 전년대비 19.9% 감소하였으며, 직원 보수 평균은 3.9%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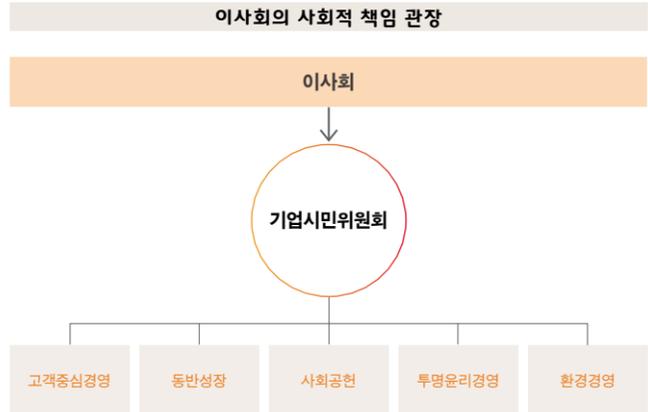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및 이해관계자 참여

기업시민위원회

SK텔레콤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5월 이사회 산하 책임경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시민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를 핵심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행하는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위원회는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고 책임경영 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기준, 기업시민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하게는 고객중심경영, 동반성장, 사회가치 혁신 및 사회공헌, 투명윤리경영, 환경경영 등 지속가능경영 5대 분야에 대한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가능경영 활동 자문, 주요 이슈 및 성과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시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 등 기업시민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이사회의 지속가능경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3년부터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재무-비재무 성과의 종합적 가치와 미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통합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SK텔레콤 연차 보고서는 매년 중요성 평가 과정, 중요 이슈 등에 대한 이사회 기업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SK텔레콤은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경제의 발전 및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SK그룹은 2016년 10월 그룹 경영관리체계인 SKMS를 개정하며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최우선 경영철학으로 삼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관련 내용을 2017년 3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회사의 정관에 반영한 것에 이어, 2018년 2월 제정한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는 이해관계자를 고객, 협력회사, 구성원, 지역사회·NGO, 주주, 정부 등 6대 이해관계자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소통에 기반한 경영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SK텔레콤의 Commitment를 대·내외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해 나가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의 이해관계자 참여정책은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SK텔레콤의 모든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을 정의하는 한편 SK텔레콤 사내 관련 조직에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전사적 관점의 지침과 이해관계자 이슈 해결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본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을 해외 법인을 포함한 SK텔레콤의 모든 경영활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이해관계자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에 따라 개별 부서에서 관리 및 처리하도록 담당 조직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제로 운영되며,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접수된 의견과 조치 사항은 영향도가 크거나 중요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이사회 산하 기업시민위원회에 보고됩니다.

CSR 고충 및 불만 접수

SK텔레콤은 기업 홈페이지 내에 노동·인권·환경·윤리 등 이해관계자 CSR 고충·불만을 통합 수렴하는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거나, 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사례 및 피해 사례에 대한 고충 및 불만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이슈를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CSR 고충 채널을 통해 접수된 의견과 고충 내용은 사실 여부 확인 후, SK텔레콤 실무부서의 모니터링, 실사 등을 통해 적극 해결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CSR 이슈와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판단·조치된 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처리 과정을 이사회 산하 기업시민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며, 경영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GOVERNMENT 정부

- 정부 주관 정책 간담회 · 토론회 참여 등을 통한 정책 제안
- 민-관 프로젝트 참여
- 정부 유관기관 주요이슈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CUSTOMERS 고객

- 온·오프라인 고객센터, T World 등 VoC 채널
- 대리점/지점 등 유통망 고객 접점
- CRM 설문조사
- 고객만족도 조사
- SK텔레콤 홈페이지
- 블로그 · 페이스북 등 SNS 채널
- 고객 자문위원단
- 연중 간담회 및 이벤트 실시

BUSINESS PARTNERS 협력회사

- VoP 접수 채널
- 협력회사 포털(Open2U)
- 상생협의회
- Partner's Day
- One-on-One 미팅
- 상생혁신센터 홈페이지
- 동반성장만족도 조사
- T open lab, 상생혁신센터



SHAREHOLDERS 주주

- 투자자 미팅(컨퍼런스, NDR, One-on-One/Group 미팅)
- 사업현황 세미나
- 투자자 대상 정보 공개(홈페이지)
- 공시(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SEC, LSE 등)
- 주주총회

LOCAL COMMUNITIES 지역사회

- NGO의 반기별 간담회
-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 온라인 기부 플랫폼
- 지역주민협의회(지역사회 개발 참여)
- 사회공헌 프로그램
- CSV(Creating Social Value) 자문위원회

EMPLOYEES 구성원

- 노동조합(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사협의회
- Letter to HR(사내 인트라넷)
- 사보, 사내 방송

CSR 고충·불만 채널 운영

인권·노동·사회·환경·정보보호 이슈 관련 고충 및 불만 접수 프로세스



전사적 체계에 기반한 통합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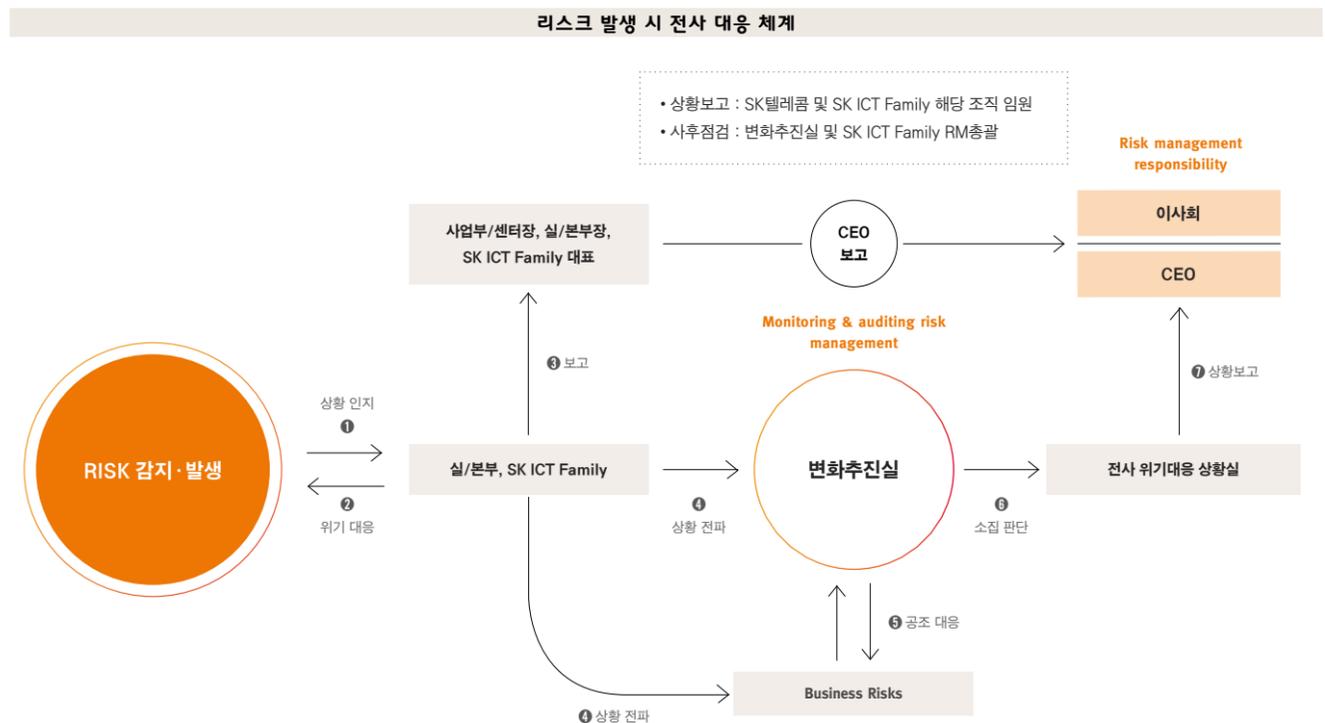
SK텔레콤 이사회는 전사적 리스크 프로필과 리스크별 한도 수준을 정의하고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 이슈별 경영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사안별 잠재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즉, 전략 리스크, 재무 리스크, 투자 리스크,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운영 리스크, 조세 리스크, 명성 리스크 등을 비롯하여 회사가 처할 수 있는 리스크 전반에 대하여 회사의 노출 허용범위, 대응전략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전사적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은 CEO 직속 변화추진실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변화추진실은 리스크 프로필의 관리, 주요 리스크에 대한 담당 부서 매핑, 리스크별 대응 방안을 정의하고,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의된 리스크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 리스크 인지와 전파, 대응 실행을 총괄합니다. 변화추진실은 긴급 리스크 발생시 CEO에 보고하고, 리스크 관련 Corporate Center장이 주관하는 전사 위기대응 상황실을 소집할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지하며 UNGC(LEAD)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등 예측 불가능하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범위

SK텔레콤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범위는 전략 리스크, 재무 리스크(시장, 금리, 조세, 환율), 규제 리스크 등 리스크 부문과 대형 고객불만, 고객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업 운영 리스크, 불공정거래, 금품 및 향응 등 회사의 평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성(사회책임) 리스크 등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포괄합니다.



* SK ICT Family: SK텔레콤 및 자회사를 포함한 SK그룹 내 ICT 계열사

위기 대응 프로세스

SK텔레콤은 2014년부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사 위기대응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전사 위기대응상황실은 특정 상황에 대한 언론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 보도가 급증하거나, 동일 유형의 고객 불만(VoC)이 단기간 내 급격히 증가한 경우 등과 같이 사내 여러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발생하여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집됩니다. 이러한 전사적 위기 상황은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장애 발생, 고객정보 유출,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와 관련한 수사 및 관련 언론보도 등을 포함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체계 고도화

SK텔레콤은 사업부·센터별 자율 리스크에 대응 체계를 정립하여 각 사업 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리스크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잠재 리스크에 대한 사업부·센터 선형 점검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특히, 그 영향도가 커지고 있는 정보 보안 사고 리스크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보안정책 준수 수준을 점검하는 한편 물리적·기술적 취약점 진단 및 제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메뉴얼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SK ICT Family(*)의 리스크 관리 체계 지원

SK텔레콤은 SK ICT Family를 포함한 전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리스크별 회사 간 명확한 상황 전파 기준을 두고,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시 SK ICT Family 간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기적인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다 유기적인 협력 체계 속에서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SK ICT Family가 함께 참여하는 전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잠재 리스크를 발굴할 수 있도록 SK ICT Family 참여 리스크 매니지먼트 회의를 정례화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 체계 운영을 통한 사업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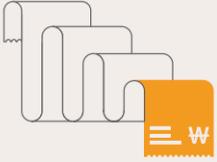
(*) SK ICT Family: SK텔레콤 및 자회사를 포함한 SK그룹 내 ICT 계열사

리스크 관리 영역 및 요소	
Business Ris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 - 고객 니즈 및 수요 예측, 사업 의사결정, 기술 및 산업 환경의 변화 등 규제 리스크 - 통신·미디어·플랫폼 등 ICT 산업 관련 규제 및 정책의 변화
Employ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비리 - 기업정보 유출,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 부당이익/사용, 공공회령, 검직/검업 금지 위반 등 성윤리 위반 - 성희롱, 성차별 등
Customer Val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집단) 행동 대형 고객 불만 - 서비스 장애, 전산 오류 등 불공정 거래 - 친인척/차명회사 거래, 부당거래, 특정사 특혜 및 하자 뺑주기 등
Business Part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품 및 향응 제공/수수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보호위반 - 비즈니스 파트너 영업비밀 외부 유출, 사업정보 부당 사용 등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 위반 - 불법보조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담합 등
Relation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접대 행위 - 뇌물/향응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 - 환율, 금리변동, 유동성, 신용, 자산, 부채 관리 운영 프로세스 - 조직 설계의 적절성, 잘못된 프로세스 수행 구성원 간 갈등 - 구성원/리더/회사 간 갈등 구성원 사건/사고 - 부주의 사망·중상 사고, 업무상 사고, 사회적 물의(폭행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한 회사 손실 - 수익기회 상실, 자산관리 소홀 등 고객정보 유출 - 가입자 인적사항 유출, 단말정보 및 통화내역 유출 등 언론보도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부정 여론 확산 협력사와의 갈등 - 폭력, 성희롱,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분쟁 등 비즈니스 파트너의 불법 행위 - 대리점/판매점 고객 사기 등 회계부정 -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공시위반 등 국가 기관의 조사/수색 - 법규 위반, 회사 영업 정책 조사 등에 대한 수색/조사

RISKS & OPPORTUNITIES

Long-term Risks & Opportunities

경쟁환경에서 중대한 영향 요소가 있는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리스크를 인지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미래 리스크를 고려하는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경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RISK & OPPORTUNITIES	CONTEXT	STATUS
 <p>이동통신시장 부문 성장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스마트폰 보급대수 4,800만 대, 무선 통신서비스 침투율 122.9%(2017년 12월 기준)를 넘어서는 등 이동통신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 한계 존재 또한, 시장 경쟁 촉발의 주 요인인 플래그십 단말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어 최신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교체 주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국내 이동통신시장 성숙에 따라 가입자 성장세가 장기 정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신규 수익원 발굴 및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Matured
 <p>통신 요금인하 규제 리스크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비 절감은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 중 하나임 2017년 6월 발표된 신정부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하여, 2017년 9월 15일 선택적정할인을 상향, 2017년 12월 22일 저소득층 요금 감면 확대를 도입하였으며, 2018년 4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 감면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통과하는 등 관련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정부가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가 민간의 요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국내 타 산업이나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례로, 지속적으로 통신시장의 리스크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Matured
 <p>5G 상용화 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G 상용화를 위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필두로 하는 5G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5G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주파수 확보가 필수적임 5G 선두 지위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초고속·초저지연 등 5G의 차별화 기술 기반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연내 주파수 할당을 추진 중임 국내에서는 2018년 6월 주파수 경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9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Emerging

POTENTIAL IMPACTS ON SKT	WHAT ARE WE DOING ABOUT 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무선 통신서비스 시장 상황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이동통신 수요 안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이동통신 부문의 장기적인 수익성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부문 성장률 둔화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텔레콤은 최고 품질의 데이터 및 음성 통화 서비스, 유통망 품질 관리, 고객 혜택 제고 및 리텐션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장 1위 점유율(48.2%, 2017년 12월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동통신 가입자 확보를 위해 고객가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통신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과 동시에 5G 서비스 선도적 추진 등을 통해 신규 수익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기반, 인프라, 데이터 등 기존 이동통신 사업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New ICT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여 성장 영역에서의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해 노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사업은 정부 규제에 의한 영향이 큰 산업으로,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인한 이동통신 사업의 매출 감소 및 이익훼손 등 재무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시장 자율 경쟁에 따른 고객 혜택 강화 및 통신비 부담 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시장 전체 경쟁 구도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경우, 소비자의 불편을 완화함과 동시에 시장 경쟁의 중심을 상품 및 서비스 퀄리티로 전환하여 공극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텔레콤은 인위적인 요금 인하 보다는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경쟁력을 통한 실질적 고객 혜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게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요금 감면 제도, 어르신 요금제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에 따라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및 성장사업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사업자의 투자역량 및 역할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등 올바른 정책 입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5G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의 조기상용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5G 프론트홀,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핵심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표준 선도와 주파수 획득이 5G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도한 5G 주파수 할당대가 및 네트워크 투자비 부담은 5G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5G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텔레콤은 5G 핵심 기술의 경우, 5G 프론트홀,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주요 기술의 국제 표준 수립에 기여하였으며, 2017년 말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 규격 기반의 5G 데이터 통신 시연에 성공하는 등 글로벌 표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5G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판단과 함께 5G 비즈니스 모델과 인프라 경쟁력 및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운영, 재무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5G 관련 기술 개발 고도화 및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5G 특성인 초연결, 초저지연을 구현할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RISKS & OPPORTUNITIES

RISK & OPPORTUNITIES	CONTEXT	STATUS
 <p>프라이버시 리스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고속 인터넷망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며, 개인정보 보호는 고객 신뢰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기본 의무임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권에 속하는 영역이며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나, 범죄수사, 테러 및 국가안보 등 다른 공익적 가치를 위해 제한되기도 함 이동통신 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부터 고객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통신사업자는 개인의 통신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를 가지며,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구와 고객 보호 사이에서 분명하고 균형 잡힌 입장과 정책을 수립해야 함 	Emerging
 <p>기후변화 리스크 및 에너지 효율성 압력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위험이 글로벌 주요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배출권거래제 강화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 강화 등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배출권 확보 및 전기요금 관련 운영비용 상승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음 2015년 말 COP21(Paris Pact)에서 포스트 교토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고, 시장 및 비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정부는 2017년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국가 에너지 체계 개선 로드맵을 발표함 기후변화 리스크 심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Next Grid 등 ICT 기반 친환경 사업 기회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Emerging
 <p>망중립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상의 모든 트래픽은 이용자나 콘텐츠 사업자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국내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년)' 및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2013년)',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2017)'을 제정 및 준수하고 있음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해오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7년 12월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한 것에 이어, EU의 규제기관인 BEREC(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또한 5G의 특성과 망중립성 원칙의 상충을 검토하는 등 글로벌 망중립성 정책에 변화가 일고 있음 국내에서도 5G 상용화에 앞서 4차 산업 관련 성장 사업 등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 전환 관련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Emerging

POTENTIAL IMPACTS ON SKT	WHAT ARE WE DOING ABOUT 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사법기관, 수사기관 및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자료 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절차와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한 통신자료 건 수는 2017년 기준 '통신자료' 473,145건, '통신사실확인자료' 142,657건(2018.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요청 문서 수 기준)으로,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활용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권익과 정부기관에 대한 협조 사이에서 균형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장기적 리스크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텔레콤은 공식화된 기업인권정책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 및 기술오용에 대한 인권 원칙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및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는 현행 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와 제한에 따라 진행됩니다.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및 진단체계 고도화, 데이터 기반의 Intelligent Security 체계 구축, 이동통신망 IT시스템 보안진단 강화 및 방어체계 고도화, ICT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물적 보안 체계 강화를 통한 정보보호사고 Zero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텔레콤은 네트워크 및 기지국 운영을 위해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전반에서 다량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을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당사 온실가스 배출 전망(BAU)대비 낮은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과, 배출권 거래 시장의 장기적 불확실성은 환경부채 발생 등 SK텔레콤의 재무적 부담과 함께 미래사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텔레콤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이사회 기업시민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더불어 배출권 분산 구매를 통한 가격 리스크 완화, 2012~2013년 온실가스 조기 감축분 인정 및 2017년 신증설 장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 할당 신청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T·M·P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산정 방법을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는 등 ICT를 활용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연구와 인프라 제공을 통해 미래 발생할 수 있는 환경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속되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새로운 시장기회 관점으로 접근하여 BEMS(Building Energy Mgt. System), FEMS(Factory Energy Mgt. System) 및 다양한 ICT 기반 스마트/그린 솔루션 등 데이터 기반 다양한 환경 효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5G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가상화 기술을 통해 하나의 하드웨어 인프라에서 다양한 서비스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제공되므로, 산업별 서비스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망중립성 규제가 개선될 경우 초저지연의 신뢰도 높은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며, 다양한 산업군과의 협력을 통해 B2C를 넘어 B2B영역으로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익구조 다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텔레콤은 2011년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이래로 국내 망중립성 관련 규제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 관련 규제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통해 망 제공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망 운용 기술을 기반으로 차별적 인프라 경쟁력과 성공적인 5G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5G 시대 망중립성 규제개선에 기반하여 맞춤형 B2B 서비스 활성화 등 수익모델 다변화를 모색하고 준비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윤리규범 및 실천 지침

SK텔레콤은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실천지침을 통해 구성원·협력회사·고객·주주·지역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SK텔레콤의 책임을 선포하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의 적용 기준, 자세 등 윤리 경영 전반에 대한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사규 및 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 Policy)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과 윤리경영실천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윤리실천 가이드(FAQ)로 정립하여, 개개인의 상이한 판단 기준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실천 가이드(FAQ)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윤리 이슈 상황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상담을 통해 대처 방안과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체계

SK텔레콤은 Prevention - Detection - Response의 3대 Framework에 따라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SK텔레콤 3대 윤리경영 Framework의 각 영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예방활동강화, 실천문화 정착 및 투자회사의 윤리경영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윤리경영 실천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방활동 강화

SK텔레콤은 윤리경영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취약 영역을 개선하기 위해 윤리경영 실천진단(Survey)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진단은 투자회사 전 구성원을 포함한 범위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연 1회 정기 진단을 통해 회사 및 구성원들이 비윤리 Risk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2017년 SK텔레콤은 리더 및 구성원의 윤리규범 준수 및 문화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 및 실행하여 전사 윤리경영 실천을 제고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윤리규범을 개정한 것에 이어 2018년 1월 윤리경영실천지침을 개정하여 전사 핵심가치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윤리 실천 영역을 '고객-비즈니스파트너-회사-구성원-나'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에 따른 윤리 실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구성원들의 윤리경영 실천 인식을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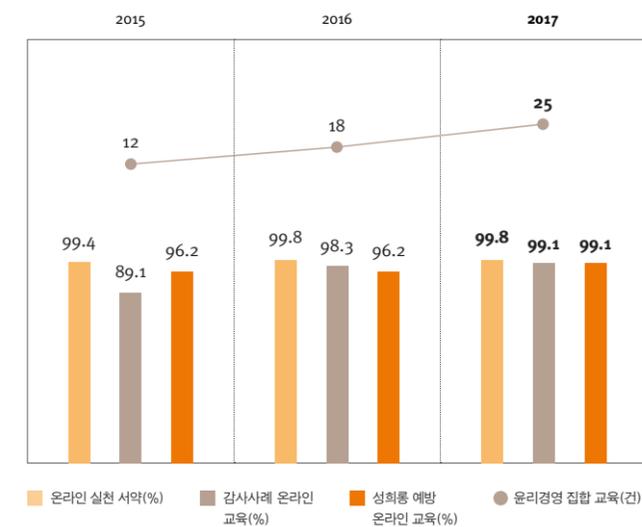
윤리경영 실천 내재화

SK텔레콤은 파악된 잠재 리스크에 대하여 예방점검과 교육을 통해, 사례 발생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구성원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실천 서약 및 윤리 교육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 시행되며, 구성원의 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경력·리더 및 사업 조직별 니즈를 반영하고 구성원의 윤리경영 경각심 고취에 초점을 맞춘 On-Demand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윤리경영 실천 워크샵을 통해 조직별 업무 특성에 맞는 실천지침 강령 수립을 통한 윤리경영 Mind-set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사 68개 실·본부, 306개 팀의 윤리경영 실천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리더와 구성원 간 쌍방향 토론 및 교육을 통해 윤리경영 Mind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윤리경영 교육 대상 범위를 협력회사 및 유통망, 투자회사까지 확대하여 전 사업활동 내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격월로 '윤리실천레터'를 발행하여 윤리실천가이드의 구체적인 학습을 돕고, 윤리규범을 내재화하여 윤리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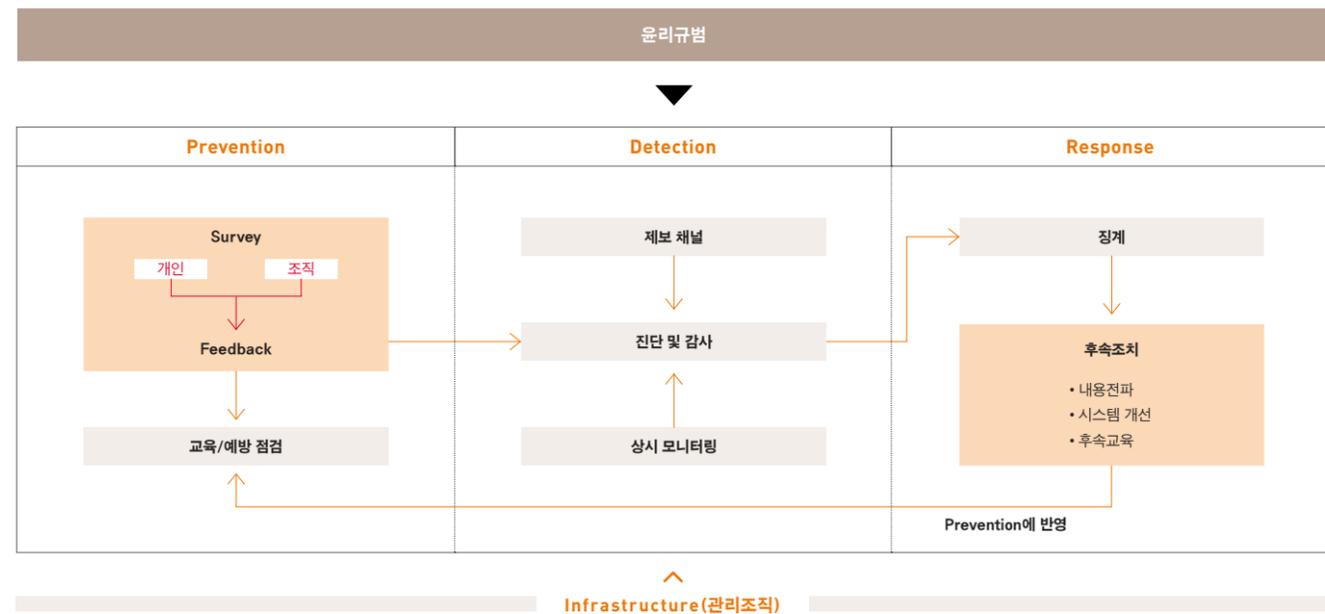
구성원 윤리경영 교육 현황



SK텔레콤 행동강령 프레임워크



SK텔레콤 윤리경영 프레임워크



윤리경영 진단 및 감사

현장 조직의 비즈니스, 경영, 윤리 리스크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SK그룹 윤리경영 Policy(2015)'에 의거한 27개 내부통제 감사지원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윤리 이슈를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27개 시나리오 중 20개 시나리오를 윤리경영포털 내 자동 점검항목으로 개발하여 현업부서의 자율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리더의 윤리경영실천 솔선수범 및 사업 각 영역의 비효율과 잠재 리스크 예방을 위한 윤리경영 진단·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윤리경영 진단 감사는 로밍사업 진단, 투자회사인 아이리버와 엔트릭스에 대한 경영진단, 마케팅부문 현장활동비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를 100% 이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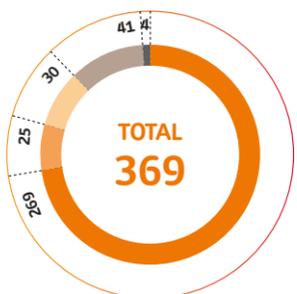
2017년 윤리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		
구분	건수	조치사항
성희롱 및 직장 예절	6	정직 6
향응·접대수수	3	정직 1 / 견책 2
금품수수	2	면직 2
금전대차	2	면직 1 / 견책 1
허위보고·예산낭비	1	면직 1
겸업	1	면직 1
회사비용 부당편취	-	-
관리책임	-	-
품위손상	-	-
공정거래 규정 위반	-	-
계	15	정직 7 / 면직 5 / 견책 3

윤리 상담 및 제보

SK텔레콤은 윤리경영 관련 이슈를 상시 제보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윤리상담·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비롯하여 고객, 협력회사 등 윤리 상담 및 제보가 필요한 모든 SK텔레콤의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대면상담·서신 등의 온·오프라인 채널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은 부정·비리 등에 관해 제보할 수 있는 제보 창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윤리적 이슈를 상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내부 윤리 상담 및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보를 원할 시에는 감사위원장 직보 채널을 이용할 수 있으며, 'My Counselor', 'Letter to HR', 성희롱 전담 여성 상담 인력, 인트라넷 채널, 익명게시판 등 다각적 방법으로 내부 구성원의 윤리이슈 및 고충에 대해 상담과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상담센터 운영 현황



■ 고객분 ■ 자회사 관련 ■ 단순 현업이슈 ■ 윤리상담/제보(*) ■ Drop(**)

(*) 윤리상담/제보 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시행, 그 외 건의 경우 관련 유관 부서 이관 조치

(**) 제보 내용 불충분/제보절차 등으로 조사 미실시

제보자 보호 강화

SK텔레콤은 윤리 제보·상담자의 신분과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련 내용이 제보자·상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 9월 내부 제보자 보호 방침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실천지침에 내부 제보자의 신분, 상담 및 신고 내용 보호 조항을 명문화 하고, 제보자의 신분 노출 등에 따른 징계 조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정한 경쟁, 투명한 거래 문화

SK텔레콤은 협력회사의 공정 경쟁 및 거래 투명성 실천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CSR 실천 동의서에 공정·투명거래 항목을 포함하여 공정거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준수 기준은 국가 및 지역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SK텔레콤의 협력회사로 등록을 불허하거나 기존 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등 기준 준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SK텔레콤이 속해 있는 SK그룹은 2008년 이후 'SK 컴플라이언스 체계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여 각 관계사에 배포하는 등 공정거래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7년 어떠한 반독점 조사에도 개입된 바 없으며, 공정거래 관련 사항 위반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 동시에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ICT 산업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투명한 공공정책 참여와 기부금 집행

SK텔레콤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국내 정치자금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직접적으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자금, 선거 자금, 특정 정치 단체 및 정당의 로비성 자금 일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협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익 발전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반부패·공정거래에 관한 준수와 고용 창출,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공공정책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영향과 관련된 비용 지출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체 기부 내역과 규모를 전사적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여 10억 원 이상 규모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업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용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성 지원 비용 지출 현황				백만 원
	2015	2016	2017	
정치기부금(*)	0	0	0	
로비성 자금 및 이해관계집단 지원	0	0	0	
선거 캠페인 및 후보 지원	0	0	0	
무역 협회 혹은 비과세 그룹	0	0	0	

(*)정치기부금: 로비 기관/로비스트, 정치 캠페인 및 선거자금, 정당/정치 단체/정치인, 무역 협회 혹은 비과세그룹에 대한 기부 및 지원

협회 기부금 지출 내역				백만 원
	2015	2016	2017	
협회 기부금(*)	9,562	7,416	3,274	

(*) 협회 기부금: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통신 정책 관련 기관에 대한 협회비

주요 지원 내역(**)	바른 ICT 연구소 기부금	대중소협력출연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2017년 기부 금액	980	936	213	200	50

(**) 2017년 협회 기부금 상위 5개 지출처 내역

전사 인권 이슈 파악 및 관리

SK텔레콤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직접 사업 운영 또는 사업 관계에 의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입니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기술이 개인의 정보 교환과 접근을 진작하고, 사회적 지식, 개방성, 투명성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인권 신장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SK텔레콤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에 적시된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전 사업과정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인권 정책에 대한 CEO의 성명은 pp.137-138을 참조하여주십시오.

가치사슬(VALUE-CHAIN) 상에서의 인권 리스크 식별과 완화 프로세스 수립

조사의 범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기업과 이해관계자에게 사업 과정에서 인권 진작을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보호(Protect), 존중(Respect), 구제(Remedy)'로,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부정적인 인권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거할 것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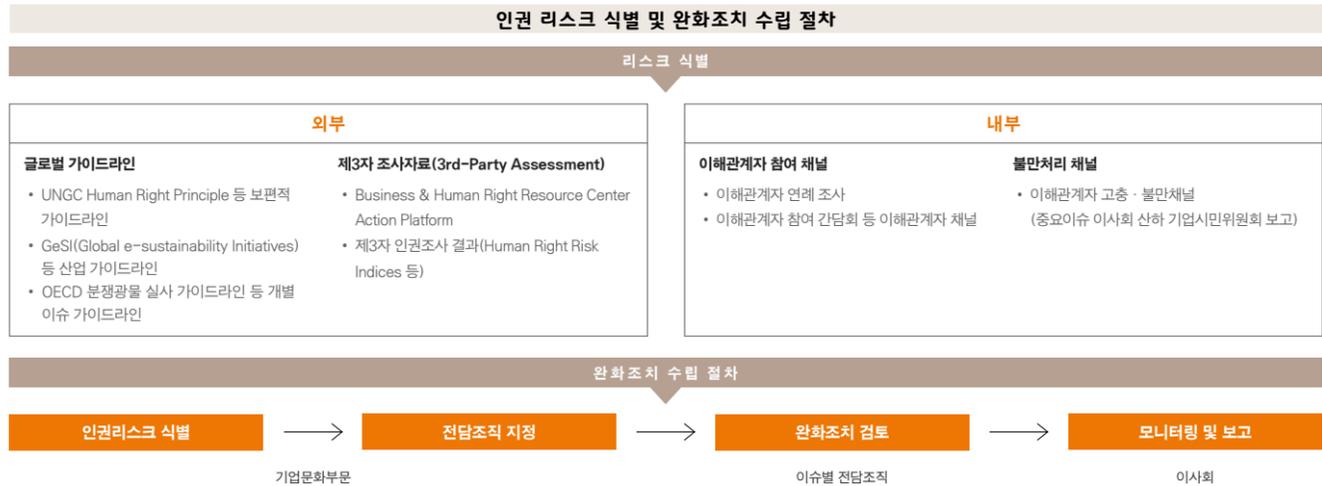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 기업차원의 인권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인권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SK텔레콤은 인권 정책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주요한 인권 요소로 1)사업장 내 구성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인권, 2)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3)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4)기술·서비스·데이터 오용 방지를 주요한 인권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SK텔레콤 본체 및 자회사, 비즈니스 파트너가 속한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세부적인 인권 위험이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식별

SK텔레콤은 인권 정책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비교하는 진단 분석(Gap Analysis)을 실시하여 주요한 인권 이슈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인권 리스크 식별 절차는 1) OECD 분쟁광물 실사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권 이슈에 대한 조사, 2) 글로벌 인권 행동플랫폼 및 NGO 등 3rd-Party 의 인권 관련 이슈 트래킹(Tracking), 3) 연례 이해관계자 조사를 통한 이슈 식별, 4) 이사회 기업시민위원회 및 CSR 이슈제기 채널을 통한 통합 고충처리(Grievance Resolution)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뤄집니다.

완화 프로세스 수립

2017년 리스크 분석 결과 여러 인권 요소 중 1) 네트워크, 디바이스 장비 원료채취 단계에서의 분쟁광물 이슈, 2)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 근무자의 근로시간 및 안전, 3) 고객 서비스 상담사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보호, 4)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주요한 인권 이슈로 선정하였습니다. 구제 및 완화 조치는 식별된 우선순위 인권 이슈에 대하여 실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각 이슈별 전담 조직을 매핑하여, 조치가 일회성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리스크인 분쟁광물의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상시 업무를 SCM실에서 담당토록 하는 한편, 콜센터 근로 환경 이슈는 고객가치혁신실 고객Care팀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책임조직 매칭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슈가 해결될 수 있게 조치합니다.



핵심적 인권 요소에 대한 실사 결과

분쟁광물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DRC)나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금, 텅스텐, 주석, 탄탈륨 등의 광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지난 10년간 콩고민주공화국 내 무장반군이 분쟁광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신 및 전자산업계의 주요한 인권이슈가 되었습니다. 분쟁광물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제품은 휴대폰, 노트북 등의 전자 디바이스입니다. SK텔레콤은 전자 디바이스를 직접 제조하지 않지만, SK텔레콤에 납품되는 자재, 부품, 장비 등이 분쟁광물을 포함하고 있는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주)EICC)와 GeSI(글로벌 e지속가능성이니셔티브)가 제공하는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을 통해 원산지 추적 및 실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합리적 공급망 실사결과, 직접적인 분쟁광물을 구매하지 않았으며, 분쟁 지역의 제련소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공급사실 실사가 필요한 분쟁지역 생산 광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	2016	2017
SK텔레콤 분쟁광물 사용 건 수	0	0	0
완화조치	주요 사업장 분쟁광물 사용 여부에 관한 지속적 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근무자의 근로시간 및 안전

SK텔레콤은 무선 통신망 운영을 위해 전국 279만 개의 기지국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망 유지, 보수를 위한 전산 작업 및 물리적 보수 등을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는 안전사고, 근로시간 등의 인권 이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네트워크오퍼에스(Network O&S)는 전사 단위 안전 사고 발생 현황 관리, 안전장구(헬멧 등) 보유 현황 및 착용실태 점검, 차량 안전 운행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월별 안전실태를 조사하여, 1건의 주요 위험을 발견하고 조치하였습니다. 글로벌 인권 이슈 중 하나인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에서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단축하기 위한 근로시간 감축안에 합의함에 따라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환경 변화에 의한 장비 수량 증가가 근무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휴일 또는 야간 근무 시 소속 팀장 사전 허가 및 근태관리 시스템을 통한 근무 현황 등록 등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내 효율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	2016	2017
인당 근무시간(시간/주)	52.9	53.2	52.6
완화조치	휴/야간 근무 시 소속 팀장의 사전 허가에 따른 시행 및 근태관리 시스템 통한 근무현황 등록 의무화		

서비스 상담사 보호 (감정노동 등)

SK텔레콤은 콜센터 자회사와 정기적으로 협력하며 서비스 상담사의 처우 개선, 근무환경 고도화 등의 보호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비스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는 상시적으로 감정노동에 노출되며, 월 평균 1~2회의 폭언 및 욕설 등을 경험합니다. SK텔레콤 콜센터 자회사는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도로는, 상담 중 고객의 욕설, 폭언, 협박, 성희롱 등 부당한 언행에 노출되거나, 비상식적 요구 등에 노출되는 경우, 양해(경고) 및 선종료, 상급자 연결 등 대응을 위한 절차(구성원 보호 프로그램)를 구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 긴급 문의 외 일반 상담(요구문의 등)을 제한하여 고객센터 상담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사후 관리 프로그램인 'Mind Care'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1~2회 이상의 마음 건강 진단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반응을 조사하는 한편, 고위험군 대상 개인 및 그룹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4시간 근무제와 6시간 근무 중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 진단 및 상담 현황

	2015	2016	2017
서비스팀			
진단 참여인원	3,963명(97%)	3,735명(100%)	3,214명(100%)
완화조치 - 개인상담	352명	605명	721명
완화조치 - 그룹상담	322명	546명	679명
서비스에이스			
진단 참여인원	3,781명(100%)	3,384명(98.5%)	3,204명(96.3%)
완화조치 - 개인상담	106명	107명	127명
완화조치 - 그룹상담	179명	311명	218명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SK텔레콤과 거래하는 모든 유통 대리점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사는 정기적 진단을 통해 리스크 노출 정도를 파악하고, 발생한 리스크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SK텔레콤은 2015년부터 마케팅, 솔루션 부문 유통망 대리점 매장 3천 8백 여 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진단(Audit)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간 약 2만 대의 PC에 정보유출 원격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역시 유통망 고객 정보보호 진단(Audit) 및 점검을 100% 이행하였습니다.

유통망에서의 정보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통망 정기 진단 강화, 데이터 분석을 통한 타겟 진단 강화, 고객정보 취급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고객정보 보호 인식 제고 등 4대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유통망 샘플링 진단을 통해 유통망 사각지대의 Risk를 발굴하고, 2017년 668건의 개선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유통망 고객 정보 보호 심화 진단을 통해 153건의 개선사항을 발견하였으며, 단기적 조치 90건, 장기적 조치 63건 등 개선사항에 대해 100%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유통망 고객 정보 보호 수준 샘플링 진단 (2017)

구분	진단 건 수	개선사항 도출 및 완화 조치 건 수	비고
유통망 고객정보 실태 진단(*)	1,822	668	유통망 진단 사각지대 Risk 발굴 및 개선 조치

(*) 전체 오프라인 유통망 List up 후, 각 본부별 매장을 샘플링하여 진단하는 정기 진단

유통망 고객 정보 보호 수준 심화 진단

	2015	2016	2017
전체 유통망 대비 점검 비율(%)	100(*)	100(**)	100(***)
보안 개선사항 발견 수	491	326	153
발견된 보안 개선사항에 대한 완화조치 비율(%)	100	100	100
완화조치 - 단기 조치완료 수	322	218	90
완화조치 - 장기 조치완료 수	169	108	63

(*) 유통망 정보보호 관리 방식 체계화 및 구조화 추진

(**) 유통망 정보보호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진단 고도화를 통해 정보유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매장을 제외하고 전수(100%) 조사 실시

(***) 전체 3,800여개 유통망을 대상으로 1) 데이터 분석 기반 타겟 진단, 2) 온라인 판매 매장 진단, 3) SNS 등 고객 정보 노출 실태 진단 등의 진단 기법을 통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의심되는 매장에 대한 전수(100%) 진단 실시

- 1) Safe PC/이글아이 등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 기반 진단
- 2) T-Gate 인입 URL(약 13만개)분석
- 3) 네이버 Band/Café/KaKao Group 등에 노출된 고객정보 진단

잠재적 인권 이슈에 대한 주의

토지 등에 관한 주민 권리

통신회사는 기지국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원주민에 대한 권리 침해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매출은 99%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동통신(MNO) 사업 부문에서 해외 직접 진출 계획은 없어 이러한 권리 침해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국내 사업장 및 기지국,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시 전자파 등 안전 문제와 함께 주민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채널(고객센터 등)을 통해 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에 대한 차별 금지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진 현 시점에 특정 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 차단은 시민권 및 정치 참여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평등한 정보 접근이 매우 중요한 인권 이슈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1) 취약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2) 교육을 통한 접근성 향상, 3) 보편적 정보 접근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 등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디지털 격차해소(Digital Inclusion)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p.121 '서비스 접근성'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또한 SK텔레콤은 중요한 권리로서 어린이가 온라인 정보를 안전하게 접하고, 책임있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편적 조치(성인 콘텐츠 제한, 불법 콘텐츠 차단 등)를 지지합니다.

SK텔레콤 가치사슬 상의 주요 인권이슈 및 시사결과



PLATFORM

주요 인권 이슈	취약그룹	검토대상	이슈성격	위험수준	2017 시사결과		
					조사범위	이슈발견	조치
A 분쟁광물	토착민, 어린이	원료 공급 업체	전자 기기에 사용되는 주석, 텅스텐, 티탈륨 등은 콩고 및 주변국 생산물일 경우 콩고 DRC의 분쟁유지에 기여하여, 생산과정에서 아동노동 착취 등 발생	실사대상	100%	0%	100%
B 근로시간/안전	설치 및 운영 오퍼레이터	자회사(네트워크오퍼에스)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서의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신체 물리적 위험이 되는 안전 이슈 해소	실사대상	100%	0.84%	100%
C 인도적 대우	상담사	자회사(서비스탑 서비스에이스)	고객의 부당한 언행(욕설, 폭언,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나 비상식적 요구에 노출되는 상담사를 보호	실사대상	100%	23.8%	100%
D 개인정보 보호	일반	자회사, 파트너	정보화 시대 주요 인권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실사대상	100%(*)	3.3%	100%
E 근로시간	내부 구성원	자사	임직원 근로 환경상의 강제노동, 아동노동 및 권리 침해 이슈	예비적 주의	100%	0%	100%
F 원주민 권리	토착민	지역사회	사업장 확장에 따른 토지, 재산 등 원주민 권리에 대한 직접적 침해	예비적 주의	-	-	-
G 정보 접근성	어린이, 일반	자사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호와 어린이 등에 대한 콘텐츠 책임	예비적 주의	-	-	-

(*) 전체 유통망을 대상으로 1) 데이터 분석 기반 타겟 진단, 2) 온라인 판매 매장 진단, 3) SNS 등 고객 정보 노출 실태 진단 등의 진단 기법을 통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의심되는 매장에 대한 전수(100%) 진단 실시

책임 있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통한 경쟁력 강화

SK텔레콤은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 및 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가치사슬 차원의 책임과 그 보증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네트워크 디바이스 개발 및 보급,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플랫폼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협력회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 내 협력회사의 리스크를 검토하고 위험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함께, 기회요인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ESG 행동 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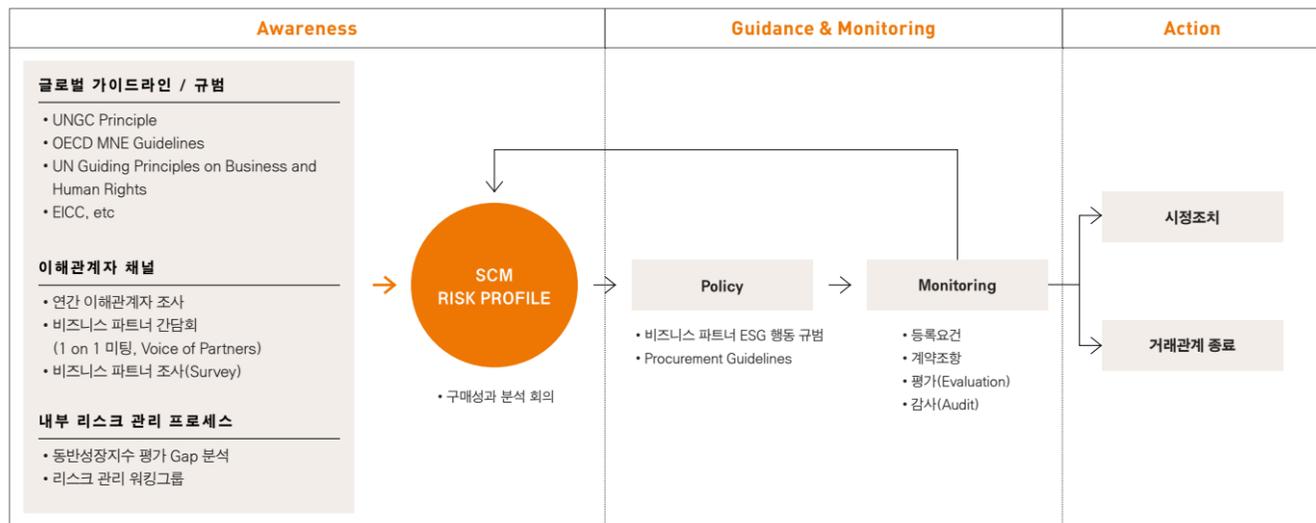
SK텔레콤은 비즈니스 파트너 ESG 행동 규범(Supplier ESG Code of Conduct)을 통해 당사 협력업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준수 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공급망 정책은 1. 반부패, 2. 공정 경쟁 & 컴플라이언스, 3. 정보보호, 4. 재무 건전성, 5. 공공정책, 6. 고객가치, 7. 환경, 8. 보건안전, 9. 지역 사회공헌, 10. 인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SK텔레콤 공급망 정책의 상세 내용은 pp.139-140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sktelecom.com/supplychain>)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당사는 공급망 정책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에 '비즈니스 파트너 ESG 행동 규범' 공유 및 '공정투명 거래 및 CSR 실천동의서'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우수 기업협의체인 UNGC LEAD 기업으로서 UNGC LEAD 활동에 기반하여, UNGC 원칙을 공급망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으며, 글로벌 e-Sustainability 이니셔티브인 GeSI 의 JAC(Joint Audit Cooperation)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협력업체에 대해 계약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한편 정기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시정조치 요구, 거래관계 종료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공급망 현황

SK텔레콤은 SK텔레콤의 계속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SK텔레콤에 대한 거래 의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공급업체(Critical Supplier)' 그룹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핵심 공급업체는 1)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와의 연관성 및 신뢰도, 2) 높은 수준의 거래액, 3) 독점 기술에 대한 대체 불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분류하여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총 1,444개 사의 등록된 협력회사 중 278개사가 Tier 1 핵심 공급업체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SK텔레콤 책임 있는 공급망 절차



공급망 지속가능성 사전 스크리닝

SK텔레콤은 전자계약시스템(Open2U)에 기반하여 '공정투명거래 및 CSR 실천 동의서'를 통해 2017년 신규 등록 협력회사를 100% 스크리닝 하고 공급망 정책에 대한 준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정투명 거래 및 CSR 실천 동의서'는 SK텔레콤의 공급망 ESG 정책에 대한 준수와 동의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동시에, SK텔레콤은 협력회사와의 서면 계약서 내 SK텔레콤 공급망 정책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2차 협력회사와의 계약 및 Business Practice 전반에 걸쳐 협력회사가 SK텔레콤의 Code of Conduct에 준하여 실행하도록 협력회사 100% 대상 윤리실천서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등록 협력회사 스크리닝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협력회사는 SK텔레콤의 공급업체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내 주요 리스크 식별 및 분석

SK텔레콤은 연 2회 이상 동반성장만족도 조사 등 협력사 대상 조사(비즈니스파트너 Survey), 협력사 대상 간담회, Voice of Partners(신문고) 청취, 리스크 관리 워킹그룹 등 내부 리스크 프로세스에서 발견되는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급업체 그룹별 리스크 Gap 분석(Risk Gap Analysis), 리스크 매핑(RiskMapping) 결과를 '구매 성과분석 개선 회의'에서 매월 검토합니다. SK텔레콤은 공급망 관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이를 공급망 지속가능성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식별 및 분석 결과 (2017)

주요 리스크 요소	Assessed Sourcing Group	High Risk 비율 (*)			
		Risk Level	Assessed Group	비율 (회사 수)	비율 (회사 수)
Overall	Overall Risks	-	-	100% (1,444개 사)	1.7% (25개 사)
경제적 리스크	계약 과정의 윤리 및 반부패 원칙 위반	High	전 협력회사	100% (1,444개 사)	0.1% (2개 사)
	담합 및 불공정 행위	High	전 협력회사	100% (1,444개 사)	0% (0개 사)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	High	전 협력회사	100% (1,444개 사)	0% (0개 사)
	낮은 신용등급 등 재무구조 불건전	High	전 협력회사	100% (1,444개 사)	1.6% (23개 사)
Tier 1 사회적 리스크	ILO 노동 규약 및 할리계 노동 관행 위반 (근무 시간 준수, 급여지급, 기타 노동 인권)	Moderate	용역 파트너 / 공사 파트너	72% (1,039개 사)	0% (0개 사)
	분쟁광물	Low	장비 파트너	15% (211개 사)	0% (0개 사)
환경적 리스크	환경 규제 위반	Moderate	장비 파트너	15% (211개 사)	0% (0개 사)
	높은 온실가스 배출	Moderate	장비 파트너	15% (211개 사)	0% (0개 사)
Non-Tier 1	환경운영시스템 미도입	Low	공사 파트너 / 장비 파트너	15% (211개 사)	0% (0개 사)
	Overall Risks	-	도급계약 파트너(**)	100% (47개 사)	0% (0개 사)

(*) 리스크 분석 결과 High Risk Level 이상으로 판정된 협력회사 비율

(**) 네트워크 시설공사와 일반물품 공급에 대해 중소협력사와 직접계약이 아닌 중간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산정함 (SK건설, 행복나래)

공급망 구매 분석

협력회사 구분	협력회사 수(개사)	구매 비중(%)	
총 등록 협력회사	1,444	100	
Tier 1	장비(네트워크 및 인프라)	211	15
	용역(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802	56
	물품	194	13
	공사	237	16
	핵심 공급업체	278	90
Non-Tier 1	핵심 공급업체	47	-

공급망 ESG 평가(사전 스크리닝)

협력회사 구분	2015	2016	2017	2020목표	비고
총 신규 등록 협력회사 수	706	725	615	750	
인권·환경·윤리·사회 부문 스크리닝 수	706	725	615	750	용역/공사/장비/물품 협력업체
사전 평가 비율(%)	100	100	100	100	

공급망 ESG 평가

SK텔레콤은 등록 협력회사의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 실시 비중을 공급망 ESG 평가 활동의 핵심지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체 1차 협력회사(1,444개 사) 중 1,056개 사에 대한 서면조사, 224개 사에 대한 방문조사(개별 협력회사 방문 및 면담, In-depth 미팅 포함), 60개 사에 대한 3rd Party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총 등록 협력회사의 93%에 해당합니다. 또한 협력회사 대상 제3차 외부 감사 및 진단 평가 관련, 2017년 당사의 동반성장 협약 대상 278개사에 대하여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외부 평가 기관의 협력기관 대상 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국내 및 해외 전 공급회사에 이러한 정책 및 성과지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 해외 구매 비중은 전체 구매액(약 3조 7,000억 원) 대비 168억 원(0.45%)으로 지역별 성과 지표는 국내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전자계약시스템(Open2U)에 기반하여 '공정투명거래 및 CSR 실천 동의서'를 통해 2017년 신규 등록 협력회사를 100% 사전 스크리닝하였습

니다. 또한, 2017년 전체 1차 협력회사(1,444개 사) 및 2차 이상의 협력회사(47개 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식별 및 분석을 실시하여, '높은 위험(High Risk)'에 노출되어 있다고 식별된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100% 방문조사 또는 3rd Party 조사를 통한 공급망 평가(Audit)를 실시하여 Risk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진단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협력회사에 대한 역량 제고 프로그램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합니다. 역량제고 프로그램으로는 기술이전, Open Collaboration 등의 기술지원 및 보호 활동을 비롯해 SK동반성장아카데미, 협력사 대상 CEO 세미나 및 MBA과정 등을 진행하는 한편, 위험 감소를 위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감소를 위한 교육은 동반성장협약, 협력회사 교육 과정 내 구매 정책 및 정책 준수에 대한 교육을 포함합니다. 우수 협력회사의 인센티브 및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으로는 납품단가 조정, 자금(금융)지원, 기술 및 교육 지원, 복지 등이 있습니다.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 (평가 유형별)

		2015	2016	2017	2020 목표	
Tier 1	총 등록 협력회사 수(*)	2,346	1,881	1,444	2,100	
	평가 시행 협력업체 수	1,582	1,726	1,340	2,000	
	서면조사 실시(Audit) 협력회사 수	1,270	1,351	1,056	1,400	
	방문조사 실시(Audit) 협력회사 수	212	225	224	242	
	3rd Party 조사 협력회사 수	100	150	60	150	공사/장비 협력업체 개별 협력회사 면담, In-depth 미팅 포함
	평가 시행 협력업체 비율	67	92	93	95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Survey)
Non-Tier 1	총 핵심 공급업체 수(**)	20	35	47	40	
	평가 시행 핵심 공급업체 수(***)	10	21	35	38	
	평가 시행 핵심 공급업체 비율(****)(%)	50	60	74	95	

(*) 3년간 거래실적이 없는 협력업체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임

(**) 네트워크(N/W) 시설공사와 일반물품 공급에 대해 중소협력사와 직접계약이 아닌 중간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산정함 (SK건설, 행복나래)

(***) SK건설 네트워크(N/W) 시설 공사는 2015년부터, 행복나래의 경우 2016년부터 도급계약 시행

(****) 2016년 기준 2020년 목표는 60%였으나, 2016년 초과달성하여 상향 목표치를 조정함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 (평가 대상별, 2017)

구분	회사 수	평가 회사 수	비율 (%)	비고
핵심 공급업체	325	313	96	핵심 Tier 1 & 핵심 Non-Tier 1 협력업체
High Risk Level 협력업체	25	25	100	Tier 1 협력업체

* SK텔레콤은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를 연간 단위로 진행하며, 상기 평가 비율은 연간 평가 받은 협력회사 기준으로 선정되었음

시정조치

SK텔레콤은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협력회사들에 대해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ESG 성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협력회사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 수는 총 2개 사로 공정투명거래 위반, 비윤리 이슈 발생 등 심각한 정책 위반 사유로 판단되어 해당하는 2개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영구 거래정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협력회사 리스크 시정 조치 현황

협력회사 구분	2015	2016	2017	2020 목표	비고
High Risk Level 협력업체 중 개선 계획 수립된 협력회사 비율(%)	100	100	100	100	
개선 계획 수립 12개월 내 ESG 성과 개선이 이루어진 협력회사 비율(%)	83	90	90	100	
거래 정지 조치를 받은 협력회사 수	2	3	2	-	구매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일시 거래정지	0	1	0	-	거래정지 1년
영구 거래정지	2	2	2	-	영구 퇴출

구매 전략과 공급망 지속가능성

SK텔레콤의 구매 전략 우선순위는 1) TCO(Total Cost Ownership) 관점에서의 구매구조 개선으로 본원적 구매 경쟁력을 확보, 2) 원가 구성에 대한 제로베이스(Zero-base) 관점의 점검으로 비용 효과성 향상, 3) 사업지향적(Business Friendly) 구매 프로세스로의 최적화 및 개선, 4) 사전적 구매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및 공정 거래(Compliance) 환경을 조성, 5)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목표로 공동개발 확대 및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SK 자회사 및 투자회사 정보통신 부문과의 '구매 시너지 협의체'를 통한 전략적 통합구매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전사 구매전략과 지속가능성 관리목표의 연계적 실행을 통해 당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의 리소스(Resource)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기반으로 최적화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나 형식, 관행 등을 과감히 탈피해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 실행에 따른 당사의 구매 전략 달성은 다음의 사업 사례(Business Case)를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CASE

BUSINESS CASE 1.

5G-PON(5G-Passive Optical Network) 솔루션 발굴

'5G-PON(5G-Passive Optical Network)'은 안테나, 중계기 등 건물 단 위 기지국(RU)과 동 단위 통합기지국(DU)을 연결하는 유선 전송망 프론트홀 구간에 적용되는 솔루션입니다. 5G 시대에는 LTE에 비해 촘촘한 기지국 구축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수용해야 할 데이터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를 수신해 이를 동 단위 통합기지국으로 전송하는 프론트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5년부터 국내 감소기업과 협력해 3G, LTE, 5G를 통합 수용할 수 있는 '5G-PON' 솔루션을 개발하여, 2017년 11월부터 자사 통신망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망을 구축할 때마다 별도의 전용 유선망을 구축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차세대 인프라의 효율적 확산이 기대됩니다. SK텔레콤은 '5G-PON'의 기술적 편의성에 힘입어 5G 통신망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LTE 통신망 대비 약 2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BUSINESS CASE 2.

네트워크(N/W) 중계기 장비 공동개발 및 우선구매

LTE 등 이동통신용 광중계기를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개발 상용화하여 외산 기지국 장비 수입을 대체해왔습니다. 절감형 광중계, 중계기 합체 기술의 특허 허여 등 공동 개발을 추진하여 수입을 대체하였으며,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사업을 지원하고 ICT 솔루션 해외판매 등의 수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허여 및 공동 개발을 통해 클라우드 기지국용 전송 장비를 미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소협력사 중계기 장비 공동개발 관련 구매 횟수

72건



구매금액

363억 원

CSR PRACTICE AGREEMENT

공정투명 거래 및 CSR 실천 동의서 (2017)

본인은 SK텔레콤(주)와 거래를 함에 있어 SK텔레콤(주)의 윤리경영을 포함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실천에 적극 협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고 이에 기명 날인한다.

- 1 SK텔레콤(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성립, 유리한 거래 조건의 설정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귀사 임직원에게 어떠한 금품 접대 편의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 2 SK텔레콤(주)의 임직원이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 접대, 편의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SK텔레콤(주)의 윤리상담센터(<http://www.sktelecom.com>, Tel.080-801-6262, Fax. 080-801-6272)에 신고한다.
- 3 SK텔레콤(주)와의 거래관계에서 알게 된 SK텔레콤(주)의 가입자정보 등을 포함한 경영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 4 SK텔레콤(주)와의 거래에서 다른 사업자와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SK텔레콤(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CSR의 실천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동참한다.
 - 가. 강제노동/아동노동 등의 잘못된 노동관행을 금지한다.
 - 나.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출신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 다. 정치적, 종교적, 신체적 자유와 시민권을 존중한다.
 - 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및 상생경영 확산에 동참한다.
 - 바. 기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 안전/보건, 근무시간 등을 준수한다.
- 6 본인은 본 동의서를 위반한 경우 SK텔레콤(주)이 그 위반 정도 및 내부기준에 따라 취하는 거래물량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동의한다.

4 FINANCIAL & NON-FINANCIAL STATEMENTS

99	재무 성과표
107	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115	비재무 성과표
117	비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131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32	제3자 검증의견서
135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재무 성과표

제 34 기 2017.12.31 현재
 제 33 기 2016.12.31 현재
 제 32 기 2015.12.31 현재

연결 재무상태표

백만 원

	제 34 기	제 33 기	제 32 기
자산			
유동자산	6,201,799	5,996,628	5,160,242
현금및현금성자산	1,457,735	1,505,242	768,922
단기금융상품	616,780	468,768	691,090
단기투자자산	144,386	107,364	92,262
매출채권	2,126,007	2,240,926	2,344,867
단기대여금	62,830	58,979	53,895
단기미수금	1,260,835	1,121,444	673,739
단기미수익	3,979	2,780	10,753
단기선급금	49,860	55,675	96,570
단기선급비용	197,046	169,173	151,978
재고자산	272,403	259,846	273,556
기타의유동자산	9,938	6,431	2,610
비유동자산	27,226,870	25,301,035	23,421,145
장기금융상품	1,222	937	10,623
장기투자자산	887,007	828,521	1,207,226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9,538,438	7,404,323	6,896,293
유형자산	10,144,882	10,374,212	10,371,256
투자부동산	0	0	15,071
영업권	1,915,017	1,932,452	1,908,590
무형자산	3,586,965	3,776,354	2,304,784
장기대여금	50,874	65,476	62,454
장기미수금	287,048	149,669	2,420
장기선급비용	90,834	88,130	76,034
장기보증금자산	292,590	298,964	297,281
파생금융자산	253,213	214,770	166,399
이연법인세자산	88,132	75,111	17,257
확정급여자산	45,952	30,247	0
기타의비유동자산	44,696	61,869	85,457
자산총계	33,428,669	31,297,663	28,581,387

백만 원

	제 34 기	제 33 기	제 32 기
부채			
유동부채	7,109,123	6,444,099	5,256,493
단기매입채무	351,711	402,445	279,782
단기미지급금	1,867,074	1,767,799	1,323,434
단기선수금	161,266	174,588	136,844
단기예수금	961,501	964,084	865,327
단기미지급비용	1,327,906	1,125,816	920,739
당기법인세부채	219,791	474,931	381,794
단기선수수익	175,732	188,403	224,233
유동파생금융부채	28,406	86,950	0
유동충당부채	52,057	66,227	40,988
단기차입금	130,000	2,614	260,000
유동성사채및장기차입금	1,530,948	888,467	703,087
유동성금융리스부채	0	0	26
유동성장기미지급금	302,703	301,773	120,185
기타유동부채	28	2	54
비유동부채	8,290,351	8,737,134	7,950,798
사채	5,596,570	6,338,930	6,439,147
장기차입금	211,486	139,716	121,553
장기미지급금	1,346,763	1,624,590	581,697
장기선수수익	7,052	2,389	2,842
확정급여부채	61,960	70,739	98,856
비유동파생상품부채	11,064	203	89,296
비유동충당부채	32,669	31,690	29,217
이연법인세부채	978,693	479,765	538,114
기타의비유동부채	44,094	49,112	50,076
부채총계	15,399,474	15,181,233	13,207,291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7,842,139	15,971,399	15,251,079
자본금	44,639	44,639	44,639
기타불입자본	196,281	199,779	189,510
이익잉여금	17,835,946	15,953,164	15,007,627
기타자본구성요소	(234,727)	(226,183)	9,303
비지배지분	187,056	145,031	123,017
자본총계	18,029,195	16,116,430	15,374,096
자본과부채총계	33,428,669	31,297,663	28,581,387

제 34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제 33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3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연결 손익계산서

백만 원

	제 34 기	제 33 기	제 32 기
영업수익	17,520,013	17,091,816	17,136,734
매출액	17,520,013	17,091,816	17,136,734
영업비용	15,983,387	15,556,072	15,428,728
중입원급여	1,966,156	1,869,763	1,893,745
지급수수료	5,486,263	5,376,726	5,206,951
감가상각비	3,097,466	2,941,886	2,845,295
망접속경산비용	875,045	954,267	957,605
전용회선료및전파사용료	342,240	394,412	389,819
광고선전비	522,753	438,453	405,005
지급임차료	520,244	517,305	493,586
상품및기타구입비용	1,886,524	1,838,368	1,955,861
기타영업비용	1,286,696	1,224,892	1,280,861
영업이익(손실)	1,536,626	1,535,744	1,708,006
금융수익	366,561	575,050	103,900
금융비용	433,616	326,830	350,100
기타영업외수익	31,818	66,303	30,910
기타영업외비용	343,872	298,629	243,491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관련이익	2,245,732	544,501	786,1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403,249	2,096,139	2,035,365
법인세비용	745,654	436,038	519,480
당기순이익(손실)	2,657,595	1,660,101	1,515,885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2,599,829	1,675,967	1,518,604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57,766	(15,866)	(2,71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36,582	23,497	20,988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36,582	23,497	20,988

제 34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제 33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3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백만 원

	제 34 기	제 33 기	제 32 기
당기순이익(손실)	2,657,595	1,660,101	1,515,885
기타포괄손익	(1,013)	(247,331)	1,835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5,921	(7,524)	(14,48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5,921	(7,524)	(14,489)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6,934)	(239,807)	16,32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58,440	(223,981)	(3,661)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141,008)	(9,939)	(5,709)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22,586	(13,218)	(1,27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46,952)	7,331	26,965
당기총포괄손익	2,656,582	1,412,770	1,517,720
총 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2,597,160	1,432,982	1,522,280
비지배지분	59,422	(20,212)	(4,560)

제 34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제 33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3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연결 자본변동표

백만 원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기타 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2015.01.01(기초자본)	44,639	277,998	14,188,591	(4,489)	14,506,739	741,531	15,248,27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0	0	1,518,604	0	1,518,604	(2,719)	1,515,885	
기타포괄손익	0	0	(13,402)	17,078	3,676	(1,841)	1,835	
연차배당금지급	0	0	(668,494)	0	(668,494)	(143)	(668,637)	
중간배당금지급	0	0	0	0	0	0	0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0	0	(16,840)	0	(16,840)	0	(16,840)	
자기주식의 취득	0	(490,192)	0	0	(490,192)	0	(490,192)	
자기주식의 처분	0	425,744	0	0	425,744	0	425,744	
종속기업 처분	0	0	0	0	0	(5,226)	(5,226)	
주식보상비용	0	0	0	0	0	0	0	
종속회사의 자본변동 등	0	(24,040)	(832)	(3,286)	(28,158)	(608,585)	(636,743)	
2015.12.31(기말자본)	44,639	189,510	15,007,627	9,303	15,251,079	123,017	15,374,096	
2016.01.01(기초자본)	44,639	189,510	15,007,627	9,303	15,251,079	123,017	15,374,096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0	0	1,675,967	0	1,675,967	(15,866)	1,660,101	
기타포괄손익	0	0	(7,499)	(235,486)	(242,985)	(4,346)	(247,331)	
연차배당금지급	0	0	(706,091)	0	(706,091)	(300)	(706,391)	
중간배당금지급	0	0	0	0	0	0	0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0	0	(16,840)	0	(16,840)	0	(16,840)	
자기주식의 취득	0	0	0	0	0	0	0	
자기주식의 처분	0	0	0	0	0	0	0	
종속기업 처분	0	0	0	0	0	0	0	
주식보상비용	0	0	0	0	0	0	0	
종속회사의 자본변동 등	0	10,269	0	0	10,269	42,526	52,795	
2016.12.31(기말자본)	44,639	199,779	15,953,164	(226,183)	15,971,399	145,031	16,116,430	
2017.01.01(기초자본)	44,639	199,779	15,953,164	(226,183)	15,971,399	145,031	16,116,43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0	0	2,599,829	0	2,599,829	57,766	2,657,595	
기타포괄손익	0	0	5,875	(8,544)	(2,669)	1,656	(1,013)	
연차배당금지급	0	0	(635,482)	0	(635,482)	(281)	(635,763)	
중간배당금지급	0	0	(70,609)	0	(70,609)	0	(70,609)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0	0	(16,840)	0	(16,840)	0	(16,840)	
자기주식의 취득	0	0	0	0	0	0	0	
자기주식의 처분	0	0	0	0	0	0	0	
종속기업 처분	0	0	0	0	0	0	0	
주식보상비용	0	414	0	0	414	0	414	
종속회사의 자본변동 등	0	(3,912)	9	0	(3,903)	(17,116)	(21,019)	
2017.12.31(기말자본)	44,639	196,281	17,835,946	(234,727)	17,842,139	187,056	18,029,195	

제 34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제 33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3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연결 현금흐름표

백만 원

	제 34 기	제 33 기	제 32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55,820	4,243,168	3,778,129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492,891	4,713,426	4,080,294
연결당기순이익	2,657,595	1,660,101	1,515,885
수익 · 비용조정	2,096,764	3,039,561	3,250,143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 · 부채의변동	(261,468)	13,764	(685,734)
이자수취	66,713	44,602	43,400
배당금수취	106,674	98,267	62,973
이자지급	(234,127)	(245,236)	(275,796)
법인세납부	(576,331)	(367,891)	(132,74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070,607)	(2,462,208)	(2,880,499)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456,778	1,140,664	914,542
단기금융상품의순감소	0	222,322	0
단기투자자산의순감소	0	0	105,158
단기대여금의회수	216,700	238,980	398,308
장기금융상품의감소	27	28	7,424
장기투자자산의처분	129,726	555,519	149,310
관계기업및공통기업투자자의처분	5,925	66,852	185,094
유형자산의처분	29,368	22,549	36,586
무형자산의처분	8,848	16,532	3,769
매각예정자산의 감소	0	0	1,009
장기대여금의회수	6,205	1,960	2,132
예치보증금의감소	24,550	14,894	14,635
기타의비유동자산의처분	1,185	728	607
연결범위포함으로인한현금의증가	4,112	0	10,355
연결대상종속기업지분의처분	30,132	0	155
국고보조금의 수취	0	300	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527,385)	(3,602,872)	(3,795,041)
단기금융상품의순증가	156,012	0	385,612
단기투자자산의순증가	28,975	6,334	0
단기대여금의대여	205,878	239,303	370,378
장기대여금의대여	5,869	32,287	16,701
장기금융상품의증가	2,034	342	10,008
장기투자자산의취득	19,328	30,949	312,261
관계기업및공통기업투자자의취득	193,100	130,388	65,080
유형자산의취득	2,715,859	2,490,455	2,478,778
무형자산의취득	145,740	635,387	127,948
예치보증금의증가	26,377	12,943	12,536
기타의비유동자산의취득	47	763	2,542

제 34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제 33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3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연결 현금흐름표

백만 원

	제 34 기	제 33 기	제 32 기
영업양수로인한 현금유출	0	4,498	13,197
종속기업 취득으로 인한 순현금유출	26,566	19,032	0
종속기업 청산으로 인한 현금유출	1,600	191	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26,618)	(1,044,829)	(964,58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261,803	861,624	1,375,206
단기차입금의 순감소	127,386	0	0
사채의발행	973,291	776,727	1,375,031
장기차입금의차입	120,000	49,000	0
파생상품거래로인한현금유입	188	251	175
연결자본거래로인한현금의증가	40,938	35,646	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2,088,421)	(1,906,453)	(2,339,789)
단기차입금의상환		257,386	106,600
장기미지급금의 상환	305,476	122,723	191,436
사채의상환	842,733	770,000	620,000
장기차입금의상환	32,701	33,387	21,924
파생상품거래로인한현금유출	105,269	0	655
금융리스부채의감소		26	3,206
배당금의지급	706,091	706,091	668,494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	16,840	16,840	16,840
자기주식의 취득	0	0	490,192
연결자본거래로인한현금의감소	79,311	0	220,442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41,405)	736,131	(66,95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505,242	768,922	834,429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6,102)	189	1,446
매각예정자산에 포함된 현금및현금성자산	0	0	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457,735	1,505,242	768,922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분배

SK텔레콤은 2017년 연결기준 17조 5,200억 원의 영업수익 및 재정투자수익, 자산매각수익, 기타 수익을 합해 총 20조 1,43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창출된 가치 중 총 18조 2,520억 원을 기업의 미래가치와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분배하였으며, 모든 분배를 마치고 유보된 총 1조 8,91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자본 총계에 가산하였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2017년 연구인력 개발비 투자, 생산성 향상 투자, 에너지 절약 투자 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총 340억 원의 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경제적 가치의 배분

(억 원)



비즈니스 파트너 배분 및 기타운영 비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매, 공급회사 지급 수수료, 상품 구입 비용, 연구 및 개발비 등 비즈니스 파트너 배분 및 기타 운영 비용
임직원 배분: 급여와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
주주 및 투자자 배분: 주주 배당 및 이자 비용
정부 배분: 법인세 및 기타 세금, 전파 사용 비용
지역사회 배분: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적 투자, 인프라 지원 등의 간접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기부금

1조 8,910억 원

유보된 경제적 가치

유효 세율

SK텔레콤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모든 거래에서 국내외 조세법규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조세법규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히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세 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법령이 정하는 세목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세액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사의 연결기준 세전이익은 3조 4,032억 원이었으며, 명목세액은 8,231억 원으로 명목세율 24.2%를 기록한 반면, 실질세액은 7,457억 원으로 실질세율 21.9%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2개년의 명목세율 평균은 24.2%, 실질세율 평균은 21.4%입니다. 2017년 실질세율은 명목세율에 비해 2.8%p 낮으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주요 이유는 비과세수익으로 인한 효과,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연법인세의 변동, 과거기간 법인세 환급액, 세율변동효과 등에 기인합니다.

세액 및 세율	단위	2016	2017	2개년도 평균
세전이익	백만 원	2,096,139	3,403,249	
명목세액(*)	백만 원	506,804	823,124	
명목세율	%	24.2%	24.2%	24.2%
실질세액(**)	백만 원	436,038	745,654	
실질세율	%	20.8%	21.9%	21.4%

(*) 명목세액: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 실질세액: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법인세 비용

차이 발생 이유	단위	2016	2017
비과세수익으로 인한 효과	백만 원	(38,989)	(40,080)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백만 원	52,648	31,285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	백만 원	(29,484)	(34,300)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연법인세의 변동	백만 원	(84,276)	31,857
과거기간 법인세 환급액	백만 원	27,599	(110,209)
세율변동효과 등	백만 원	1,736	43,977

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재무 MD&A

본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MD&A,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은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영업 실적과 재무 상태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섹션은 본 통합보고서(Annual Report)에 기재된 연결 재무제표와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모든 금액은 연결 기준이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어 감사를 받은 연결 재무제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한국통화(KRW)를 기준으로 보고합니다. 본 경영실적 분석 내에서 '당사'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SK텔레콤주식회사와 연결대상 자회사를 의미하며, 'SK텔레콤'은 SK텔레콤주식회사를 지칭하나 연결대상 자회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미국의 1934년 증권거래법에 규정되고 수정된, 당사와 당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현재의 기대·가정·추정 및 예측에 관한 '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측진술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측진술이 근거한 가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예상함에도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가정에 근거한 예측진술 또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관한 추가 정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F 양식의 최근 연차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리스크와 불확실성 그리고 기타 다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예측진술에 포함된 계획과 목표 또는 예측 재무 실적을 당사가 정확히 달성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는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진술을 수정한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1. 2017년 개괄

최근 무선통신 사업은 LTE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재정의되고 있으며, 당사는 고객의 변화하는 기호와 요구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미디어, IoT/Data, 서비스플랫폼 영역에서 차세대 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다수의 제품 및 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합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5G 기술 표준화를 선도할 최첨단 5G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가장 뛰어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에서는 1) 무선통신 사업, 2) 유선통신 사업, 3) 이커머스 사업, 4) 기타 사업의 네 가지 부문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사업

당사는 무선통신 사업 부문에서 음성 및 데이터 전송 서비스, 디바이스 판매, IoT 솔루션 및 혁신적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성 및 데이터 전송 서비스는 대한민국 인구의 99.0%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백본 네트워크(Backbone Networks)를 통해 제공됩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당사는 알뜰폰(MVNO) 가입자를 포함하여 총 3,02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며 무선통신 사업에서의 1등 리더십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중 약 2,290만 명이 LTE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며, 2,3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 기준 한국 무선통신시장 점유율(알뜰폰 가입자 포함)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48.2%로, 전년 49.1% 대비 0.9%p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사업은 100% 이상의 보급률을 기록하며 시장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매출 및 시장 확대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사는 핵심 역량 부문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무선통신 산업 내 시장선도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길 안내 서비스 T map, 광범위하고 개선 있는 미디어를 제공하는 모바일 IPTV 서비스 옥수수(oksusu)와 같이 고객의 생활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된 통합 서비스의 제공으로 고객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선 및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은 기존 고객 유지 및 신규 가입자 유치를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당사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 'T membership'의 광범위한 혜택 또한 가입자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9월에는 최초로 한국어 기반의 첨단 음성인식기술 기반 지능형 가상 비서 서비스 '누구(NUGU)'를 출시하는 등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T map서비스 및 IPTV서비스에도 누구(NUGU)를 통합하였습니다. 2017년 당사 무선통신 사업 수익은 13조 2,621억 원이었으며 연결 기준 영업 수익의 75.7%를 차지하였습니다.

유선통신 사업

당사는 유선통신 사업 부문에서 유선 전화, 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미디어 플랫폼(IPTV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선통신사업 서비스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및 SK텔레콤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유선전화 가입자 수(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VoIP 서비스 가입자 포함)는 약 432만 명,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는 약 544만 명, IPTV 가입자는 약 437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가입자 수 기반 16.1%, 25.7%, 13.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합한 진보적인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인 B tv는 56개 생방송 고화질 채널과 가입 서비스에 따른 최대 219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박스오피스 영화, 미국 및 해외 인기 프로그램 및 다양한 어린이 TV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HD보다 4배 높은 고화질 해상도를 제공하는 UHD IPTV 서비스인 B tv UHD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모바일 IPTV 서비스인 옥수수(oksusu)를 통해 무선 디바이스로 다운로드 가능한 여러 TV 프로그램, 영화 및 기타 영상 등 광범위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옥수수(oksusu) 구독자는 90개 이상의 국내외 인기 생방송 TV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옥수수(oksusu)서비스에서 오리지널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 개발 업체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사의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의 수익은 2조 7,242억 원이었으며, 연결기준 영업 수익의 15.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커머스 사업

당사의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은 주로 자회사인 SK플래닛이 운영하는 마켓 플레이스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11번가는 당사 이커머스 사업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모바일 11번가는 순 방문자 수 기준 국내 1위 모바일 상거래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전체 연간 거래액(환불 금액을 제외한 고객 구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금전적 가치) 중 모바일 11번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2%에서 2017년 현재 61%로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당사 이커머스 서비스 사업의 수익은 1조 442억 원이었으며, 연결기준 영업수익의 6.0%를 차지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당사는 포털 서비스 및 기타 사업부문 등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보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다변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웹 사이트 www.nate.com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 할 수 있는 SK Communications의 'Nate'브랜드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자회사 Iriver가 제조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장치 'Astell & Kern' 브랜드를 제공하며, 주택 및 중소기업 전자 보안 및 기타 관련 경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NSOK을 통해 보안 및 네트워크 감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KT, LG U+ 및 네이버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스 One Stor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사 기타 사업 분야의 수익은 4,896억 원이었으며, 연결기준 영업 수익의 2.8%를 차지하였습니다.

2. 요약

당사의 무선통신 사업 부문의 주요 매출은 음성 통화료 및 데이터 서비스로 구성되는 월정액 통신 요금, 발신 음성통화 사용료, 무선 데이터 서비스 사용료, 부가서비스 요금, 그리고 다른 유선 및 무선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고객 및 가입자의 망 사용을 위해 당사에 지불하는 망 접속료로 구성됩니다. 이외에도 자회사인 피에스앤마케팅(PS&Marketing)의 무선 단말기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익원으로는 IoT 솔루션 및 플랫폼 서비스, 인공지능(AI) 솔루션 및 기타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유선통신 부문의 주요 매출은 유선전화,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및 IPTV를 포함한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의 월 정액 요금, 타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고객 및 가입자의 망 사용을 위해 당사에 지불하는 망 접속료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사업 부문의 매출은 당사 연결 기준 자회사인 SK플래닛 사업에서 파생되며, SK플래닛은 11번가 미니몰 판매자 수수료 (커미션 포함), 11번가 광고 수익 및 기타 커머스 솔루션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 부문의 주요 매출은 하드웨어 사업 부문에서 투사형 디스플레이기기 및 최고급 오디오 기기, 자회사 NSOK의 보안 사업, 자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의 포털 서비스 Nate의 광고 수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스의 판매 수수료를 통해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시된 요약 연결재무정보는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로부터 추출한 정보입니다. 요약 연결재무정보는 본 보고서에 기재된 연결재무제표와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요약 재무정보(연결 기준)

십억 원

	2017	2016	Change
손익계산서			
영업수익	17,520	17,092	2.5%
EBITDA ⁽¹⁾	4,784	4,603	3.9%
영업비용	15,983	15,556	2.7%
영업이익	1,537	1,536	0.1%
당기순이익	2,658	1,660	60.1%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33,428	31,298	6.8%
현금및현금성자산 ⁽²⁾	2,172	2,034	6.8%
부채총계	15,399	15,181	1.4%
이자지급성부채 ⁽³⁾	7,469	7,370	1.3%
자본총계	18,029	16,116	11.9%
재무비율(%)			
EBITDA 마진	27.3	26.9	0.4%p
영업이익율	8.8	9.0	-0.2%p
순이익율	15.2	9.7	5.5%p
부채비율 ⁽⁴⁾	41.4	45.7	-4.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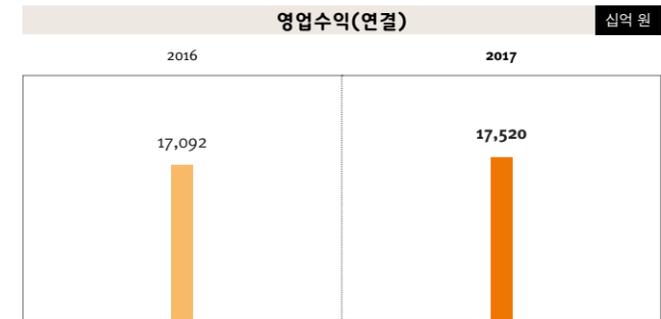
(1) EBITDA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R&D 감가상각비
 (2)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투자증권 + 단기금융상품
 (3) 이자지급성부채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사채 + 장기차입금
 (4) 부채비율 = 이자지급성부채 / 자본총계

2017년 영업수익은 17조 5,200억 원으로 2016년 영업수익인 17조 918억 원에 비해 2.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수익 및 무선 디바이스 판매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2017년 영업비용은 감가상각비와 수수료, 구성원 급여의 증가로 인하여 15조 9,834억 원을 기록하여, 2016년 15조 5,561억 원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의 증가는 영업수익의 증가를 상쇄하는 수준으로, 2017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1조 5,36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EBITDA 마진은 0.4%p 증가한 27.3%를 기록한 반면, 영업이익률은 0.2%p 감소한 8.8%를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1조 6,601억 원에서 2017년 2조 6,576억 원으로 60.1%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총계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31조 2,976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33조 4,287억 원으로 6.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20.1%의 지분권을 소유한 SK하이닉스의 이익 증가로 인해 관계사 및 합작 회사에 대한 투자 자산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부채총계는 이연법인세 부채 증가로 인해 2016년 12월 31일 기준 15조 1,812억 원에서 2017년 12월 31일 현재 1.4% 증가한 15조 3,99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본 총계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18조 291억 원으로 2016년 12월 31일 대비 11.9%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45.7%에서 2017년 12월 31일 41.4%로 감소하였습니다.

3. 수익

2017년 영업수익은 2016년 17조 920억 원에서 2.5% 증가한 17조 5,20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IPTV 가입자 수의 증가와 함께 월정액 요금이 높은 프리미엄 IPTV 가입자 수 증가 및 프리미엄 VOD 콘텐츠 소비 증가로 인한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수익 상황이 주요 요인입니다. 2017년 출시된 단말기의 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무선 디바이스 판매 수익의 증가 또한 영업수익 증가에 기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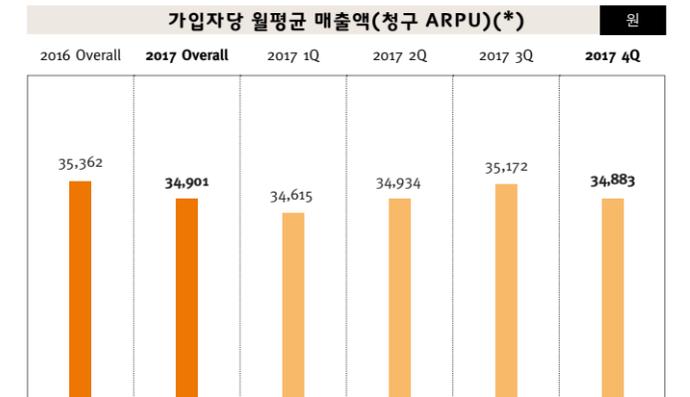
가입자 수 및 시장 점유율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약 6,265만 명으로, 121%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17년 연간 신규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했으며, 2017년 말에는 알뜰폰(MVNO) 가입자 포함 가입자 수가 약 3,020만 명에 도달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가입자 수 기준 MVNO 가입자 포함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49.1% 대비 0.9%p 감소한 48.2%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LTE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2,108만 명에서 2017년 12월 31일 기준 2,287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ARPU

SK텔레콤의 2017년 가입자 당 월평균 매출액(청구 ARPU)은 2016년 35,362원에서 1.3% 감소한 34,901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가입자 수의 증가 및 2017년 9월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매출이 감소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 2018년 3월 ARPU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전년도 보고세와 수치 상이함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수익은 주로 유선통신사업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016년 2조 9,430억 원에서 3.6% 증가한 3조 50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IPTV 가입자 수 증가 및 프리미엄 IPTV 정액제 가입자 수 증가, 프리미엄 VOD콘텐츠 판매량 증가에 따른 IPTV 서비스 수익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피에스앤마켓팅(PS&Marketing)의 수익은 주로 단말기 판매로 창출되며 2017년에는 2016년 1조 6,800억 원 대비 5.1% 증가한 1조 7,66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출시된 단말기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매출액이 상승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SK플래닛의 주 수익원은 11번가이며, 2017년에는 2016년 1조 1,709억 원 대비 약 8% 감소한 1조 8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SK플래닛의 이전 플랫폼과 T스토어 사업부가 2016년에 분사한 것에 주요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 해당 SK플래닛 매출액은 20-F 보고 기준으로, 2017 사업보고서 공시 기준과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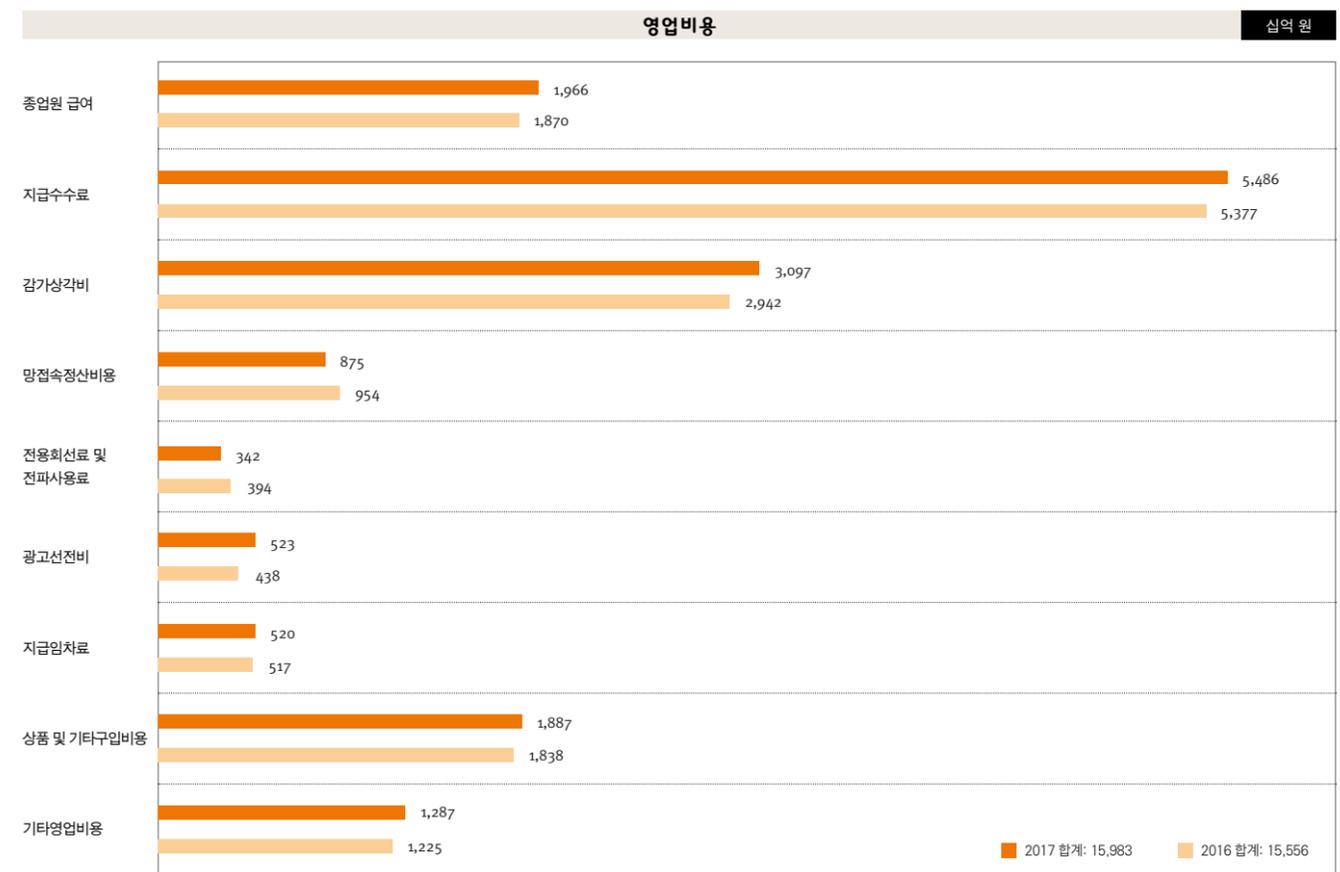
4. 수익성

손익계산서(연결 기준)		십억 원		
	2017	% of Revenue	2016	% of Revenue
영업수익	17,520	100.0%	17,092	100.0%
영업비용	15,983	91.2%	15,556	91.0%
인건비 ⁽¹⁾	1,966	11.2%	1,870	10.9%
지급수수료 ⁽²⁾	5,486	31.3%	5,377	31.5%
감가상각비 ⁽³⁾	3,097	17.7%	2,942	17.2%
망접속정산비용	875	5.0%	954	5.6%
전용회선료및전파사용료	342	2.0%	394	2.3%
광고선전비	523	3.0%	438	2.6%
지급임차료	520	3.0%	517	3.0%
상품및기타구입비용	1,887	10.8%	1,838	10.8%
기타영업비용	1,287	7.3%	1,225	7.2%
영업이익	1,537	8.8%	1,536	9.0%
금융수익	367	2.1%	575	3.4%
금융비용	434	2.5%	327	1.9%
자회사및관계사투자관련손익	2,246	12.8%	545	3.2%
기타영업외수익	32	0.2%	66	0.4%
기타영업외비용	344	2.0%	299	1.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403	19.4%	2,096	12.3%
법인세비용	746	4.3%	436	2.6%
당기순이익	2,658	15.2%	1,660	9.7%
EBITDA ⁽⁴⁾	4,784	27.3%	4,603	26.9%

(1) 인건비 = 급여 + 확정급여부채충당금
 (2) 마케팅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포함
 (3) R&D 관련 감가상각 제외
 (4) EBITDA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R&D 관련 감가상각비

영업비용

2017년 당사의 영업비용은 15조 9,834억 원을 기록하여, 2016년 15조 5,561억 원 대비 2.7%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5.2%의 감가상각비 증가와 2.0%의 지급수수료 증가, 5.1%의 근로자 급여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감가상각비의 증가는 2016년 당사가 인수 및 재승인 받은 특정 대역폭 사용권을 2016년에는 부분 상각한 것에 비해 2017년 전체 상각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2017년부터 판매 관리 IT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상각을 시작한 것 또한 감가상각비 증가에 기인합니다. 수수료 증가는 당사의 무선 서비스 관련 마케팅 비용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이나, 이커머스 서비스 마케팅 비용 감소, 2017년 발급받은 할인 쿠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영향 및 홈앤서비스(Home & Service) 설립에 따른 수수료 감소 등으로 인해 일부 상쇄된 수치입니다. 인건비 증가는 2017년 6월, 유선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정용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홈앤서비스(Home & Service) 설립과 관련하여 급여 지급

인력이 추가된 것에 기인합니다. 홈앤서비스(Home & Service) 설립하기 전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3자 공급업체에 아웃소싱해왔으며, 관련 비용은 지급수수료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영업이익 및 EBITDA

영업수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영업비용의 증가로 인해 2017년 영업이익은 2016년 1조 5,357억 원 대비 0.1% 증가한 1조 5,36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EBITDA 마진 또한 0.4%p 증가한 27.3%를 기록한 반면, 영업이익률은 0.2%p 감소한 8.8%를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및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은 2016년 5,751억 원에서 36.3% 감소한 3,66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2월 로엔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분 15.0%의 매각 및 같은 해 11월 포스코에 대한 1.4%의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장기투자증권 처분 이익이 2016년 4,593억 원에서 2017년 49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당사가 보유한 블루홀이 발행한 전환 사채 우선주 40억 원에 대한 가치 평가와 관련한 파생상품 가치 평가 이익이 2,239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금융비용은 2016년 3,268억 원에서 32.7%가 증가한 4,33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블루홀의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지급된 관리 수수료 등의 금융 비용 증가와, 앞서 언급한 로엔 엔터테인먼트 지분 15.0%에 대한 처분으로 수취한 주식회사 카카오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실이 주요 원인입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 이익은 2016년 5,445억 원에서 2017년 312.4% 증가한 2조 2,457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당사가 2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배당 증가에 기인합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2016년 663억 원에서 2017년 318억 원으로 52.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기 지불한 벌금이 2016년 환급됨에 따른 기저효과에서 비롯됩니다. 기타 영업외비용은 2016년 2,986억 원에서 2017년 3,439억 원으로 15.2% 증가하였으며, 이는 SK커뮤니케이션즈 관련 영업권 감액손실이 주요 원인입니다.

법인세

법인세 비용은 2016년 4,360억 원 대비 2017년 7,457억 원으로 71.0%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전 이익이 전년 대비 62.4%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당사의 유효세율은 2016년 20.8% 대비 1.1%p 증가한 21.9%를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앞서 언급된 요인들로 인해, 당사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1조 6,601억 원 대비 60.1% 증가한 2조 6,57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순이익률은 2017년 15.2%로 2016년 9.7%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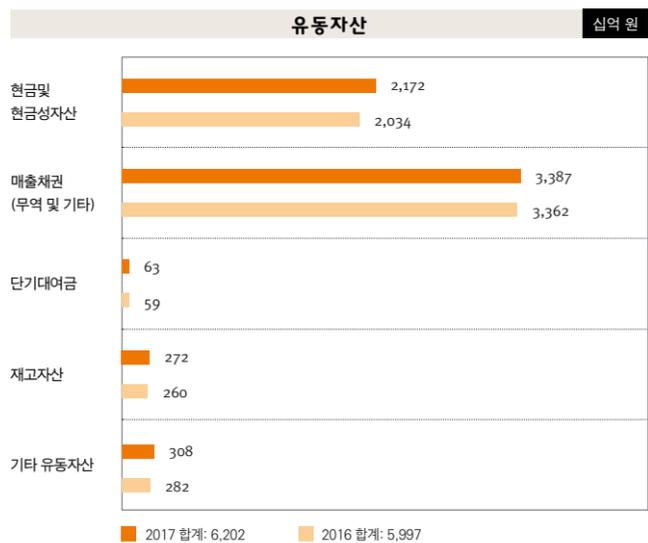
5. 재무구조(*)

유동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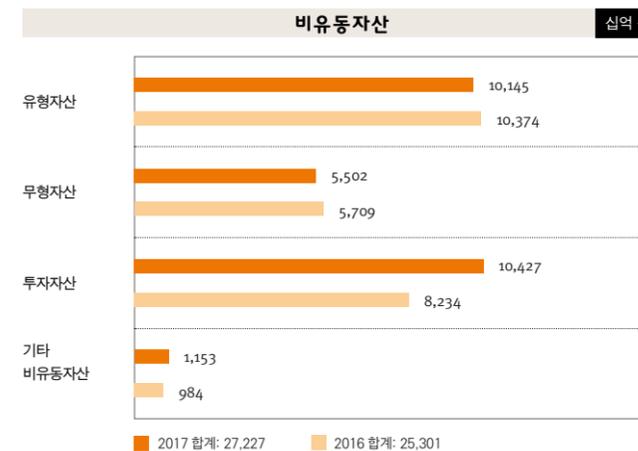
2017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유동자산은 6조 2,018억 원으로, 2016년 5조 9,966억 원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단기금융상품 증가로 인해 2016년 12월 31일 기준 2조 340억 원에서 6.8% 증가한 2조 1,71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채권(무역 및 기타)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3조 3,624억 원에서 2017년 12월 31일 기준 3조 3,868억 원으로 0.7% 증가하였습니다.

비유동자산

2017년 12월 31일 당사의 비유동자산은 27조 2,269억 원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25조 3,010억 원보다 7.6% 증가하였으며, 이는 투자자산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당사의 투자자산은 당사가 20.1%의 지분을 보유한 SK하이닉스의 공정가치 상승으로 인해 2017년 12월 31일 10조 4,267억 원을 기록하여 2016년 12월 31일 8조 2,338억 원 대비 26.6%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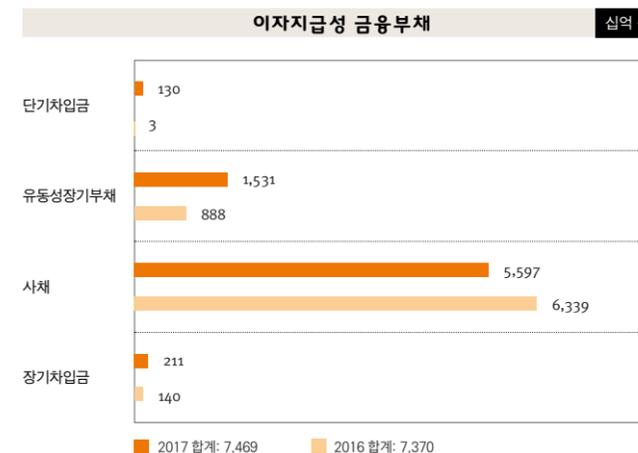


(*)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의 계정과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F 보고 기준으로, 당사 사업보고서의 분류 기준과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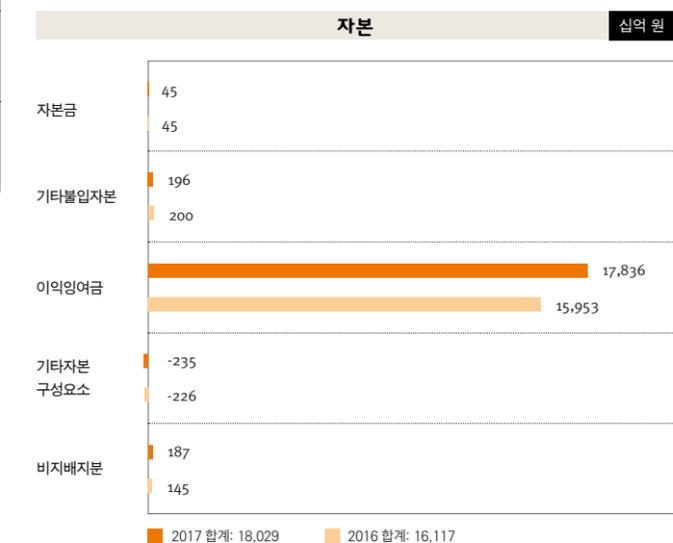
부채

2016년 12월 31일 당사의 부채총계는 15조 1,812억 원으로, 이연법인세 부채의 증가로 인해 2017년 12월 31일 전년 대비 1.4% 증가한 15조 3,99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자지급성 부채는 2016년 12월 31일 7조 3,697억 원에서 2017년 12월 31일 현재 1.3% 증가한 7조 4,69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당사의 부채비율은 41.4%로 나타났으며, 2016년 같은 시기의 부채 비율은 45.7%였습니다.



자본

2017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자본총계는 18조 292억 원으로, 2016년 12월 31일 대비 11.9%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익잉여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6. 투자 지출(별도 기준)

SK텔레콤은 2017년 약 1조 9,839억 원을 투자 지출에 사용하였으며, 2016년 1조 9,637억 원의 투자 지출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총 투자지출의 57.0%인 약 1조 1,318억 원을 LTE네트워크 품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였으며, 기타 네트워크 외 지출로는 당사의 정보 기술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 신제품 개발 등에 3,86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비재무 성과표

SECTION 1. 인적 자본

MD&A	2015	2016	2017	
1.1 총 고용 현황	총 고용자 수	4,046	4,399	4,516
	해외사업장 근무자 수	79	73	49
	특별고용 및 마이내리티	186	190	182
1.2 채용 및 이직	총 신규채용 수	563	734	466
	총 이직자 수	681	359	284
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자 수	170	185	142
	육아휴직 사용자 수	48	42	35
1.4 인적 자본 향상	인당 교육 투자비 (*) (백만 원)	2.84	2.03	1.91
	연간 교육과정 참가자 수 (**)	17,125	17,303	16,201
	구성원 성과 평가 비율 (%)	96	98	99
1.5 임직원 몰입도	임직원 몰입도 (%)	89	90	88
1.6 노동 관행	노동조합 - 가입비율 (%)	85.0	87.3	88.7
1.7 건강 · 안전 및 웰빙	산업 재해자 수	0	1	1

(*) 인당 교육투자비 = 교육실적 (전사 교육훈련비 + 부문 교육훈련비) / 정규직 구성원 수

(**) 사외 교육 과정을 제외한 SK텔레콤 자체 교육과정 기준

SECTION 2. 사회 자본

MD&A	2015	2016	2017	
2.1 서비스 접근성	LTE 가입자 비율 (%)	66.3	71.2	75.7
	특별계층 요금감면 총액 (백만 원)	188,453	190,413	197,890
	ICT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1,404	758	588
	통신서비스 취약지역 설치 - 산간오지 (개소)	5,182	3,195	6,737
2.2 네트워크 품질관리	무선통신 회선보유능력 (회선 수, 천 개)	36,160	39,620	45,210
	연간 처리 데이터 트래픽 (*) (TB)	838,775	1,208,543	1,611,711
	대형 통신장애 사건 발생 건수 (**)	1	0	0
2.3 연구개발 투자	R&D 비용 (***) (십억 원)	585.7	640.9	638.0
	R&D 인력 수	998	1,248	1,376
2.4 고객 만족 및 안심	고객만족도 (NCSI, 한국생산성본부)	76	76	77
	소액결제 VoC 발생률 (%)	0.026	0.014	0.009
2.5 고객정보 보호	고객 정보 유출 건 수	0	0	0
	전체 유통망 대비 점검 비율 (****) (%)	100	100	100
2.6 전자파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 건수	37,504	23,535	38,782
	전자파 등급제 1등급 무선국 비율 (%)	99.9	99.9	99.9

(*) 2015년 수치는 이동전화(2G/3G/4G) 기준이며, 2016년 및 2017년 수치는 이동전화(2G/3G/4G), Wibro, WiFi를 모두 포함한 기준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대형 통신장애 발생 건 수 기준: 교환기 1식 이상 장애, 동일 시/군/구내 기지국 10국소 이상 장애, 또는 이와 동등 규모 이상 장애 발생 시 정부에 보고

(***) R&D 비용은 순수 R&D(네트워크 인프라, 마케팅 인프라, 신성장 사업) 비용 및 R&D성 투자(AI 사업/디바이스 등, 지분투자), 성장사업투자(CAPEX, OPEX), 조직비용을 합산하였음

(****) 연도별 점검 현황은 p.124 참고

SECTION 2. 사회 자본

MD&A	2015	2016	2017	
2.7 협력회사 동반성장	동반성장협약 체결 (개사)	325	376	278
2.8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총 신규 협력회사 등록 수	706	725	615
	신규 업체 사전 스크리닝 비율 (%)	100	100	100
	총 등록 협력회사 수	2,346	1,881	1,444
	공급망 ESG 평가 시행 협력업체 비율 (%)	67	92	93
2.9 지역사회 투자 (*)	벤처 육성 지원 (팀)	31	55	38
	기브유(Give U) 모금 (백만 원)	142	202	300
	위드유(With U) 등록 일감 (건)	26,765	77,024	24,332
2.10 공공정책 참여	직접 정치 기부금 (**)(백만 원)	0	0	0

(*) 2017년부터 누적 기준이 아닌 연간 기준 데이터를 보고함

(**) 직접 정치 기부금: 로비 기관/로비스트, 정치 캠페인 및 선거자금, 정당/정치 단체/정치인, 무역 협회 혹은 비과세그룹에 대한 기부 및 지원

SECTION 3. 환경 자본

MD&A	2015	2016	2017	
3.1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총 배출량 (tCO ₂ e)	686,118	828,073	875,401
	온실가스 집약도 (tCO ₂ e/십억 원)	54.64	67.05	70.21
3.2 에너지 사용	총 에너지 소비량 (TJ)	14,081	17,012	17,983
	에너지 집약도 (TJ/십억 원)	1.1	1.4	1.4
3.3 용수 사용	용수 사용량 (m ³)	757,658	712,910	713,744
	용수사용 집약도 (m ³ /십억 원)	60.34	57.72	57.25
3.4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 (톤)	1,928	1,691	1,562
	폐기물 배출 집약도 (톤/십억 원)	0.154	0.137	0.125
	재활용률 (%)	35	35	40
3.5 자원 사용	신규 전자청구서 가입률 (%)	83.9	87.0	87.6
	신규 T멤버십 모바일 카드 발급률 (%)	97	98	99
	단말기 회수율 (%)	3.6	3.1	1.8
3.6 환경 지출 및 투자	총 환경 원가 (백만 원)	709	754	702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 (백만 원)	-	1,316	1,833
	녹색구매 비용 (백만 원)	89,125	45,150	36,706

비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BASIS OF PREPARATION

보고 기준 및 원칙

비재무 성과에 대한 본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Non-Financial Management Discussion & Analysis, MD&A)은 인적 자본, 사회 자본, 환경 자본 등 비재무 측면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보고 기간 동안 당사의 핵심적인 성과에 대해 경영진의 분석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비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은 다음의 국제적 보고 기준과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1 국제통합보고위원회의 <IR> 프레임워크 국제통합보고위원회의 <IR> 프레임워크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배경(Context) 하에서 조직의 전략, 거버넌스, 성과와 미래 전망이 조직의 단기·중기·장기적 가치 창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간결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국제통합보고위원회의 통합보고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자본 모델(Capital Model)은 pp.35-36, 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중요 주제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성 평가는 pp.45-48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 Global Reporting Initiatives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GRI Standards
GRI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의 성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 주제(Topic)과 공시(Disclosur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GRI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조직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각 측면의 연관성에 따라 보고 주제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GRI 요구사항에 따른 중요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는 pp.45-48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3 Accountability의 AA1000 AA1000 시리즈는 조직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이슈를 발견하고 우선순위화하며, 이에 대응하는 프레임워크와 원칙을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의 정보는 AA1000AS(Assurance Standard)에 따른 제3자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검증기관의 제3자 검증 의견서는 pp.132-134를 참조해 주십시오.

참고 기준

1 UNGC COP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UNGC가입 기관이 UNGC 10대 원칙 준수 현황 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2 ISO26000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2010년 11월 발표한 책임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

3 CDSB Reporting Framework 기후정보공개표준화위원회(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 Board)가 2010년 9월 공개한 탄소 정보공개 표준

4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 Telecom-communication Standards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가 2014년 4월 공개한 통신 사업 핵심 이슈 및 주요 성과 지표

데이터 범위

본 비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내 제시된 비재무 정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자회사 및 공급망을 포함하지 않은 'SK텔레콤'의 범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지배기업인 SK텔레콤의 별도기준 매출 발생 범위와 일치하는 데이터 범위입니다. 에너지, 온실가스, 폐기물, 용수 등 환경 데이터는 SK텔레콤의 28개 국내 사업장*(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매출 99%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함된 데이터 커버리지는 매출 대비 99% 이상 기준을 만족합니다.

* 28개 사업장(타워, 남산, 구로, 장안, 서울대, FMI, 용인, 보라매, 성수, 수유, 인천, 분당, 둔산(신·구), 부산, 청주, 원주, 태평, 본리, 신천, 부암, 데이터센터, 안락, 우산, 송정, 전주, 제주, 중동, 명륜)과 네트워크요엔스, 콜센터(서비스탑 & 서비스에이스)를 포함함

SECTION 1. 인적 자본 (HUMAN CAPITAL)

1.1 총 고용 현황

총 고용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총 직원 수는 SK텔레콤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인원으로, SK텔레콤의 관계회사와 자회사에 소속된 인원 및 임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기 성장동력 확보 및 역량 내재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노력으로 2017년 말 기준 총 직원 수는 2016년 대비 2.59% 증가한 4,516명입니다.

주요 다양성 지표인 여성 비율은 2017년 전년 대비 0.4%p 증가한 14.3%로 나타났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11.1%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비율은 97.5%수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마이너리티 부문 고용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의 경우 가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별도 채용 인원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신규 채용 인력의 감소로 2017년 국가 보호자 인력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장애인 고용 숫자는 전년과 유사한 5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력의 경우 해외파견 및 현지인 고용을 포함한 해외 사업장 총 고용자 수는 49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해외 인력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해외 사업장 관리자 중 현지인 관리자 비율은 36.4%로, 2014년 30%를 넘어선 이후 일정 비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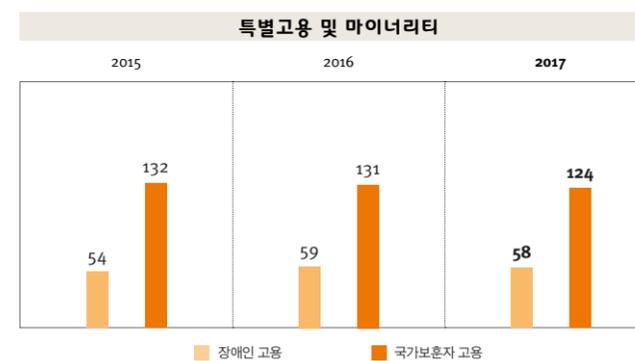


		2015	2016	2017	
총 직원 수	명	4,046	4,399	4,516	
고용형태별	정규직	명	3,925	4,242	4,403(*)
	비정규직	명	121	157	113(**)
성별	남성	명	3,504	3,789	3,872
	여성	명	542	610	644
연령별	30세 미만	명	326	405	378
	30세 이상 50세 미만	명	3,533	3,707	3,709
	50세 이상	명	187	287	429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정규직 남성 구성원 수 3,817명, 정규직 여성 구성원 수 586명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비정규직 남성 구성원 수 55명, 비정규직 여성 구성원 수 58명

		2015	2016	2017
해외 파견자 수	명	20	20	15
현지인 고용자 수	명	59	53	34
해외사업장 총 근무자 수	명	79	73	49
해외사업장 총 관리자 수	명	15	15	11
현지인 관리자 수	명	5	5	4
현지인 관리자 비율(%)	명	33.3%	33.3%	36.4%



	2015	2016	2017
여성 비율(*)	13.4	13.9	14.3
여성 관리자 비율(**)	9.5	9.9	11.1

(*) 총 고용 직원 수 대비 여성 인력 비율

(**) 총 관리자(주니어급 이상 관리자 및 임원 포함) 수 대비 여성 관리자 비율

1.2 채용 및 이직

연령별·성별 신규 채용 인원 수 및 이직자 수는 SK텔레콤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SK텔레콤의 관계회사 및 자회사에 소속된 인원 및 임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의 2017년 총 신규채용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6년 New ICT 기업으로 전략 수립 후 성장 사업의 인력확대 노력에 따른 인적 자본의 일시적 확대에 의한 상대적인 변화로, 2017년 수치는 예년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5G, 자율주행 등 성장영역 관련 인력의 채용 및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신규채용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2017년 총 이직률은 6.3%로 전년 대비 2.4%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의 자회사/투자회사 이관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이직률이 점차 사업의 방향성을 확정하고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SK텔레콤은 유연근무제(Flexible Time), 자녀출산 및 육아 지원, 장기근속자 안식(Refresh) 휴가, 단독주거 사택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고용 확대와 업무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	2016	2017	
총 신규채용	명	563	734	466	
성별	남성	명	421	593	349
	여성	명	142	141	117
연령별	30세 미만	명	296	283	181
	30세 이상 50세 미만	명	259	414	268
	50세 이상	명	8	37	17

		2015	2016	2017	
총 이직자	명	681	359	284	
성별	남성	명	467	289	202
	여성	명	213	70	82
연령별	30세 미만	명	180	133	120
	30세 이상 50세 미만	명	351	178	148
	50세 이상	명	149	48	16

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SK텔레콤은 구성원의 출산·육아 부담 저감 및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 휴직뿐만 아니라 임신 및 육아 기간 중 단축근로제, 출산 및 육아 휴가자 평가 불이익 배제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모유수유실, 출산 축하 경조금, 자녀학자금 지원, 사내 어린이집 운영, 유연근무제도, 자녀캠프 지원 등의 다양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임신기 전 기간에 대해 단축근무를 의무화하고, 임신 중 재택근무 제도, 입학자녀 돌봄제도를 신설하여 구성원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녀 1인 당 최대 1년의 휴직 기간을 제공합니다. 여성 구성원의 경우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최대 2년(출산휴가 포함)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내 출산률 감소로 인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률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2.9%로 전년 대비 6.2%p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임직원에 대한 일자리 보장과 관련된 주요 지표인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2017년 97.6%로 전년대비 4.7%p 증가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15	2016	2017
출산휴가 사용자 수	명	170	185	142
출산휴가 사용 - 여자	명	133	20	22
출산휴가 사용 - 남자	명	37	165	120
출산 후 복귀율	%	100	100	100
육아휴직 사용자 수	명	48	42	35
육아휴직 사용 - 여자	명	43	35	27
육아휴직 사용 - 남자	명	5	7	8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율	%	79.2	92.9	97.6
복귀 후 12개월 이내 퇴사율 (%)	%	30.8	5.3	7.1

1.4 인적 자본 향상

SK텔레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인재 육성 방식의 변화와 확장 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7년 기존의 전통적 인재 육성과 채용 프로세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재개발원'을 '역량·문화그룹'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ICT환경과 심화되는 인재 확보 경쟁에서 인적 자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1) New ICT 역량개발, 2) Tech. 리더십 & Culture, 3) 공유·협력 기반의 역량 강화 및 내재화의 3대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 등 New ICT 분야의 육성을 위해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내·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커리큘럼개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New ICT 아카데미를 수립하여 기술전문가를 양성하였습니다. 최신 콘텐츠를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SK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를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Tech. 리더십 & Culture 영역에서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인사이트·인식을 높이기 위해 리더 대상의 Tech Leadership육성 과정을 개설, New ICT Insight 세미나를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직 단위의 비즈니스 모델 인큐베이션 및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인텐시브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 및 운영하는 한편,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의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스타트 프로그램(Start@Program)을 런칭하여, 보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유 협력 기반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스타트업·전문 연구기관 등과 다양한 협업 활동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대학 산학협력으로 인공지능(AI) 커리큘럼 개발 및 과목 개설, AI Fellowship 등을 도입하여 인재 발굴·양성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벤처·스타트업은 물론 경쟁사들까지 함께 참여하여 상호 기술을 교류 하고 공유하는 인공지능(AI) 심포지움, 최신 논문 연구회(T-TOC 프로그램) 등을 기획 및 시행하여 New ICT 인재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3대 과제의 시행을 통해 2017년 SK텔레콤의 총 인당 교육 투자 시간은 전년대비 약 38% 증가한 108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연간 교육과정 운영 수의 경우, 기술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신규 개설로 인해 전년대비 약 2.1배 증가한 281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본 향상 모멘텀을 기반으로 2018년 SK텔레콤은 기존 3대 과제를 더욱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인재 개발을 통한 사업의 혁신과 성장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임직원 교육 현황				
		2015	2016	2017
인당 교육 투자비(*)	백만 원	2.84	2.03	1.91
인당 연평균 교육 시간(**)	시간	82	68	108
연간 교육과정 운영 수(***)	개 과정	98	133	281
연간 교육과정 참가자 수(***)	명	17,125	17,303	16,201

(*) 인당 교육투자비 = 교육실적 (전사 교육훈련비 + 부문 교육훈련비) / 정규직 구성원 수
 (**) 인당 연평균 교육 시간 = 각 종류별 교육시간의 합(각 개발 과정의 교육시간 x 참가자 수) / 정규직 구성원 수로, 사내 및 사외 과정을 모두 포함한 총 교육시간 기준
 (***) 사외 교육 과정을 제외한 SK텔레콤 자체 교육과정 기준

성과평가 비율은 전체 임직원 중 사전 정의된 성과평가 제도에 따라 성과평가를 받은 임직원 수를 의미합니다. SK텔레콤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구성원 성과평가 시행률 99%를 기록,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SK텔레콤은 구성원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상호 협업에 기반한 실질적인 성과 개선과 구성원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내부경쟁을 지양하고자 강제 비율 할당 방식의 상대평가를 완전 폐지하고, 절대평가 기반의 비등급형(No-Rating) 성과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연말평가에 치우친 정기적/집단지적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Task 단위의 개별화된 연간 상시 성과관리를 통해 실질적 성과개선 활동을 진작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상대평가 등급과 강하게 연계되어 온 보상/승진/핵심인재선발 등은 사전에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강화된 인재 리뷰 세션을 통해 조직별로 자율적으로 관리·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성과평가 수행 비율			
	2015	2016	2017
구성원 성과 평가 비율	96	98	99

1.5 임직원 몰입도

SK텔레콤은 임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임직원 몰입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몰입도는 '자발적·의욕적 두뇌활용(VWBE, Voluntarily & Willingly Brain Engagement)의 실천',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 '일에 대한 보람 및 성취감'을 측정하며, 연 1회(매년 8월 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몰입도 수준은 각 설문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률로 결과가 도출됩니다. 2017년은 신규 CEO 부임을 포함한 조직 내외의 많은 변화로 인해 임직원 몰입도가 저해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비즈니스·구성원·문화에 대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 전달을 기반으로 성장을 위한 변화를 추진한 결과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임직원 몰입도가 도출되었습니다. 2017년 임직원 몰입도 조사는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총 2,727명의 구성원이 응답하였습니다. 응답 결과 2017년 SK텔레콤의 임직원 몰입도는 88%를 기록하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구성원의 몰입도가 89%(응답자 수 2,464명), 여성 구성원의 몰입도가 80%(응답자 수 263명)를 기록하였습니다.

임직원 몰입도			
	2015	2016	2017
임직원 몰입도 조사 결과	89	90	88

1.6 노동관행

SK텔레콤은 ILO 협약 87, 98 및 국내 노동법에 의거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SK텔레콤의 임직원들은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대상 구성원 중 현재 노동조합 가입 비율로 계산되는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2017년 말 기준 88.7%로, 지난 3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유지·강화 기조 하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구성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노동조합은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2017년 임금 조정에 대해 SK텔레콤에 임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구성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시간 TF를 구성하여 비연고지 근무자의 단신근무수당을 증액하고, 주말교통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현황				
	2015	2016	2017	
노동조합 대상 구성원 수	명	2,316	2,479	2,523
노동조합 가입 구성원 수	명	1,968	2,164	2,238
노동조합 가입 비율(%)	%	85.0	87.3	88.7

1.7 건강·안전 및 웰빙

SK텔레콤은 구성원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및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내 적정 온도, 습도, 조도, 소음 등을 관리 및 유지하고 있으며, 사내 체력단련 공간인 액티움(Actium)과 헬스온(Health-On)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력증진과 정신건강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자율결정(Flexible Time) 제도, 임신 중 재택근무 제도 등을 시행하고, 법적 규정 이상의 출산·육아 휴직 제공, 양육 지원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주 선택근무제, Super Friday(월 1회 3번째 금요일 오후 3시 퇴근 제도) 등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 및 임직원 일과 업무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 건강 지표인 Health-On Index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의 건강을 진단한 결과, 2016년 대비 평균 건강나이 42세에서 41세로 1세 감소, 평균 건강 점수는 71.9점에서 74점으로 2.1점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개선사항으로 건강위해요인으로 비만 및 식습관 불균형, 활동량 부족이 도출되어,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연계 건강코칭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성원 건강·웰빙 프로그램	
유형	주요 프로그램 및 지원 내용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도 및 습도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및 월 2회 측정. 공조기 및 배기팬 가동, 출근 시간 전 일광 환기를 통해 업무환경 내 분진/CO₂ 관리. 조도 및 소음 기준 관리 (조도 500Lux 이상 / 소음 60dB 이하 기준에 따라 연간 정기 측정 시행, 오피스 기준) 사옥 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업무 공간(높이 조절형 데스크, 형태변형 의자, 오픈 스탠딩회의실 등) 및 확대해 나갈 계획임
체력 및 신체 단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옥 내 구성원 체력단련 공간인 액티움을 운영. Health-On 프로그램을 통해, 1:1 맞춤형 운동지도 제공 및 오프라인 자세 측정과 온라인 코칭을 결합한 O2O(Online to Offline)통합 솔루션 제공
영양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 카페테리아(T-Patio)를 운영하여 균형잡힌 식습관 함양 지원 Health-O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학전문가를 초빙하여 질병 및 영양 관련 건강 콘서트 등 진행
스트레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Health-On Index 건강진단을 통해 구성원의 건강 이슈 파악 및 관리 구성원 심리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 'My Counselor' 운영(업무 스트레스 및 애로사항, 건강, 개인상담 등 제공) 액티움 Health-On 정신건강 프로그램(마음건강 레터, 건강강좌, 웃음운동, 힐링요가 등) 운영
근무 시간 유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퇴근 시간 자율결정(Flexible Time)제도 운영 선택근무제 도입(2주 80시간 내 자율적 근무시간 등록 및 몰입근무)
재택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전사 구성원 업무환경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디바이스로 가상 PC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PC로 전환하여, 사외(자택)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업무 기반 마련 임신 중 재택근무 제도(임신 29주 이후, 협의·신청)
육아 및 자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 어린이집 운영, 자녀학자금 지원(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자녀캠프 지원 등 다양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 실시
출산·육아 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초 기간 월 6시간 근무 출산 휴가: 출산 전후 90일, 생애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5일(전체 유급) 휴가 제공 육아 휴직: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1년의 유급 육아 휴직을 제공하며, 여성 구성원의 경우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추가 1년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최대 2년) 육아휴직 자동전환 제도: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육아휴직과 연결하여 사용 가능 입학자녀 돌봄 휴직: 초등학교 입학년도 연 1회, 90일 제공

SECTION 2. 사회 자본 (SOCIAL CAPITAL)

2.1 서비스 접근성(Access to Service)

SK텔레콤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는 가입자 확보 및 유지, 모바일 디바이스 확대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 장애인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확대(Digital inclusion)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 접근성 향상 노력은 고객만족도 상승, 해지율 하락 등 가입자 기반을 강화하여 매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LTE 가입자 비율, 2nd 디바이스 가입자 수 등은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입니다. 2017년 SK텔레콤의 LTE 가입자 비율은 75.7%로, 전년대비 4.5%p 증가하였습니다. 2nd 디바이스 영역에서는 T키즈폰, T아웃도어, T포켓파이 등 고객 니즈를 파악한 차별화된 상품 출시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7년 2nd 디바이스 가입자 수는 약 102만 명을 기록하여,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자수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	2016	2017
LTE 가입자 비율	%	66.3	71.2	75.7
총 가입자 수	천 명	28,626	29,595	30,195
LTE 가입자 수	천 명	18,980	21,078	22,865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SK텔레콤의 2017년 요금 감면 총액은 1,979억 원으로 2017년 12월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2015	2016	2017
특별계층 요금감면 총액	188,453	190,413	197,890
특별계층 요금감면 - 장애인	122,462	123,187	127,224
특별계층 요금감면 - 저소득층	56,058	57,068	60,074
특별계층 요금감면 - 국가유공자	9,800	10,032	10,507
특별계층 요금감면 - 기타	133	125	85

(*) 2017년 분류기준 변동: 2017년부터 국가유공자 중 청각/언어장애인을 국가유공자로 분류하였으며, 장애인복지단체와 중도해지자 등은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함

SK텔레콤은 정보 접근성 취약 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완화하기 위해 당사의 ICT 역량을 활용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및 ICT 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Sunny)'와 함께 어르신을 위한 모바일폰 활용 교육 프로그램 '세대공감! 행복한 모바일 세상'을 운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휴대폰 활용 교육, 장애청소년 ICT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CT 메이커톤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스마트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1 스마트폰 활용 교육 '세대공감! 행복한 모바일 세상'을 기반으로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영상제 '이음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스마트폰 사각지대에 놓인 실버세대의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SK텔레콤은 2020년까지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누적 참여 인원 17,332명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ICT 정보격차 해소를 기반으로 더 많은 고객들에게 편의와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에는 초등학교 스마트 로봇 활용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등 일부 프로그램 종료로 인해 ICT 정보격차 해소 교육 총 참여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588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ICT 메이커톤	북한이탈주민 휴대폰활용 교육
프로그램 별 참여자 수	432	112	44

이와 더불어, SK텔레콤은 산간오지나 도서 지역 등 통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을 위해 통신 제공 지역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취약지역의 통화품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체감 통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국내 이동통신사 중 농어촌 통신 품질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5	2016	2017
통신서비스 취약지역 설치 - 산간오지	개소	5,182	3,195	6,737
통신서비스 취약지역 설치 - 등산로	개소	75	217	520
통신서비스 취약지역 설치 - 도서 지역	개소	392	237	358

2.2 네트워크 품질관리

SK텔레콤은 이동통신(MNO) 영역의 리더십을 넘어, 당사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New ICT 생태계 선도 사업자로의 도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품질 제공은 본원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당사의 기반 자산이며, 이를 위해 당사는 우수한 품질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투자 및 지속적 품질 향상 노력과 함께 기술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사의 연간 무선통신 회선보유능력은 4,521만 회선으로, 총 가입자수인 3,020만 명의 150%에 해당하는 보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 데이터 트래픽은 2017년 전년대비 33.4% 증가하는 등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정확한 수요 예측과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최상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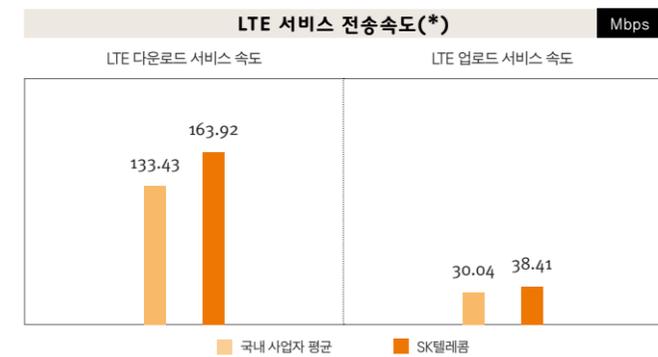
		2015	2016	2017
무선통신 회선보유능력(회선 수)	천 개	36,160	39,620	45,210
연간 처리 데이터 트래픽(*)	TB	838,775	1,208,543	1,611,711

(*) 2015년 수치는 이동전화(2G/3G/4G)기준이며, 2016년 및 2017년 수치는 이동전화(2G/3G/4G), Wibro, WiFi를 모두 포함한 기준임



SK텔레콤은 LTE 전송 속도 측면에서 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가장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선정된 이래로, 2016년 역시 국내 통신 사업자 평균을 상회하는 전송 속도를 기록하며 타사 대비 네트워크 품질 우위를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가장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년보다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 확보한 2.6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5 Band CA(Carrier Aggregation) 및 4T4R(4안테나 기술) 등의 기술 적용을 통해 경쟁사 대비 우수한 네트워크 품질 및 커버리지 제공을 통해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2016년 500Mbps 속도의 LTE-A프로 서비스를 국내 최초 상용화한 것에 이어, 2017년 900Mbps급 LTE를 제공하였으며, 2018년 1Gbps까지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며, 업계 내 최고 수준의 LTE 서비스 품질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네트워크 장애는 개별 통신 기업에게는 비즈니스 연속성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장애가 나타날 경우 경제 사회 시스템의 일시적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품질 유지와 서비스 장애율을 최소화 하는 것이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업계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SK텔레콤은 2017년 지속적인 서비스 우회 자동화 솔루션 확대, 철저한 고장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과 함께, 네트워크 품질 자동 최적화 및 이상 징후 감시 기능 적용 등을 통해 서비스 장애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기준 대형 통신 장애 발생 건수는 0건을 기록하였습니다.

	2015	2016	2017
대형 통신장애 발생 건수(*)	1	0	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대형 통신장애 발생 건 수 기준: 교환기 1식 이상 장애, 동일 시/군/구 내 기지국 10국소 이상 장애, 또는 이와 동등 규모 이상 장애 발생 시 정부에 보고

2.3 연구개발 투자

SK텔레콤은 5G 인프라 기반의 New ICT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 개발 투자 확대 기조 하에 네트워크 인프라, 마케팅 인프라 투자를 비롯하여 5G, 인공지능(AI), IoT/Data 등 ICT 융합 시대의 성장을 견인할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투자비용 지출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6,38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인력 확보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17년 R&D 인력은 총 1,376명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5G, 자율주행 등 연구개발 인력 총원과 IoT/Data 등 핵심 성장사업 관련 인력 확대 등에 기인합니다.

R&D 투자 현황				
		2015	2016	2017
R&D 비용(*)	십억 원	585.7	640.9	638.0
R&D 인력	명	998	1,248	1,376

(*) R&D 비용은 순수 R&D(네트워크 인프라, 마케팅 인프라, 신성장 사업) 비용 및 R&D성 투자(AI 사업/디바이스 등, 지분투자), 성장사업투자(CAPEX, OPEX), 조직비용을 합산하였음

CAPEX				
		2015	2016	2017
CAPEX 총계		1.9	2.0	2.0
Network CAPEX		1.4	1.5	1.6
Non-Network CAPEX		0.5	0.5	0.4

2.4 고객 만족 및 고객 안심 지표

SK텔레콤은 최고의 고객가치를 지향하는 선제적 CEM(고객경험관리,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을 통해 중장기 관점에서 고객 로열티 제고를 달성해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3대 고객만족도(NCSI, KCSI, KSSQI) 1위, 국내 최초 NCSI 21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연 2회 SK텔레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기 CSI 평가 결과 2017년 고객만족도는 78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CSI, Customer Satisfaction Index*)					
	2015	2016	2017	2018	
SK텔레콤 정기 CSI 결과(**)	76	77	78	-	
NCSI (한국생산성본부)	76	76	76	77	21년 연속 1위
KCSI (한국능률협회)	75.7	78.4	80.2	-	20년 연속 1위
KS-SQI (한국표준협회)	74.5	72.5	74.2	-	18년 연속 1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방송통신위원회)			매우우수등급		

(*) 100점 기준
(**) 연 2회 (상/하반기) 시행되는 SK텔레콤 자체 CSI 평가 결과의 연간 평균 점수

2017년에는 당사 이동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프라·인공지능(AI)·미디어 관련 다양한 고객 진단을 시행하고, 고객 관점의 인사이트와 개선사항을 전자 고객중심경영 회의를 통해 사업부서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2017년 3대 대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76.8점의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안심하고 당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요금폭탄(Bill Shock) 방지, 개인정보보호, 자녀안심, 스팸 및 스미싱 등 불법 사기성 메시지 근절 등을 중심으로 고객안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안심지표인 소액결제 VoC 발생률은 연간 소액결제 건수 대비 소액결제 불만 VoC 건수를 의미합니다. 소액결제 VoC 발생률은 매년 현저히 감소하여 2017년에는 0.009%를 기록하였습니다.



2.5 고객 정보 보호

SK텔레콤은 고객정보 보호를 핵심 경영이슈로 관리하며, 잠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및 제거하고,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유통망 및 자회사 실태 조사 강화 등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전자 상품·서비스 보안관리 전용 시스템 SQMS(Security & Quality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는 한편, 고객 정보에 대한 외부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가상의 보안 접속 사이트를 통해서만 정보 접근 및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유출 차단 전용 접속 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당사의 지속적인 정보 보호 노력 결과, 2011년부터 이후 시스템 해킹 등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정보 유출은 SK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보관 시스템이 해킹으로 인해 침투·침해되어, 보관중인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건수를 의미합니다. 2017년에는 고객정보 취급과 관련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SKT 고객정보보호 Policy & Guidelines'를 9년 만에 개정·발간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취급 시 자가점검 Checklist'를 정비·구체화하여 관련자들의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고객정보 유출				
		2015	2016	2017
고객정보 유출	건	0	0	0

SK텔레콤은 2015년부터 당사 마케팅, 솔루션 부문 유통망 대리점 매장 3천 8백여 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진단(Audit)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간 2만 대의 PC를 대상으로 정보유출관련 유통망 원격 진단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유통망 고객 정보보호 진단(Audit) 및 점검을 100% 이행하였고, 상품·서비스 기준 정보보호 점검은 131건(100%) 실행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7년 당사의 14개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고객정보보호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조치와 더불어 각 사의 비즈니스 특성에 따른 핵심 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활동 구성 및 보안 시스템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 방안을 가이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소스(Resource) 상에서 운영 가능한 최적의 보안통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6항) 및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에 의거한 정부 기관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법정 제공 기준 및 방식에 따라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고 있으며, 매년 분기별로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통계 자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는 현행 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와 제한에 따라 진행되나, 잠재적인 이용자의 권리침해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인 추가 검토 및 내부 실사를 통해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공식화된 인권정책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 및 기술오용에 대한 인권 원칙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및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을 모든 가입자에게 고지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사전 동의(Opt-in 방식)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고 있으며, 고객의 선택적 사전 동의 하에서만 제3자 기관에 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망 고객정보보호				
		2015	2016	2017
전체 유통망 대비 점검 비율	%	100(*)	100(**)	100(***)
상품·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실태 진단 수(****)	건	224	163	131
전체 상품·서비스 대비 진단 비율	%	100	100	100
보안 개선사항 발견 수	건	491	326	153
발견된 보안 개선사항에 대한 완화조치 완료 비율	%	100	100	100
완화조치 - 단기 조치완료 수	건	322	218	90
완화조치 - 장기 조치완료 수	건	169	108	63

(*) 유통망 정보보호 관리 방식 체계화 및 구조화 추진
(**) 유통망 정보보호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진단 고도화를 통해 정보유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매장을 제외하고 전수(100%) 조사 실시
(***) 전체 유통망을 대상으로 1) 데이터 분석 기반 타겟 진단, 2) 온라인 판매 매장 진단, 3) SNS 등 고객 정보 노출 실태 진단 등의 진단 기법을 통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의심되는 매장에 대한 전수(100%) 진단 실시
1) Safe PC/이클아이 등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 기반 진단
2) T-Gate 인입 URL(약 13만개)분석
3) 네이버 Band/Café/Kakao Group 등에 노출된 고객정보 진단
(****) 상품·서비스 슬림화에 따른 전체 진단 대상 개수 지속 감소

정부 기관 자료 요청 대응 현황		
	정부기관 '통신자료' 요청	정부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요청 처리 건수(*)	309,054	63,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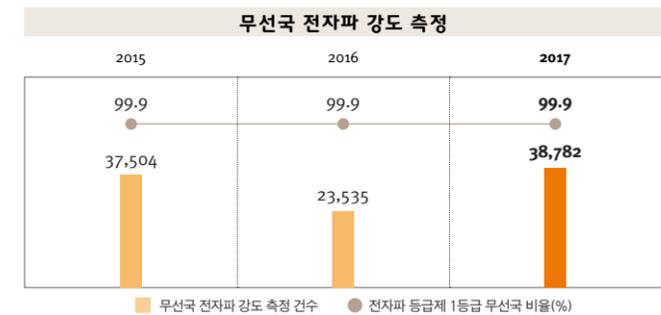
(*) 2017년 연간 기준, 자료가 제공된 정부기관 요청문서 건 수

- 통신자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 전기통신사업법상 범원, 검사,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형의 집행, 재판 등에 필요한 경우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상대방 가입자번호, 로그기록(날짜, 시간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분류됨. 수사기관은 요청공문(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 포함)과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요청함

2.6 전자파

2007년 6월 전자파 측정 의무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자파 강도측정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2017년 총 38,782건의 무선국 전자파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SK텔레콤 무선국들의 실제 전자파 강도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1/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파 등급제(2014년 8월 시행) 기준, 측정된 무선국들의 99.9% 이상이 1등급 판정을 받는 등 제도 시행 이래 거의 모든 무선국들이 가장 안전한 등급인 1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2014년 8월부터 한국전자파학회의 전자파 인체영향 5개년 연구 과제를 지원하여 2018년 5월 현재 4차년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소요되는 전체 15억 원의 재원 중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7 협력회사 동반성장

SK텔레콤은 동반성장 실천을 통해 ICT 산업의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동반성장 핵심 추진계획인 4C(Cooperation, Creation, Compliance, Co-work)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내부심의위원회, 서면보존 및 발급)에 대한 이행과 중소기업 대상 자금, 기술, 교육, 인력 및 복지 지원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 받아 SK텔레콤은 2017년 정부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인 동반성장지수 평가(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협약이행 평가 및 동반성장위원회 협력회사 체감도 조사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부여 받고,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반성장 주요 이행 실적(2017)		
구분	주요 프로그램 및 지원 내용	달성도(%)
협력회사 매출 확대 지원	- 중소기업의 신규 기술 사업화, 벤처육성, 공유와 개발을 통한 ICT생태계 확장 등을 통해 214개 기업 459억 원의 신규 매출 확대 지원	100
결제수단 및 지급 기일 개선	- 결제 대금 100% 현금 지급 - 중소기업 대상 대금 조기지급(중소기업Care Program)	100
기술지원 및 보호	- 기술개발 Infra(T developers, T open lab 등) 무상 이용 지원 - 기술자료임치제도 운영을 통한 협력회사 기술보호 강화	100
교육/훈련 및 인력/채용 지원	- 동반성장아카데미(CEO세미나, 동반성장MBA) 등 직급별 맞춤형 교육 - 100여개 Online 교육과정 운영 - SK고용디딤돌 운영을 통한 우수인력 육성 및 채용 지원 - 동반성장펀드를 통한 대출 지원: 1,675억 원 규모	100
자금(금융) 지원	- 자본투자(펀드, 직접투자 등)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417억 원 - 창업, 기술개발, 경영지원 등을 위한 직접 자금 지원	100
기타 지원	- 협력회사 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복지포인트, 고등/대학생 장학금 지원	100

2.8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SK텔레콤은 공급망 관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를 정의하고, 이를 공급망 책임 보증 프로세스에 반영합니다. 식별된 리스크 요소는 공식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ESG 행동 규범' 및 '공정투명 거래 및 CSR 실천동의서'에 공식화되어 협력사에 100% 적용됩니다. SK텔레콤은 계약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한편 정기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시정조치 요구, 거래관계 종료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pp.93-97에 기재된 공급망 리포트(Supply Chain Report)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급망 ESG 평가(사전 스크리닝)					
	2015	2016	2017	2020 목표	비고
총 신규 등록 협력회사 수	706	725	615	750	
인권·환경·윤리·사회 부문 스크리닝 수	706	725	615	750	윤역/공사/장비/물품 협력업체
사전 평가 비율(%)	100	100	100	100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평가 유형별)					
	2015	2016	2017	2020 목표	
총 등록 협력회사 수(*)	2,346	1,881	1,444	2,100	
평가 시행 협력업체 수	1,582	1,726	1,340	2,000	
서면조사 실시(Audit) 협력회사 수	1,270	1,351	1,056	1,400	
방문조사 실시(Audit) 협력회사 수	212	225	224	242	
Tier 1					공사/장비 협력업체 개별 협력회사 면담, In-depth 미팅 포함
3rd Party 조사 협력회사 수	100	150	60	150	
평가 시행 협력업체 비율(%)	67	92	93	95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Survey)
Non-Tier 1					
총 핵심 공급업체 수(**)	20	35	47	40	
평가 시행 핵심 공급업체 수(***)	10	21	35	38	
평가 시행 핵심 공급업체 비율(****)	50	60	74	95	

(*) 3년 간 거래실적이 없는 협력업체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임
 (**) 네트워크(N/W) 시설공사와 일반물품 공급에 대해 중소협력사와 직접계약이 아닌 중간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선정함 (SK건설, 행복나래)
 (***) SK건설 네트워크(N/W) 시설 공사는 2015년부터, 행복나래의 경우 2016년부터 도급계약 시행
 (****) 2016년 기준 2020년 목표는 60%였으나, 2016년 초과달성하여 상향 목표치를 조정함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평가 대상별, 2017)				
구분	회사 수	평가 회사 수	비율(%)	비고
핵심 공급업체	325	313	96	핵심 Tier 1 & 핵심 Non-Tier 1 협력업체
High Risk Level 협력업체	25	25	100	Tier 1 협력업체

* SK텔레콤은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를 연간 단위로 진행하며, 상기 평가 비율은 연간 평가 받은 협력회사 기준으로 선정되었음

2.9 지역사회 투자

SK텔레콤은 당사의 ICT 기술 및 Infra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가치 혁신을 달성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관점에서 지역사회 투자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방향에 기반하여 ICT 기반의 공유 가치 창출, 지역 사회를 위한 기술기반 플랫폼 제공, 디지털 격차 최소화를 주요 우선순위로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ICT 기반의 공유가치 창출은 ICT 기반의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ICT 융합형 벤처 창업 지원 프로젝트인 '브라보! 리스타트'를 비롯하여 대학생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 교육/육성/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비상', ICT 활용 농업 특화 벤처발굴 육성 프로그램 'AVS(Agriculture Venture Star)', SK플래닛과의 통합 운영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101 스타트업 코리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기여하는 동시에 ICT 역량을 결집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기술기반 플랫폼 제공 측면에서는 기부 플랫폼 '기브유(GiveU)' 및 자원봉사 매칭 플랫폼 '위드유(WithU)'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의 사회공헌 문화 확산에 따라 2017년 '기브유(GiveU)'를 통한 모금액은 전년 대비 48.5% 증가한 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지난해 급증했던 '위드유(WithU)' 등록 일감은 24,332건을 기록하여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는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 격차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입니다. 상세한 성과 내용은 2.1 서비스 접근성(Access to Service) 항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프로그램 주요 성과(*)					
		2015	2016	2017	
ICT 기반의 공유 가치 창출	벤처 육성 지원	개 팀	31	55	38
지역 사회를 위한 기술기반	기브유(Give U) 모금	백만 원	142	202	300
플랫폼 제공	위드유(With U) 등록 일감	건	26,765	77,024	24,332

(*) 기준 보고 시 누적 기준으로 보고하였으나, 2017년 연도별 기준으로 재분류

구성원 자원봉사를 통해 봉사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구성원 자원봉사 만족도 제고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SK텔레콤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ICT 연관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등 전문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 자원봉사 비율은 ICT 자원봉사 및 프로보노 봉사단의 봉사 시간을 전체 자원봉사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2017년에는 경주 지진, 강릉 산불 등과 같은 재해 현장을 지원하는 노력형 자원봉사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전문 자원봉사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장애 청소년 메이커톤, 행복 GPS 지원,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부형태별 사회공헌 지출 비용		백만 원
사회 기여 형태	지출 비용	
현금 기부	94,950	
임직원 근무시간 중 자원봉사 투입 시간 환산액	40	
현물기부 환산액(*)	945	
간접비(**)	1,220	

(*) 현물기부: 제품/서비스 기부, 프로젝트/파트너십 등 기부물
 (**) 간접비: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직접 지출된 비용 외 프로그램 관리 등으로 지출된 비용

주요 기부처 리스트	
프로그램 명	추진 기관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ICT 교육지원 프로그램	한국아동복지협회
취약계층 대학생 장학금 전달	희경재단
장애청소년 메이커톤대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시각장애인 대상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취약계층 지원 자원봉사활동	전국 지역복지관
청소년 신문고	서울 YMCA
도전임글리쉬업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교육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SKT 행복나눔바자회	기아대책
미안마 콕스토브 지원사업	기후변화센터

2.10 공공정책 참여

SK텔레콤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국내 정치자금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직접적으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자금, 선거 자금, 특정 정치 단체 및 정당의 로비성 자금 일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협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공 정책 및 공익 발전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영향과 관련된 비용 지출이 회사의 중장기 비즈니스 관점에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기부 내역과 규모를 전사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여 10억 원 이상 규모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업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용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성 지원 비용 지출 현황				백만 원
	2015	2016	2017	
정치 기부금(*)	0	0	0	

(*) 정치 기부금: 로비 기관/로비스트, 정치 캠페인 및 선거자금, 정당/정치 단체/정치인, 무역 협회 혹은 비과세그룹에 대한 기부 및 지원

협회 기부금 지출 내역				백만 원
	2015	2016	2017	
협회 기부금(*)	9,562	7,416	3,274	

(*) 협회 지원 비용: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통신 정책 관련 기관에 대한 협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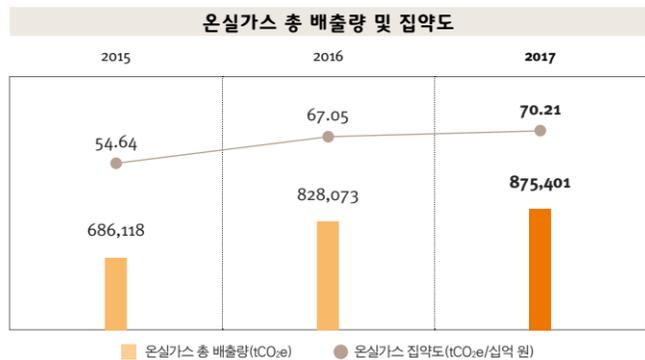
SECTION 3. 환경 자본(NATURAL CAPITAL)

3.1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관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SK텔레콤의 28개 주요 사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범위에는 네트워크 시설(기지국 및 장비)에 의한 배출량이 모두 포함되며, 자회사 및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집약도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SK텔레콤 별도기준 매출(데이터 커버리지)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2017년 SK텔레콤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875,401tCO₂e이며, 전년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장비 증설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에 주요하게 기인하며,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4.6%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기지국 등 네트워크 장비 통합, 노후냉방기기 교체 및 사옥 내 냉난방 조절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총 배출 증가량 대비 감축량이 작아 전체적으로 배출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82.41tCO₂e/십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고효율 중계기, 기지국 통합관리 등 자체 감축 활동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SK텔레콤 보유 기술과 솔루션을 바탕으로 상쇄 배출권 확보로 배출권거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15	2016	2017	2017 목표
온실가스 총 배출량	tCO ₂ e	686,118	828,073	875,401	
온실가스 집약도	tCO ₂ e/십억 원	54.64	67.05	70.2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	8,431	7,152	6,820	7,000
고정연소	tCO ₂ e	5,650	4,945	5,191	
이동연소	tCO ₂ e	2,781	2,207	1,629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	677,687	820,921	868,581	870,000
전력	tCO ₂ e	677,585	820,836	868,495	
스팀	tCO ₂ e	102	85	86	



기타 간접 온실가스(Scope 3)의 경우,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연구 및 ICT를 활용한 환경솔루션 제공 등을 통해 관리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은 SK텔레콤이 보유한 ICT서비스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의 대표적 활동으로, SK텔레콤의 T map 내비게이션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부터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실시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경로를 안내함으로써 이동에 따른 연료 사용량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합니다. 2017년 T map을 통한 사회적 온실가스 절감량은 연간 약 61.7만 톤입니다. T map 개방 및 무료화로 인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 차량 증가율과 내비게이션 보급 등을 고려할 때 2020년까지 연간 65만 톤의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T map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기여 효과

(**) 2016년 보고된 2020 목표치는 599,000tCO₂e였으나, 2017년 연간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량 617,000tCO₂e를 달성하며 목표치를 초과하여 2020목표를 상향 조정함

3.2 에너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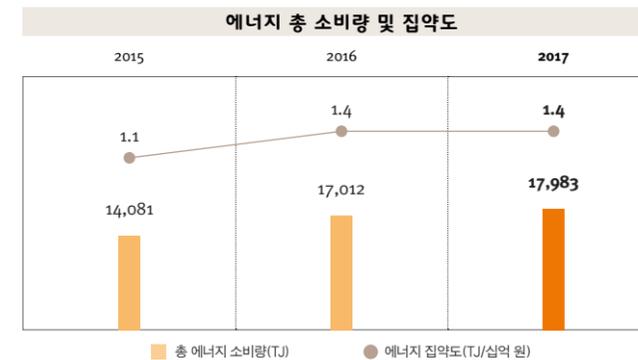
SK텔레콤의 에너지 사용량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수치는 에너지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에너지 사용 고지서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됩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SK텔레콤의 28개 주요 사옥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시설(기지국 및 장비)에 의한 사용량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며, 자회사 및 공급망의 에너지 사용량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집약도는 총 에너지 소비량을 SK텔레콤 별도기준 매출(데이터 커버리지)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에너지 절감 실적 중 자연공조 냉방기로 인한 절감 실적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실적에는 과거 연도(2012~2013년) 실적 데이터 산정 값을 2017년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사옥에서 냉난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사용량 절감과 기지국, 중계기 등 네트워크 장비 통합 및 노후 냉방기기 교체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 감소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총 에너지 소비량은 17,983TJ로 증설된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에너지 소비량이 작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력 사용에 의한 간접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의 9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네트워크 구조혁신 및 망 슬림화를 중심으로 사옥관리, 신재생 에너지 시설 전력 생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성 향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G 시설 투자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분을 감안할 때, SK텔레콤은 202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을 28,340TJ 이하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사용 현황

	2015	2016	2017	2017 목표	
총 에너지 소비량	TJ	14,081	17,012	17,983	18,000
에너지 집약도	TJ/100M 원	1.1	1.4	1.4	
직접 에너지 소비량	TJ	146.0	119.0	118.7	
천연가스	TJ	83.4	68.0	71.1	
경유	TJ	10.5	10.2	7.7	
보일러 등유	TJ	18.2	18.2	18.3	
제트용 등유	TJ	3.9	2.2	1.6	
휘발유	TJ	29.0	23.7	19.7	
LPG	TJ	0.4	0.2	0.3	
간접 에너지 소비량	TJ	13,954.0	16,893.0	17,864.3	
전력	TJ	13,932.8	16,887.2	17,862.0	
스팀	TJ	2.7	2.3	2.3	
총 전력 사용량 절감	MWh	44,731	46,838	45,139	
사옥관리를 통한 절감	MWh	2,145	4,252	2,553	
자연공조냉방기 도입을 통한 절감	MWh	39,857	39,857	39,857	
신재생에너지 시설 전기 생산	MWh	2,729	2,729	2,729	
재생가능에너지 총 사용량	MWh	2,729	2,729	2,729	2,729

* 에너지 소비량 산정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기준 방법론을 따름, p.135 온실가스 검증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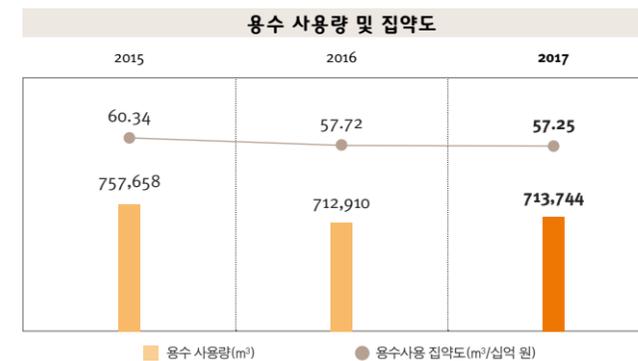
3.3 용수 사용

용수 사용량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SK텔레콤의 28개 주요 사옥에 대해 수도 사용 고지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회사 및 공급망의 용수 사용량은 집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용수 집약도는 총 용수 사용량을 SK텔레콤 별도기준 매출(데이터 커버리지)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SK텔레콤은 용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성수 사옥은 냉각탑 드레인 양 조정, 원수 사옥은 냉각탑 보급수 변경 등의 노력을 실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통신장비 증설에 따른 냉각탑의 냉각수량 증가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연간 용수사용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713,744m³를 기록하였습니다.

용수 사용 현황

	2015	2016	2017	2017 목표	
용수 사용량	m ³	757,658	712,910	713,744	720,000
상수도	m ³	687,087	648,643	656,668	
지하수	m ³	70,571	64,567	57,076	
용수사용 집약도	m ³ /100M 원	60.34	57.72	5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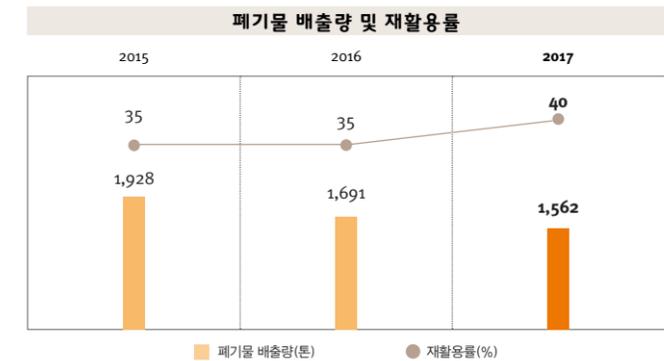
3.4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SK텔레콤의 28개 주요 사옥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회사 및 공급망의 폐기물 배출량은 집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배출 집약도는 총 폐기물 배출량을 SK텔레콤 별도기준 매출(데이터 커버리지)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2017년 폐기물 총 배출량은 1,562톤으로 2016년 대비 약 9.2% 감축을 달성하여,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 폐기물 처리 시 압축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 분리수거를 강화하여 재활용 폐기물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및 재활용 현황

	2015	2016	2017	2017 목표	
폐기물 배출량	톤	1,928	1,691	1,562	1,600
생활 폐기물	톤	648	590	486	
대형 폐기물	톤	91	68	104	
음식물 폐기물	톤	505	406	339	
지정 폐기물	톤	18	41	11	
재활용 폐기물	톤	666	587	622	
폐기물 배출 집약도	톤/100M 원	0.154	0.137	0.125	
재활용률	%	35	35	40	



3.5 자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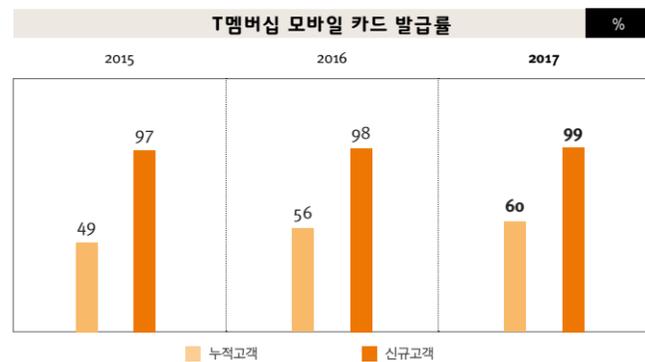
SK텔레콤은 전자청구서 발행, T멤버십 모바일 카드 발급, 단말기 회수 등의 활동을 통해 고객이 SK텔레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원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지속적으로 자원 절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자청구서 총 이용자는 SK텔레콤의 고객 중 스마트·이메일·문자(MMS) 청구서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입니다. 신규 전자청구서 가입률은 연간 신규 가입자 중에서 전자청구서를 신청한 고객의 비율입니다. 전자청구서 이용은 청구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종이 청구서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어 가입자 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전자청구서 총 이용자는 2,286만여 명으로, 2010년 스마트 청구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자청구서 가입률 또한 87.6%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전자청구서 이용 현황				
		2015	2016	2017
전자청구서 이용자	천 명	21,328	22,402	22,855
신규 전자청구서 가입률	%	83.9	87.0	87.6

SK텔레콤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T멤버십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를 모바일 에코카드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T멤버십 모바일 에코카드 이용 시 고객 1인당 약 4.88g의 플라스틱 절약과 약 12g의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A4 용지 4장을 절약, 또는 소나무 40그루의 호흡량과 맞바꿀 수 있는 수치입니다. SK텔레콤은 T 멤버십 운영을 위해 연평균 500만 장 이상의 플라스틱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왔으며, 이를 모바일 카드로 전환 발급 시 연간 약 24톤 이상의 플라스틱 자원 절약과 함께 약 55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누적 고객 기준 T 멤버십 모바일 카드 발급률은 전년 대비 약 4%p 증가한 60%로, 매 해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고객 기준 T 멤버십 모바일 카드 발급률은 2017년 기준 99%로 모바일 카드 발급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더욱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멤버십 모바일 카드 이용 현황				
		2015	2016	2017
신규고객 T멤버십 모바일 카드 발급률	%	97	98	99
T멤버십 모바일 카드발급 건(연간 신규)	건	2,894,971	2,031,727	2,014,292
T멤버십 플라스틱 카드발급 건(연간 신규)	건	79,554	45,981	15,990
누적고객 T멤버십 모바일 카드 발급률	%	49	56	60
T멤버십 모바일 카드발급 건(연간 누적)	건	5,661,830	6,711,262	7,555,355
T멤버십 플라스틱 카드발급 건(연간 누적)	건	5,810,530	5,347,620	4,964,415



단말기 회수율은 연간 회수 단말기를 총 판매 단말기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17년 단말기 회수율은 1.78%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단말기 회수 현황				
		2015	2016	2017
T 단말기 판매량	천 대	9,063	8,726	8,485
단말기 회수량(*)	천 대	326	222	131
단말기 회수율(*)	%	3.6	3.1	1.8

(*) 2017년 단말기 회수량 및 회수율은 갤럭시 노트 7 회수 포함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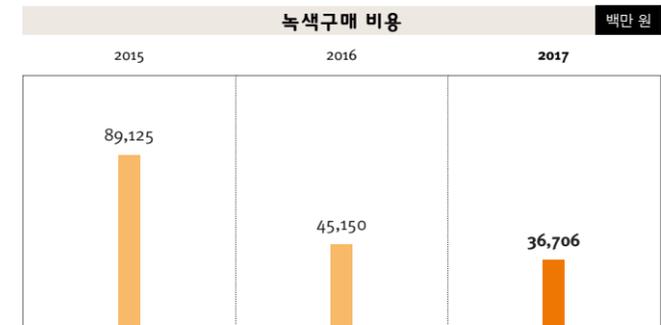
3.6 환경 지출 및 투자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는 SK텔레콤 별도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환경 원가는 SK텔레콤의 환경 영향 저감 및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당사는 이를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 비용, 폐기물 및 재활용 위탁처리비용, 교육 훈련비용, 사외 자연보전 비용, 부담금 및 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녹색 구매를 시행하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 비용은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환경마크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탄소성적표지인증, 저탄소 상품인증 구매를 포괄하며, 환경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7년 총 환경 원가는 전년 대비 6.9% 감소한 7억 2백만 원입니다. 환경 원가 감소의 주요한 이유는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 비용의 감소에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장비 신설로 인해 2017년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함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하였으며, 구매 단가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이 약 18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녹색구매는 고가 장비 구매 중심 녹색 인증 확대에 의하여 구매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던 2015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일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환경 원가			
	2015	2016	2017
총 환경 원가 (녹색구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제외)	709	754	702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 비용	242	271	195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95	107	92
재활용 위탁처리 비용	20	25	30
교육/훈련비용	24	33	34
사외 자연보전 비용	0	0	0
부담금, 부과금	328	318	351
기타비용	0	0	0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2015	2016	2017
연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	-	1,316	1,833



Other Disclosures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 감독기관의 규제를 준수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요구하는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관련 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제재 및 조치 현황

제재일	2017.03.21
개요 및 조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주)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심결에서 과태료 7억 9,4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과태료 납부 및 이행 결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재일	2017.12.06
개요 및 조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주)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에 관한 건'에 대한 심결에서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행결과에 대해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교 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2018년 2월 23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8년 2월 23일)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제3자 검증의견서

서문

DNV GL그룹의 일원인 주식회사 디엔비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이하, "DNV GL")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의 'SK텔레콤 통합 연차보고서 2017'(이하 "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SK텔레콤은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DNV GL의 책임 내용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한정됩니다. 검증은 DNV GL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검증 범위

DNV GL의 검증 업무는 2017년도 데이터에 한정되며, 검증 활동은 아래 내용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APS) 2008 에서 제시하고 있는 AccountAbility 원칙에 대한 평가
- GRI Standards(이하 "GRI Standards")의 포괄적 부합 방법('In accordance' - Comprehensive)에 따른 공개 내용의 검증(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의 지속가능성 관련 상위레벨의 데이터 및 활동의 검증)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요 측면의 결정 프로세스, 중요 이슈들에 대한 경영 접근 프로세스,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 산출, 취합, 관리 프로세스

검증 방법

검증 활동은 AA1000AS(2008) 및 국제적 검증 규격을 반영한 DNV GL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프로토콜(VeriSustain™)에 따라 Type 1 방법 및 중간(Moderate) 수준의 보증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특정 성과 정보에 대해서는 Type 2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검증은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었으며, SK텔레콤의 본사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검증 활동은 샘플링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습니다

- 보고서 내 문구 및 주장에 대한 확인,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관리시스템, 정보의 흐름과 통제의 견고성을 평가
- 주요 부서의 담당자들과 면담
- 문서 검토, 데이터 샘플링,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베이스, 전산 시스템 등의 테스트
- 중요성 평가 결과 검토

제한사항

보고서에 명시된 SK텔레콤의 중요한 통제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회사, 공급업체, 협력사 및 제3자의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 GL은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의 재무제표 및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자료, 그리고 SK텔레콤의 홈페이지(<http://www.sktelecom.com>)에 게시된 자료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에스케이주식회사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질의, 분석 그리고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의 근거 확인이 실시되었습니다.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경제 성과는 SK텔레콤의 내부 문서와 회계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대비하여 검증되었으며, 검증팀은 경제 성과 작성을 위한 데이터 취합 및 산정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및 사회 데이터의 경우, 취합 데이터를 확인하는 형태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검증 설명서는 계약에 따라 경영진을 위해 발행된 것이며, DNV GL은 본 설명서에 기반하여 의사 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SK텔레콤은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 GL의 책임 내용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한정합니다.

1 VeriSustain protocol 은 DNV GL 홈페이지 (www.dnvgl.com)에서 확인 가능

결론

검증활동을 수행한 결과, DNV GL은 중요성 측면에서 SK텔레콤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GRI Standards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부합 방법('In accordance'-Comprehensive)을 적용한 보고서 작성 기준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AA1000APS(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성 근본원칙 (Foundation Principle of Inclusivity)

SK그룹은 2016년 그룹 경영관리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를 개정하며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최우선 경영 철학으로 삼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관련 내용을 2017년 회사의 정관에 반영한 것에 이어, 2018년 2월 제정된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내·외부 이해관계자 그룹을 고객, 협력회사, 구성원, 지역사회·NGO, 주주, 정부 등 6 대 이해관계자로 구분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된 이해관계자별 중요 사안은 이사회 산하 기업시민위원회에 보고되고 지속가능경영 정책 개발에 반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관리하는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을 기업의 경영철학으로 반영하여 모든 경영활동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증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사회-환경 손익 분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을 중심으로 사회 성과를 산출하여, 경제, 환경, 사회 측면의 통합적인 성과 창출 스토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성 원칙 (Principle of Materiality)

SK텔레콤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제기 이슈, 사업 전략 및 리스크 이슈, 국제표준 등 내·외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제 pool 을 구성하였으며, 각 이슈들의 비즈니스 및 지속가능성 측면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 영향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각 이슈들을 비용, 수익, 리스크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여 가중치 반영을 통해 최종 11 가지의 중요 주제(material topics)를 선정하였습니다. 심사팀은 중요 주제의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평가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주제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제외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중요 주제가 선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대응성 원칙 (Principle of Responsiveness)

SK텔레콤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사항 및 기대사항을 파악하여 보고서 작성 시 반영하였습니다. 선정된 중요 주제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 측면의 배경을 소개하고, 접근 방법 그리고 성과창출 및 성과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의 기업시민위원회는 고객중심경영, 동반성장, 사회적 가치 혁신 및 사회공헌, 투명윤리경영, 환경경영 등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주요 이슈와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SK그룹의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 측정 방법론과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사회 성과를 분석 및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SK텔레콤의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균형 있게 관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 품질과 관련된 원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성 및 신뢰성 (Accuracy and Reliability)

DNV GL은 상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본 보고서가 AA1000APS(2008)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Type 1 검증)한 것에 더해, 정보/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Type 2 검증). 정보/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해당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 근거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용수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재해율 그리고 윤리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링 확인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및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개별 데이터 담당자는 상기에서 확인된 정보 및 데이터의 출처 및 가공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 재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증팀은 금번 검증 활동을 통해 SK텔레콤의 특정 정보 및 데이터의 생성 프로세스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공시된 상기 정보 및 데이터에서 의도적인 오류나 잘못된 기술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DNV GL은 ISO/IEC 17021:2011(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관리 표준 및 컴플라이언스 방침을 적용하고, 윤리적 요구사항, 전문 표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사팀은 검증 기간 중 DNV GL의 윤리행동강령 2를 준수하였고,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검증 활동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심사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DNV GL은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검증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DNV GL은 SK텔레콤의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SK텔레콤 통합 연차보고서 2017' 검증 업무에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대한민국, 서울



대표이사

안인균

㈜디엔브이제이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 코리아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서문

주식회사 디엔비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 GL)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의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합리적 보증 수준 하에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 2017-63 호)"에 따라 검증 자료를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DNV GL의 책임은 합의된 계약 조건에 따라 검증 계약당사자인 에스케이텔레콤에만 국한되며, 이 검증 성명서를 기반으로 한 투자 등의 다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검증 범위

본 검증에서 다루어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에스케이텔레콤에서 작성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검증대상 배출량 : 2017 년 온실가스 배출량
- 배출량 보고 범위 및 검증활동 : 에스케이텔레콤 (한국 내)

검증 방식

본 검증은 2017년 3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 2017-63 호)"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7-12 호)"의 검증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DNV GL은 에스케이텔레콤이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 프로세스의 부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에스케이텔레콤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2017년)"
- 에스케이텔레콤 온실가스 및 에너지 데이터 관리 및 수집, 산정 및 보고 프로세스

결론

에스케이텔레콤의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으며, 에스케이텔레콤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 2017-63 호)"에 명기된 산정방법론에 따라 보고함에 있어 중요한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수로 보고하기 위한 반올림치리로 인해 실제 값과 ± 2 tCO₂e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총 배출량 = 직접배출 + 간접 배출

에스케이텔레콤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ton/CO ₂ e
에스케이텔레콤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	총 배출량
2017년	6,835	868,581	875,401

2018년 4월 3일


 박 상 연
 검증팀장


 안 인 균
 DNV GL Business Assurance Korea 대표

본 외부 검증인의 검증성명서는 성명서 발행일 (2018년 4월 3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성명서 발행일 이후 본 성명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검증성명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5 OTHER INFORMATION

- 137 CEO 인권정책 성명
- 139 비즈니스 파트너 ESG 행동규범
- 14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143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 144 GRI CONTENT INDEX
- 148 SASB INDEX
- 149 재무 성과표(별도)
- 155 글로벌 네트워크
- 156 투자자 정보

CEO 인권정책 성명

SK텔레콤은 '기업의 영구존속, 발전을 통해 고객·구성원·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는 SKMS규범을 근간으로 삼아, 사회적 책임과 규범을 준수하며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당사의 사회적 책임은 고객, 구성원,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에 높은 수준의 인권 존중에 관한 책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높은 수준의 글로벌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일상에서 상품과 서비스, 계약, 구매, 기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접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근본적 권리를 존중합니다.

SK텔레콤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uggie Framework)'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에 대하여 공개적 지지를 선언하고, 인권 존중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SK텔레콤은 사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침해의 방조 또는 공모 행위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인권·노동 원칙에 따라 책임을 갖는 조직, 운영구조, 모니터링 절차, 발생 사건에 대한 조치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투명한 경영 구조를 갖출 것입니다. SK텔레콤은 본 정책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자회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게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은 ICT 사업자로서 다음의 측면에서 잠재적 인권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예방적 관점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업장 내 구성원, 비즈니스 파트너 인권 — Human Rights in Workplace

- 강제노동·아동노동 등의 잘못된 노동관행의 근본적 방지
-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출신 등에 따른 차별 방지
- 정치적, 종교적, 신체적 자유와 시민권 존중
- 기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 안전·보건, 근무시간 등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 Human Rights in Privacy Policy

- 법규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요구 및 기록, 저장
- 정보 저장에 대한 사전 고지와 주의 의무, 개인정보에 따른 자유로운 삭제
-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등 충분한 보안체계
- 서비스·마케팅 차원에서 제한되고 책임 있는 개인 정보 활용

3)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 Human Rights in Access to Information & Freedom of Expression

- 계층·장애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 의무
- 디지털·스마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요금제도, 시스템 등
-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 보호를 위한 유통 정보에 대한 책임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지지

4) 기술, 서비스, 데이터 오용 방지 — Human Rights in Technology

- 기술, 전자장비, 데이터의 범죄목적(Dual Purpose) 활용에 대한 거부
- 도청, 전파방해, 해킹 등의 기술 오용 근절

SK텔레콤은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권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침해 사례를 목격하거나 혹은 직접 당하신 경우 다음 채널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ktelecom.com/manage/framework_csrSend.do) SK텔레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인권 원칙 지지와 준수에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박 정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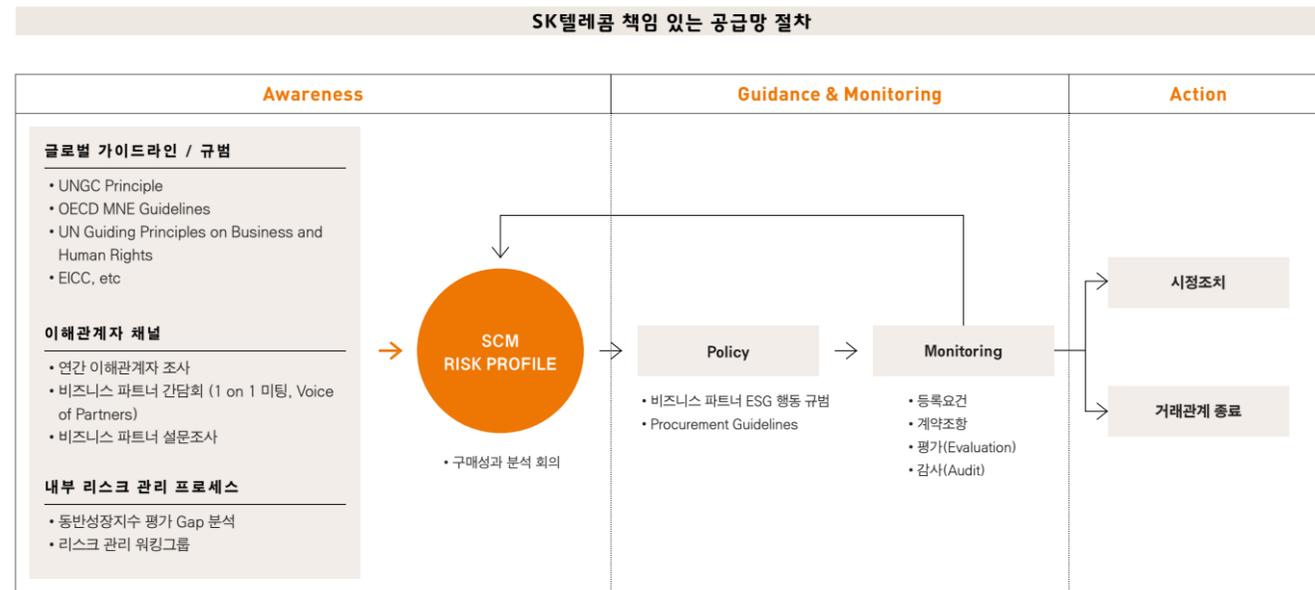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비즈니스 파트너 ESG 행동 규범

I. 범위 (SCOPE)

SK텔레콤의 비즈니스 파트너 ESG 행동 규범은 SK텔레콤과 계약 관계를 맺는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해, 2차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SK텔레콤의 경영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 합니다.

II. SK텔레콤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III. 정책 (POLICY)

본 비즈니스 파트너 ESG 행동 규범 내 “비즈니스 파트너”란 비즈니스 파트너의 모든 임직원, 계약자, 2차 비즈니스 파트너, 대리인을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ICT 선도 기업으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최고 수준의 신의 성실에 기반한 경영 활동 실천하기 위한 경영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당사의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SK텔레콤의 경영 원칙을 비즈니스 파트너의 행동 규범으로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비즈니스 파트너는 당사의 경영 원칙과 함께 본 비즈니스 파트너 ESG 행동 규범에 대해 주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SK텔레콤 및 해당 비즈니스 파트너와 관련된 재무, 평판, 사업 리스크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함께 지속가능한 win-win 파트너십을 실현해나가자 합니다. SK텔레콤은 당사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본 ESG 행동 규범을 기반으로 경제, 환경 및 사회 성과 관리를 통해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2차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적용함으로써 궁극

적으로 SK텔레콤이 정의하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실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Anti-Bribery 반부패

SK텔레콤 비즈니스 파트너는 내·외부 거래를 행함에 있어 정직성, 성실성, 공정성을 준수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금전 또는 선물 제공 등 당사 구성원으로부터, 또는 구성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뇌물도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비즈니스 간 이해 상충에 관련되거나, 초래될 수 있는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며, 대가를 약속하거나 제공/제안하는 항응 또는 선물을 제공 또는 수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비즈니스 파트너와 SK텔레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하고, 관련 사업 파트너 및 타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SK텔레콤의 반부패 원칙 적용을 위해 노력합니다.

2. Fair-Competition & Compliance 공정 경쟁 & 컴플라이언스

SK텔레콤 비즈니스 파트너는 당사 공정거래준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수행에 있어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 시스템을 준수합니다. 또한,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국내법 및 국제법, 그리고 국제 표준 및 원칙을 준수합니다.

표준, 법률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임직원이 상호 신뢰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Privacy Protection 정보보호

SK텔레콤 비즈니스 파트너는 SK텔레콤과 관련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회사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 이외의 기타 용도로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 또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SK텔레콤이나 그 외 타 회사의 정보를 취득 및 사용하거나, 기밀 정보를 거래하지 않습니다.

9. Contribution to Community 지역사회공헌

SK텔레콤 비즈니스 파트너는, 당사가 지역 사회의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봉사 활동 및 재난 구호 등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협력합니다.

10. Human Rights 인권

SK텔레콤 비즈니스 파트너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에 있어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민족, 종교,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기본 인권을 인지하고 미성년자 보호 및 고객 개인 정보 보호 등 인권 보호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파트너는 근무 시간 준수, 최저 임금 보장,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등 근로자의 최적 근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4. Financial Integrity 재무 건전성

SK텔레콤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 창출을 추구합니다. 당사 비즈니스 파트너는 SK텔레콤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지속적 혁신에 기반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합니다.

5. Public Policy 공공정책

SK텔레콤 비즈니스 파트너는, SK텔레콤이 적극적 공공정책 참여 활동 과정에서 당사가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선거 자금 등 일체의 정치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정치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인지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6. Customer Value 고객가치

SK텔레콤 비즈니스 파트너는, 당사가 고객이 기대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7. Environment 환경

SK텔레콤 비즈니스 파트너는 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환경 관련 국제 표준 및 법규, 내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또한 당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제3자 검증을 포함한 환경 경영 시스템을 수립할 것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8. Health & Safety 보건안전

SK텔레콤 비즈니스 파트너는 임직원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며,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련 국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UN은 2015년 9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전 회원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였습니다. SDGs는 인류 사회의 경제,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차원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지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함에 있어 당사의 미래 가치 창출 전략인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 기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무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통합적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한 전략 방향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목표를 이행함으로써,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 해 나갈 것입니다.

SK텔레콤은 SDGs의 17개 목표 중 5개 목표를 중점 영역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개방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인류 공동의 목표인 SDGs와 당사의 미래 가치 창출 전략인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공동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SK텔레콤의 중장기 SDGs 목표



SDG Context	SK텔레콤의 기여	영향
<p>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 4.4 어르신 및 청소년들의 ICT 기술 역량 증진 4.5 장애인, 토착민 등 취약계층에 동등한 수준의 교육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 • 장애청소년 ICT 메이커톤 대회 개최 • 이동형 ICT 체험관 T.um 모바일 구축 	<p>사회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ICT기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교육을 제공하여 ICT 지식 및 역량 개발 <p>사업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친화적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시장 확대
<p>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 창출 8.3 일자리 창출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장려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기반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 대학생 창업 활성화 지원 • ICT 활용 농업 특화 벤처 발굴 육성 	<p>사회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인프라 및 ICT 기술 공유를 통한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공유 가치 창출 <p>사업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 인프라 추진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오픈 콜라보레이션 생태계 확장
<p>탄력적인 인프라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산업화와 이노베이션 촉진 9.1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인프라를 조성해 인류의 웰빙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평등한 접근성을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 강화를 통한 New ICT 생태계 구축 • 지속적인 네트워크 품질 향상 및 신뢰성 높은 망 운영을 통한 최고 수준의 LTE 서비스 제공 	<p>사회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상용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제공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발전과 인류 생활 양식의 혁신 <p>사업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및 인공지능(AI) 등 핵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p>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11.7 여성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형성 11.A 지역 개발 계획을 통한 도시 및 농어촌 간의 경제, 사회, 환경적 연결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ICT 융합형 보안서비스를 통한 노약자 케어 및 범죄 예방 강화 • ICT 공공안전 솔루션을 통한 재해·재난 구조 효율 향상 • 산간오지 및 도서 지역 등 통신서비스 취약 지역의 통화 품질 개선 투자 	<p>사회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재해·재난 시 구조 대응 강화를 통한 사회 경제적 손실 감소 • 통신 서비스의 보편화를 통한 지역간 연결성 강화 <p>사업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및 안전 솔루션 관련 B2B 사업 모델 확대
<p>기후변화 대응 13.2 기후변화 대책을 국가 정책 및 전략에 통합하여 실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에너지관리 솔루션 등 ICT 기반 스마트/그린 솔루션 제공 • T map의 최적 주행거리 제공 기반 온실가스 감축 	<p>사회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p>사업적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기반 환경 솔루션 시장 기회 확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유엔은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을 지지함으로써 인권·환경·노동·반부패 등에서 정의한 10개의 보편적 원칙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포함한 포괄적 범위에서 유엔의 개발계획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UN 산하의 기업협의 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협회 창립 멤버로, 2007년 국내 4대 기업 최초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이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포함한 포괄적 범위에서 유엔의 개발계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에는 국내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 우수 기업 협의체인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드(LEAD) 기업에 편입되었고, 리드(LEAD) 중점 프로젝트인 보드(Board) 프로그램(이사회 대상 CSR 교육)을 기 업시민위원회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 글로벌 CSR의 우수 실천 사례를 국내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특히, 2013년 4월 '유엔 인권 기본 헌장(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유엔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uggie Framework)'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 에 대하여 공개적 지지를 선언하고, 인권 존중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것을 CEO 명의로 천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UNGC 원칙 준수 및 지원을 통해 국내·외 사회 문제 해결 및 글로벌 CSR 트렌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UNGC 협회 활동 현황

협회/이니셔티브	가입일	목적 / 비고
UNGC 본부	2007년 5월	글로벌 CSR 이니셔티브 활동을 통해
UNGC 한국협회	2007년 9월	당사 CSR 체계 고도화 및 국내외
UNGC LEAD	2011년 1월	CSR Reputation 제고

유엔글로벌콤팩트 ADVANCED CRITERIA INDEX

UNGC Advanced Criteria	Cross Reference / Direct Answer
전략과 운영에 있어 UNGC 10대 원칙 이행	
Criterion 1	UNGC 10대 원칙을 조직의 기능과 사업 단위에 편입하려는 노력 p.3
Criterion 2	UNGC 10대 원칙에 대한 가치사슬 내 구현 pp.85-87
확고한 인권 관리 정책과 절차	
Criterion 3	인권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pp.89-92, 137-138
Criterion 4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인권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pp.89-92
Criterion 5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인권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pp.89-92
확고한 노동 관리 정책과 절차	
Criterion 6	노동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pp.89-92, 120
Criterion 7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노동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p.120,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노동 원칙 반영
Criterion 8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노동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pp.77-78,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 중이며 노동조합이 관련 이슈를 확인
확고한 노동 관리 정책과 절차	
Criterion 9	환경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pp.63-68
Criterion 10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환경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pp.63-68, 126-130
Criterion 11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환경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pp.63-68, 126-130

UNGC Advanced Criteria	Cross Reference / Direct Answer
확고한 반부패 정책과 절차	
Criterion 12	반부패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pp.85-88
Criterion 13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반부패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pp.85-88
Criterion 14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반부패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pp.85-88
보다 넓은 유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지지하기 위한 활동	
Criterion 15	유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을 통한 공헌 pp.59-62, 141-142
Criterion 16	유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사회투자와 자선활동 pp.141-142
Criterion 17	유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pp.141-142
Criterion 18	유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과 외부 이니셔티브 활동 p.3
확고한 노동 관리 정책과 절차	
Criterion 19	지속가능성에 대한 CEO 추진의지와 리더십 pp.29-32, 137-138
Criterion 20	이사회의 지속가능성 안건 채택과 관리 감독 pp.45-48, 71-78
Criterion 21	이해관계자 참여 pp.45-48, 77-78

GRI CONTENT INDEX

GRI STANDARDS - UNIVERSAL STANDARDS(GRI 100)

Topic	Disclosure	Description	Cross Reference / Direct Answer / Omission	3 rd Party Assurance
GRI 102:	102-1	조직 명칭	SK텔레콤(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
Organizational Profile	10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pp.35-36, 37-41	√
	102-3	본사의 위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5, SK타워	√
	102-4	주요 사업장이 위치하거나, 지속가능경영 관련 중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수와 국가명	p.117	√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pp.25, 71	√
	102-6	대상시장(지역별 구분, 사업분야, 고객/수익자 유형을 포함) 보고	pp.35-36, 117	√
	102-7	조직의 규모(종업원, 순매출, 총자본, 제품과 서비스 등)	pp.25, 37-41, 100-105	√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pp.33-34, 117-118	√
	102-9	조직의 공급망 설명	pp.93-96	√
	102-10	보고기간 중 조직 및 공급망의 규모, 구조 소유구조 상의 중대한 변화	pp.25-41, 중대한 변화 없음	√
	102-11	사전예방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 방식에 대한 설명	p.79	√
	102-12	경제/환경/사회 현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About This Report, pp.141-143	√
	102-13	협회 및 국가별/국제적 정책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About This Report, pp.141-143	√
GRI 102: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조직 및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명서	pp.29-32	√
Strategy	102-15	주요 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	pp.81-84	√
GRI 102: Ethics and integrity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그리고 윤리강령과 같은 행동규범에 대한 보고	pp.85-87	√
	102-17	윤리 및 법규준수와 조직의 청렴성 이슈에 대한 내·외부적 안내 및 고충처리 제도	p.87	√
GRI 102: Governance	102-18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보고.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사결정의 책임이 있는 위원회	pp.71-77	√
	102-19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고위 임원 및 기타 근로자에게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	p.77	√
	102-20	조직 내에 임원급 인사나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을 책임지는 인사가 임명되어 있는지 보고. 그러한 직위에 있는 자가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p.74	√
	102-21	경제, 환경, 사회적 주제에 관해 이해관계자들과 최고의사결정기구가 협의하는 과정을 보고. 협의가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위임자와 최고의사결정기구 간 피드백 절차	pp.77-78	√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산하 위원회의 구성	pp.73-74	√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이 임원의 직위를 겸하는지에 대한 보고	pp.33-34	√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그 산하위원회의 임명과 선정 절차, 최고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임명 및 선정 기준	pp.72-74	√
	102-25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	pp.33-34, 71-73	√
	102-26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고위 임원이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전략, 정책 및 목표를 수립, 승인 및 개정하는 과정에서의 역할	pp.73-74	√
	102-27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경제, 환경, 사회적 주제에 대한 집단지식을 개발하고 향상하기 위한 조치	p.77	√
	102-28	경제, 환경, 사회적 주제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성과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보고. 외부독립평가 및 자 체평가의 시행 여부 및 성과평가 결과에 기반한 조치	p.75	√
	102-29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시행 여부	pp.77-78	√
	102-30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에 대한 위험 관리 절차의 효과성 검토 과정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p.74	√
	102-31	경제, 환경, 사회적 주제와 그 영향, 위기 및 기회요인을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검토하는 주기	pp.46, 73-74, 77	√
	102-32	조직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식 검토하고 승인하며, 중대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최고위 원회 또는 직위	p.77	√

GRI STANDARDS - UNIVERSAL STANDARDS(GRI 100)

Topic	Disclosure	Description	Cross Reference / Direct Answer / Omission	3 rd Party Assurance	
GRI 102:	102-33	중요 사항을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는 프로세스	pp.46, 77	✓	
Governance	102-34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된 중요 사항의 성격과 보고 횟수, 그리고 이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	pp.45-50, 74, 77	✓	
	102-35	최고의사결정기구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고정급여와 변동급여, 퇴직급여, 회수정책 등을 포함한 보상 정책 및 보상에 연계된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의 목표	pp.75-76	✓	
	102-36	보수 결정 절차 및 기준을 보고. 보수 관련 컨설턴트 참여 여부, 해당 컨설턴트가 경영활동으로부터 독립적 인지 여부, 컨설턴트와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기타 모든 관계에 대한 사항 보고	pp.74-75	✓	
	102-37	보수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및 이를 반영하는 방법을 보고. 가능하다면 이해관계자가 제안한 보수 정책 및 이에 대한 투표 결과 내용까지 보고	p.75	✓	
	102-38	동일 지역에서의 (최고 급여 수령자 제외) 모든 직원의 연간 총 보상의 중간 값 대비 조직의 최고 급여 수령자를 위한 연간 총 급여의 비율을 보고	p.75	✓	
	102-39	최고 급여 수령자의 급여 상승률과(최고 급여 수령자를 제외한)직원 평균 급여 상승률의 비율(동일 지역간)	p.76	✓	
	GRI 102: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p.78	✓
	Stakeholder	102-41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임직원 비율을 보고	p.120	✓
Engagement	102-42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선정하는 기준	p.77	✓	
	102-43	유형별, 이해관계자 집단별 참여 빈도 등 조직의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현황	p.47	✓	
	102-44	보고서 발간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되어 온 중대 이슈 대응 방법 및 결과	pp.45-50	✓	
GRI 102: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2017 사업보고서 p.3 참조	✓	
Reporting	102-46	보고서의 내용 및 주제의 경계를 정의하는 프로세스 및 보고서 내용 결정과정에 보고원칙을 적용한 방식	pp.45-47	✓	
Practice	102-47	보고 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된 중요성 이슈의 리스트	p.48	✓	
	102-48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과 관련한 영향과 그러한 수정 보고 이유	About This Report	✓	
	102-49	이전 보고서 대비 중요성 주제 및 주제의 경계에 대한 중대한 변화	특별한 주제가 필요한 경우 본문에 별도 주석 표기	✓	
	102-50	제공한 정보의 보고기간(회계연도 또는 년)	About This Report	✓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의 보고일자	About This Report	✓	
	102-52	보고 주기(매년, 격년 등)	About This Report	✓	
102-53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p.157	✓		
102-54	GRI Standards에 따라 조직이 선택한 보고서 부합 방식(Core/Comprehensive)	About This Report	✓		
102-55	GRI Index	pp.144-147	✓		
102-56	보고서의 제3자 검증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보고 및 외부 검증 보고서, 조직과 검증 제공자 간 관계의 독립성, 최고의사결정기구 또는 임원이 보고서 검증 과정에 참여 여부	pp.132-134	✓		
GRI 103:	103-1	중요성 이슈와 그 경계에 대한 설명	p.45-50	✓	
Management Approach	103-2	조직이 중요성 이슈를 관리하는 방식, 경영방침의 목적, 경영 방침이 정책, 선언, 목적 및 목표, 책무성, 자원, 고충처리제도, 프로세스 및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활동사항을 포함하는지 보고	p.45-50, 63-68, 81-84, 123-124, 127-128	✓	
	103-3	조직이 중요성 이슈의 경영방침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p.45-50, 63-68, 81-84, 123-124, 127-128	✓	

GRI STANDARDS - ECONOMIC (GRI 200)

Topic	Disclosure	Description	Cross Reference / Direct Answer / Omission	3 rd Party Assurance
GRI 201: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pp.99-114	✓
Economic Performance	201-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pp.83-84	✓
	201-3	조직의 확정 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총량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으로 정직원 기준 100% 적용됨	✓
	201-4	정부 재정지원	p.71, 106	✓
GRI 202:	202-1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모든 사업 지역에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및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없음. 단, 상세 내용은 내부 정보공개 정책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Market Presence	202-2	주요 사업장의 현지 고용 고위 관리직 비율	p.118	✓
	GRI 203: Indirect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	pp.63-68, 121
Economic Impacts	203-2	영향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pp.63-68	✓
GRI 204: Procurement	204-1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p.95	✓
Practices				
GRI 205:	205-1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p.87	✓
Anti-corruption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pp.85-87	✓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pp.87, 103	✓
GRI 206: Anti-competitive Behavior	206-1	경쟁자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p.87	✓

GRI STANDARDS - ENVIRONMENTAL (GRI 300)

Topic	Disclosure	Description	Cross Reference / Direct Answer / Omission	3 rd Party Assurance
GRI 302: Energy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pp.127-128	✓
	302-2	조직 외부 에너지 소비	p.117	✓
	302-3	에너지 집약도	p.127	✓
	302-4	에너지 소비 절감	p.127	✓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SK텔레콤은 별도의 제품 에너지 요구량이 없으며, 관련 서비스 절감량은 p.127에 모두 포함됨	✓
GRI 303: Water	303-1	공급원별 취수량	p.128	✓
GRI 305: Emissions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p.126	✓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p.126	✓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p.127	✓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pp.126-127	✓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pp.126-127	✓
	305-6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	산업 특성상 오존파괴물질(ODS)의 배출이 극히 미미함	✓
	305-7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 배출물	산업 특성상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배출이 극히 미미함	✓
GRI 306: Effluents and Waste	306-2	유형과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	p.128	✓
GRI 307: Environmental Compliance	307-1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주요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환경 법규 위반은 0건이며 과징금 및 벌금 납부 사실이 없음	✓
GRI 308: Supplier Environmental assessment	308-1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p.94	✓
	308-2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p.94	✓

GRI STANDARDS - SOCIAL (GRI 400)

Topic	Disclosure	Description	Cross Reference / Direct Answer / Omission	3rd Party Assurance
GRI 401: Employment	401-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	p.117-118	√
	401-2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p.117-118	√
	401-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p.119	√
GRI 403: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03-3	업무상 질병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	pp.90, 120	√
GRI 404: Training and Education	404-1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성별, 근로자 범주별)	p.119	√
GRI 404: Training and Education	404-2	지속적인 교육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p.119	√
	404-3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 (성별, 근로자 범주별)	p.119-120	√
GRI 405: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5-1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 (성별, 연령별, 소수집단별, 기타 다양성 지표별)	p.72, 117-118	√
GRI 406: Non-Discrimination	406-1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차별사건 0건	√
GRI 407: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407-1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사업장 및 협력회사	파악된 사업장 없음	√
GRI 408: Child Labor	408-1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pp.89-92	√
GRI 409 : Forced or Compulsory Labor	409-1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pp.89-92	√
GRI 411: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411-1	토착민의 권리 침해사고 건수 및 조치	pp.89-92	√
GRI 412 : Human Rights Assessment	412-1	인권 영향평가 혹은 인권 검토 대상 사업장	pp.89-92	√
GRI 413: Local Communities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pp.89-92	√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그리고 발전 프로그램 운영 비율	매출 99% 이상이 발생하는 주요 사업장(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 실시	√
GRI 414: Supplier Social Assessment	413-2	지역사회에 중대한 실질적/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는 사업장	지역사회에 대한 잠재적·실질적·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음	√
	414-1	사회적 영향평가를 통해 스크리닝된 신규 협력회사	pp.93-96	√
GRI 415: Public Policy	414-2	공급망 내 주요한 부정적인 사회 영향과 이에 대한 시정 조치	pp.93-96	√
	415-1	기부한 정치자금의 총 규모(국가별, 수령인/수혜자별)	pp.88	√
GRI 416: Customer Health and Safety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규정 위반 사건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관련 위반 0건	√
GRI 417: Marketing and Labeling	417-2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관련 위반 0건	√
	417-3	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별)	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 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0건	√
W GRI 418: Customer Privacy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0건, 관련 사항에 대한 예방 노력은 p.91 참고	√
GRI 419: Socioeconomic Compliance	419-1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법률 및 규제 위반	p.130	√

SASB INDEX

ACTIVITY METRIC				
측정 지표	카테고리	단위	코드	Cross Reference / Direct Answer
무선가입자	정량지표	명	TC0301-A	pp.37, 107
유선가입자	정량지표	명	TC0301-B	pp.107-108
광대역(브로드밴드) 가입자	정량지표	명	TC0301-C	pp.107-108
네트워크 트래픽, 이동통신 망 비율, 고정통신 망 비율	정량지표	Petabytes, %	TC0301-D	p.122
네트워크 대역폭 용량 및 임대 비율	정량지표	Mbits/s, %	TC0301-E	p.55-58, 122,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망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회선을 임대함

DISCLOSURE METRIC					
구분	측정 지표	카테고리	단위	코드	Cross Reference / Direct Answer
운영상의 배출량	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그리드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 셀룰러 및 고정 네트워크 에너지 소비량	정량지표	TJ / %	TC0301-01	p.127
	고객정보보호	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련 정책과 고객정보 및 개인식별정보 보유 정책	정성지표	TC0301-02	pp.123-124
정보 보안	고객정보 2차사용을 위해 수집된 고객 비율 및 동의 비율	정량지표	%	TC0301-03	-
	고객정보보호와 관련된 과징금(과태료) 총액 및 제재조치 현황	정량지표	KRW	TC0301-04	p.130
	고객 정보 관련 법적 제재 건 수 및 공개 비율	정량지표	건 수 / %	TC0301-05	p.130
폐기물 관리	정보보안 위반 건 수 및 비율 (개인식별정보 포함)	정량지표	건 수 / %	TC0301-06	정보보호 위반 건 수 없음
	정보 보안 리스크 식별 및 규명에 대한 경영 접근 방식	정성지표		TC0301-07	pp.123-124
통신(네트워크) 두절로 인한 시스템적 위험 관리	자원 회수 프로그램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 - 자원 재이용률, 재활용률, 매립율	정량지표	톤, 무게백분율	TC0301-08	pp.128-129
	통신(네트워크) 두절 빈도 및 평균 지속기간	정량지표	고객 당 통신두절 건 수 고객 당 통신두절 시간	TC0301-09	p.122
공정경쟁	통신(네트워크) 두절 시 대응 체계	정성지표		TC0301-10	pp.79-80, 122
	불공정경쟁과 관련된 과징금(과태료) 총액 및 제재조치 현황	정량지표	KRW	TC0301-11	불공정경쟁 관련 과징금 없음

재무 성과표(별도)

제 34 기 2017.12.31 현재
 제 33 기 2016.12.31 현재
 제 32 기 2015.12.31 현재

재무상태표		백만 원		
	제 34 기	제 33 기	제 32 기	
자산				
유동자산	3,768,098	3,661,115	2,713,529	
현금및현금성자산	880,583	874,350	431,666	
단기금융상품	94,000	95,000	121,500	
단기투자자산	47,383	97,340	92,262	
매출채권	1,520,209	1,594,504	1,528,751	
단기대여금	54,403	54,143	47,741	
단기미수금	1,003,509	772,570	264,741	
단기미수익	659	460	7,505	
단기선급금	13,783	30,988	80,926	
단기선급비용	121,121	107,989	92,220	
재고자산	29,837	32,479	45,991	
기타의유동자산	2,611	1,292	226	
비유동자산	21,789,424	21,787,459	20,433,411	
장기금융상품	382	102	10,062	
장기투자자산	724,603	560,966	726,505	
종속회사및관계기업투자	9,152,321	8,726,538	8,810,548	
유형자산	6,923,133	7,298,539	7,442,280	
영업권	1,306,236	1,306,236	1,306,236	
무형자산	3,089,545	3,275,663	1,766,069	
장기대여금	7,512	11,160	35,080	
장기미수금	285,118	147,139	0	
장기선급비용	25,169	27,918	29,802	
장기보증금자산	173,513	173,287	166,656	
파생금융자산	30,608	176,465	139,923	
이연법인세자산	30,953	58,410	0	
확정급여자산	40,082	24,787	0	
기타의비유동자산	249	249	250	
자산총계	25,557,522	25,448,574	23,146,940	

OTHER INFORMATION		백만 원		
	제 34 기	제 33 기	제 32 기	
부채				
유동부채	4,767,401	4,464,160	3,491,306	
단기미지급금	1,664,054	1,546,252	927,170	
단기선수금	76,126	71,431	50,100	
단기예수금	517,991	642,582	607,690	
단기미지급비용	790,368	663,918	540,770	
미지급법인세	206,060	461,999	375,189	
단기선수수익	3,705	1,360	10,014	
유동파생금융부채	27,791	86,950	0	
유동충당부채	48,508	59,027	37,551	
단기차입금	0	0	230,000	
유동성사채및장기차입금	1,131,047	628,868	592,637	
유동선정기미지급금	301,751	301,773	120,185	
비유동부채	5,782,730	6,727,460	5,876,174	
사채	4,334,848	4,991,067	5,033,495	
장기차입금	42,486	61,416	72,554	
장기미지급금	1,328,630	1,602,943	550,964	
장기선수수익	7,033	2,389	2,768	
확정급여부채	0	0	4,006	
파생금융부채	10,719	0	89,296	
비유동충당부채	16,178	21,493	20,055	
이연법인세부채	0	0	56,274	
기타의비유동부채	42,836	48,152	46,762	
부채총계	10,550,131	11,191,620	9,367,480	
자본				
자본금	44,639	44,639	44,639	
기타불입자본	371,895	371,481	369,446	
이익잉여금	14,512,556	13,902,627	13,418,603	
기타자본구성요소	78,301	(61,793)	(53,228)	
자본총계	15,007,391	14,256,954	13,779,460	
자본과부채총계	25,557,522	25,448,574	23,146,940	

제 34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제 33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3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손익계산서		백만 원		
	제 34 기	제 33 기	제 32 기	
영업수익	12,468,035	12,350,479	12,556,979	
매출액	12,468,035	12,350,479	12,556,979	
영업비용	10,770,326	10,568,307	10,898,203	
종업원급여	624,900	634,754	694,666	
지급수수료	4,864,463	4,716,555	5,102,723	
감가상각비	2,370,192	2,242,546	2,155,531	
망접속경산비용	628,610	687,048	720,879	
전용회선료및전파사용료	290,324	347,741	358,031	
광고선전비	150,361	174,186	175,776	
지급임차료	435,170	424,929	403,317	
상품및기타구입비용	515,013	502,770	462,256	
기타영업비용	891,293	837,778	825,024	
영업이익(손실)	1,697,709	1,782,172	1,658,776	
금융수익	188,025	323,563	246,394	
금융비용	274,098	261,393	314,191	
기타영업외수익	18,471	54,288	15,277	
기타영업외비용	165,783	200,771	132,99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관련 손익	139,484	(135,077)	(3,81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03,808	1,562,782	1,469,444	
법인세비용	272,694	345,508	362,683	
당기순이익(손실)	1,331,114	1,217,274	1,106,76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18,613	17,001	15,233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18,613	17,001	15,233	

포괄손익계산서		백만 원		
	제 34 기	제 33 기	제 32 기	
당기순이익(손실)	1,331,114	1,217,274	1,106,761	
기타포괄손익	141,840	(18,884)	(119,74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1,746	(10,319)	38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1,746	(10,319)	38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40,094	(8,565)	(120,12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19,910	5,385	(121,528)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20,184	(13,950)	1,402	
당기총포괄손익	1,472,954	1,198,390	987,021	

제 34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제 33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3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자본변동표		백만 원									
	자본금	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자본 합계
		기타불입자본		이외잉여금			기타불입	구성요소			
		주식발행	자기주식	자기주식	신종자본	주식선택권					
초과금	처분손실	증권	기타	기타불입	자본 합계						
2015.01.01(기초자본)	44,639	2,915,887	(2,139,683)	(18,087)	398,518	0	(722,741)	433,894	12,996,790	66,898	13,542,22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0	0	0	0	0	0	0	1,106,761	0	1,106,761
	기타포괄손익	0	0	0	0	0	0	0	386	(120,126)	(119,740)
연차배당금지급	0	0	0	0	0	0	0	0	(668,494)	0	(668,494)
중간배당금지급	0	0	0	0	0	0	0	0	0	0	0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0	0	0	0	0	0	0	0	(16,840)	0	(16,840)
자기주식의취득	0	0	(490,192)	0	0	0	0	(490,192)	0	0	(490,192)
자기주식의처분	0	0	369,249	18,087	0	0	38,408	425,744	0	0	425,744
동일지배회사업결합	0	0	0	0	0	0	0	0	0	0	0
주식보상비용	0	0	0	0	0	0	0	0	0	0	0
2015.12.31(기말자본)	44,639	2,915,887	(2,260,626)	0	398,518	0	(684,333)	369,446	13,418,603	(53,228)	13,779,460
2016.01.01(기초자본)	44,639	2,915,887	(2,260,626)	0	398,518	0	(684,333)	369,446	13,418,603	(53,228)	13,779,46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0	0	0	0	0	0	0	1,217,274	0	1,217,274
	기타포괄손익	0	0	0	0	0	0	0	(10,319)	(8,565)	(18,884)
연차배당금지급	0	0	0	0	0	0	0	0	(635,482)	0	(635,482)
중간배당금지급	0	0	0	0	0	0	0	0	(70,609)	0	(70,609)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0	0	0	0	0	0	0	0	(16,840)	0	(16,840)
자기주식의취득	0	0	0	0	0	0	0	0	0	0	0
자기주식의처분	0	0	0	0	0	0	0	0	0	0	0
동일지배회사업결합	0	0	0	0	0	0	2,035	2,035	0	0	2,035
주식보상비용	0	0	0	0	0	0	0	0	0	0	0
2016.12.31(기말자본)	44,639	2,915,887	(2,260,626)	0	398,518	0	(682,298)	371,481	13,902,627	(61,793)	14,256,954
2017.01.01(기초자본)	44,639	2,915,887	(2,260,626)	0	398,518	0	(682,298)	371,481	13,902,627	(61,793)	14,256,95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0	0	0	0	0	0	0	1,331,114	0	1,331,114
	기타포괄손익	0	0	0	0	0	0	0	1,746	140,094	141,840
연차배당금지급	0	0	0	0	0	0	0	0	(635,482)	0	(635,482)
중간배당금지급	0	0	0	0	0	0	0	0	(70,609)	0	(70,609)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0	0	0	0	0	0	0	0	(16,840)	0	(16,840)
자기주식의취득	0	0	0	0	0	0	0	0	0	0	0
자기주식의처분	0	0	0	0	0	0	0	0	0	0	0
동일지배회사업결합	0	0	0	0	0	0	0	0	0	0	0
주식보상비용	0	0	0	0	0	414	0	414	0	0	414
2017.12.31(기말자본)	44,639	2,915,887	(2,260,626)	0	398,518	414	(682,298)	371,895	14,512,556	78,301	15,007,391

제 34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제 33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3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현금흐름표

백만 원

	제 34 기	제 33 기	제 32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57,470	3,575,572	2,947,129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841,517	4,005,289	3,219,373
당기순이익	1,331,114	1,217,274	1,106,761
수익 · 비용의조정	2,804,239	2,931,278	2,811,718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 부채의변동	(293,836)	(143,263)	(699,106)
이자수취	46,774	23,014	18,786
배당금수취	101,256	113,955	59,462
이자지급	(183,939)	(199,332)	(221,309)
법인세납부	(548,138)	(367,354)	(129,183)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151,918)	(1,974,842)	(2,062,18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296,686	629,565	745,965
단기투자자산의순감소	50,000	0	105,158
단기금융상품의순감소	1,000	36,500	21,500
단기대여금의회수	206,932	232,745	387,922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0	0	7
장기투자자산의처분	15,276	336,669	22,106
종속회사및관계기업투자자의처분	0	1,063	185,557
사업결합으로인한현금증가	0	360	0
유형자산의처분	19,667	14,539	23,372
무형자산의처분	3,811	7,689	343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2,448,604)	(2,604,407)	(2,808,147)
단기투자자산의순증가	0	6,335	0
단기대여금의증가	203,511	237,197	364,687
장기금융상품의증가	0	40	10,000
장기투자자산의취득	12,863	19,501	296,254
종속회사및관계기업투자자의취득	286,298	87,088	306,382
유형자산의취득	1,870,634	1,674,027	1,752,804
무형자산의취득	75,298	580,219	77,830
기타비유동자산의증가	0	0	190

재무 성과표(별도)

백만 원

	제 34 기	제 33 기	제 32 기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99,286)	(1,158,738)	(701,42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647,516	607,725	927,204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0	0	30,000
사채의발행	647,328	607,474	897,029
파생상품거래로인한현금유입	188	251	175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746,802)	(1,766,463)	(1,628,624)
단기차입금의 순감소	0	230,000	0
장기차입금의상환	13,002	12,814	12,814
장기미지급금의상환	302,867	120,718	190,134
사채의상환	602,733	680,000	250,000
배당금의지급	706,091	706,091	668,494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	16,840	16,840	16,840
자기주식의 취득	0	0	490,192
파생상품거래로인한현금유출)	105,269	0	15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6,266	441,992	183,527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874,350	431,666	248,311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3)	692	(172)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880,583	874,350	431,666

글로벌 네트워크

미국

SK Telecom Americas, Inc 310 De Guigne Drive, Sunnyvale, CA 94085, USA
T. 1-408-328-2900 **F.** 1-408-328-2931

중국

SK Telecom (China) Holding Co., Ltd 27F, SK Tower, No. 6 Jia,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China
T. 86-10-5920-7777 **F.** 86-10-5920-7724

일본

SK Telecom Japan Inc. 8F, NBF Hibiya Bldg., 1-1-7, Uchisaiwai-cho, Chiyoda-ku, Tokyo 100-0011, Japan
T. 81-3-3591-3800

말레이시아

SK Malaysia Representative Office Suite 53A, Level 53, Vista Tower, The Intermark, 348 Jalan Tun Razak, 50400 Kuala Lumpur, Malaysia
T. 603-2166-9011

투자자 정보

본사 주소 / CORPORATE HEADQUARTERS

SK텔레콤	SK Telecom Co., Ltd.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04539) 02-6100-2114 http://www.sktelecom.com	65, Eulji-ro, Jung-gu, Seoul 04539, Korea 82-2-6100-2114 http://www.sktelecom.com

설립일자 / DATE OF ESTABLISHMENT

1984년 3월 29일	March 29, 1984
--------------	----------------

불입자본금 / PAID IN CAPITAL

44,639백만 원 (2017.12.31 기준)	KRW 44,639 million As of December 31, 2017
----------------------------	--

발행주식 총 수 / NUMBER OF COMMON SHARES

89,278,946 주 (2017.12.31 기준)	89,278,946 Shares As of December 31, 2017
------------------------------	---

상장 증권거래소 현황 / SECURITIES LISTINGS

한국증권거래소: 017670.KS (보통주) 뉴욕증권거래소: SKM (미국주식예탁증권) 런던증권거래소: SKMD (런던주식예탁증권)	Korea Stock Exchange: 017670.KS (Common Stock) New York Stock Exchange: SKM (ADS) London Stock Exchange: SKMD (ADS)
---	---

TRANSFER AGENT AND REGISTRAR

국민은행	Kookmin Bank
증권대행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02-2073-8100 02-2073-8111	Securities Agency Business Department, 36-3, Yeo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 Tel: 82-2-2073-8110 Fax: 82-2-2073-8111

AVAILABLE FILINGS

Form 20-F
 Form 6-K: Quarterly Reports, Proxy Statements, and other material announcements

연례주주총회 / ANNUAL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2018년 3월 21일(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5, SK T타워	Wednesday, March 21, 2018 SK T-Tower, 65, Eulji-ro, Jung-gu, Seoul, Korea
--	--

회사 홈페이지 / COMPANY WEBSITE

http://www.sktelecom.com	
--------------------------	--

문의처 / INVESTOR RELATIONS

Email: skt.ir@sk.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 65 SK T타워 (04539)	Email: skt.ir@sk.com 65, Eulji-ro, Jung-gu, Seoul 04539, Korea
--	---

SK TELECOM

ANNUAL REPORT 2017

제작정보

인쇄일	2018년 6월	기획 & 자문	한국생산성본부
발행	SK텔레콤	편집 및 디자인	IM creative
발행인	박정호	인쇄	일진인쇄
제작 책임	Corporate Development 그룹 IR담당	하형일	
		최정환	
		장 옥	
		한혜승	
		이현희	
김지원			
문의	hyeseung.han@sk.com		
	sean_h_lee@sk.com		

SK텔레콤 홈페이지
(<http://www.sktelecom.com>)에서
이 보고서를 PDF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관리된 산림에서 생산된 원료 및 기타 관리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 협의회) 인증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FSC 인증 인쇄소에서 인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공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SK Telecom Annual Report 2017>을 인쇄하였습니다.

또한 종이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소비되는 펄프와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이를 생산하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인쇄본은 물론 PDF로도 발간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지면의 한계로 인쇄본에 수록하지 못한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 PDF 보고서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인쇄본 대신 PDF 보고서와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가꾸는 일에 동참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편리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